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연구

www.welfare.seoul.kr



연구진

- 연구책임**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범용(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박성호(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
이형진(성공회대 NGO대학원 외래교수)

자문위원

- 김제선(대전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김해몽(부산시민센터장)
서정훈(광주NGO센터장)
윤종화(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장건(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내용	4
3. 연구방법	4
4. 연구 추진체계	5
II.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7
1. 지역재단의 특성 및 발전과정	9
2. 지역재단 현황	14
III. 국내 지역재단 운영사례	21
1. 풀뿌리희망재단(천안)	23
1) 설립배경 및 과정	24
2) 미션 및 주요사업	31
3) 모금전략 및 모금사례	47
4) 파트너십	64
5) 조직구조	69
6) 지역사회 변화	71
2. 부천희망재단	74
1) 설립배경 및 과정	74
2) 미션 및 주요사업	81
3) 모금전략 및 사례	85
4) 거버넌스	101

5) 인적자원	108
6) 지역변화	110
IV. 해외사례 및 시사점	113
1.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116
2. 지역재단과 지속가능성	119
1) 어바인재단과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119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125
3. 지역재단 : 정보와 사회참여	140
1) 나이트 재단과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	140
2) 각 재단별 사업 내용	142
3) 합의	149
4. 국내 시사점	150
V.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과제	153
VI. 정책제언	161
1. 제언	163
2. 합의	167
■ 참고문헌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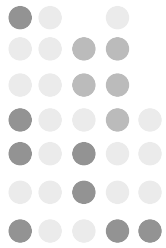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의 기획부터 출간까지 상호논의를 거듭하였다.
 공동연구진은 목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Ⅲ장과 Ⅳ장을 직접 작성하였다.
 연구책임자는 Ⅲ장과 Ⅳ장을 제외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공동연구진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자문진 및 공동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표 · 목 · 차

〈표 II-2-1〉 미국 지역재단의 변화(1990-2009)	14
〈표 II-2-2〉 해외지역재단 지원조직 사례	16
〈표 II-2-3〉 국내 지역재단 현황	19
〈표 III-1-1〉 풀뿌리희망재단 설립발기인의 직업군	30
〈표 III-1-2〉 풀뿌리희망재단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사업 참가기관	34
〈표 III-1-3〉 풀뿌리희망재단의 ‘풀뿌리운동 희망 찾기’ 강좌 내용	34
〈표 III-1-4〉 풀뿌리희망재단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	47
〈표 III-1-5〉 풀뿌리희망재단 최근 5년간 배분지원비 추이	47
〈표 III-2-1〉 부천희망재단 주요사업	83
〈표 III-2-2〉 부천희망재단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	84
〈표 III-2-3〉 부천희망재단 최근 5년간 배분지원비 추이	84
〈표 IV-1-1〉 어바인재단의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 II 비교	117
〈표 IV-2-1〉 지속가능한 성장과 접근 방법	124
〈표 IV-2-2〉 네 가지 유형의 경제적 동인(drivers)	124
〈표 IV-2-3〉 [사례] Greater Green Bay Community Foundation(Wisconsin)	129
〈표 IV-2-4〉 [사례] The Community Foundation Serving Boulder County(Colorado) ..	131
〈표 IV-2-5〉 [사례] Community Foundation of the OZARKS(Missouri)	132
〈표 IV-2-6〉 펀드의 종류 및 규모와 실제 월가 산출 내역(Kern Community Foundation) ..	134
〈표 IV-2-7〉 [사례] Napa Valley Community Foundation(California)	137
〈표 IV-2-8〉 지역재단 이사회의 역할: 지속가능성과 임팩트의 가이드	140
〈표 IV-3-1〉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에 참여한 4개 지역재단 프로필	142

그림 · 목 · 차

[그림 I-1-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IV-2-1] 어바인재단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의 결과물	120
[그림 IV-2-2] 어바인재단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I의 결과물	121
[그림 IV-2-3] ‘이니셔티브 II’에 참여한 지역재단의 지리상 분포	123
[그림 IV-2-4] 자산 규모별 자산 성장률 및 운영 적자 추이(1995~2005)	126
[그림 IV-2-5] 3개 지역재단의 자산, 수입, 비용, 적자 추이—Shasta, Kern, San Luis Obispo	127
[그림 IV-2-6] 소규모 펀드의 상쇄 효과	135
[그림 IV-2-7] 모델 비교(기부자지정펀드 vs. 커뮤니티 임팩트펀드)	136



I | 연구개요 |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질주해온 것과 달리, 이제 지자체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을 복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욕구 및 지역특성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동체는 지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경제발전을 위해 달려온 세월 속에 그 형태와 가치들이 잊혀졌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달려온 그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자신’ 만이 아닌 ‘이웃’을, ‘지역’의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비용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로 인해 지방의 재정문제가 현안이 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부 및 나눔을 통해 지역재단을 설립·운영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약 10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역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 연구(2013)’와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2014)’를 수행한 바 있다. 두 연구에서는 지역재단의 특성 및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들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지역재단 모범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해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사례들을 소개하였으며, 국내 지역재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 및 모델과 설립매뉴얼도 제시하였다.

아직 지역재단 설립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 용어조차 생소한 이가 더 많은 실정이므로, 연구를 통해 지역의 많은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지역재단을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015년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회복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재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과 자원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력 및 자원들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재단의 특성 및 역할과 국내외 지역재단 현황을 살펴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토하여 제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내용이 보완될 것이다.

둘째, 국내 지역재단의 선두 주자인 천안 풀뿌리희망재단과 부천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재단 후발주자 또는 지역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지역재단 설립·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중소형규모의 해외 지역재단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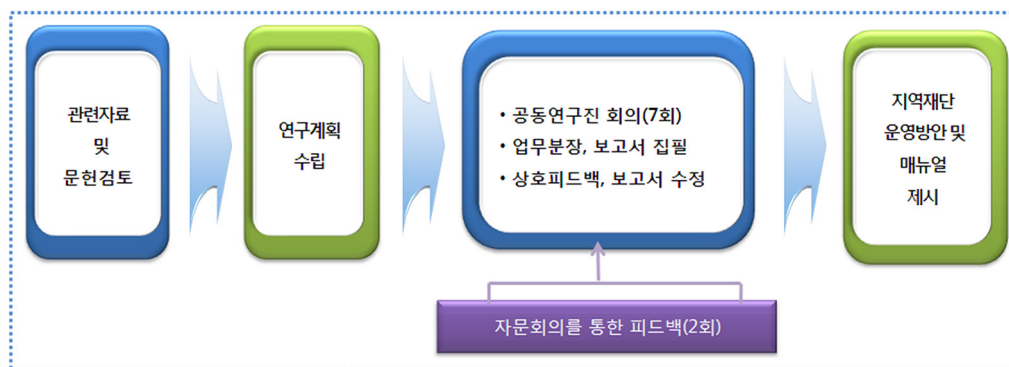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재단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공동연구진 채용,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지역재단을 운영하는 상임이사 2명과 NPO 관련 학계전문가 1명을 공동연구진으로 채용하였다. 공동연구진은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업무분장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 7차례에 걸친 공동연구진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간 피드백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방향 및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현재 지역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나 NPO 혹은 NGO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 5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자문 회의는 6월에 공동연구진과 함께 집합회의로 실시되었으며, 2차 자문회의는 10월에 서면 자문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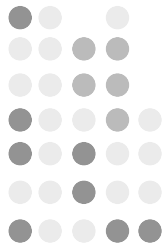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4.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I-1-1]과 같다. '13년과 '14년에 진행된 두 선행연구에서 지역재단의 특성 및 국내의 현황, 개념 및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 지역재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지역재단을 경험한 해외 중소형 지역재단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재단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진 4인은 업무분장에 따라 보고서를 집필하고 상호피드백 및 자문진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거듭 수정·보완함으로써 보고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I-1-1] 연구추진체계



II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II.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역재단은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재단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나 아직 지역재단의 개념조차 낯설기만 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역재단의 특성 및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II장에서는 지역재단의 특성 및 발전과정, 국내외 지역재단 현황 등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지역재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지역재단의 특성 및 발전과정

1) 지역재단의 특성 및 역할¹⁾

지역재단은 모금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며²⁾,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말 그대로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재단이다.

지역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지원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박원순, 2011).

지역재단에 대한 몇몇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재단은 면세, 비영리, 자치, 대중적 지원, 비분과적인 특징을 가진 자선기관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독립된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지며 기부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영속적인 기금의 설치를 장기적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들 기금은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광범한 편익을 도모하며 그 범위는 주(state)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미국 지역재단협의회).³⁾

1) 김미현(2014)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내용을 첨가하거나 수정·보완하였음.

2) 미국의 유나이티드웨이나 우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된 돈을 당해연도에 모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재단의 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자와 과실만으로 사업을 함.

3) Council on Foundations. 1949년 설립. 자선조직들이 공동선 향상을 위해 그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회, 리더십,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

세계지역재단협의회 WINGS(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는 지역 재단을 “기부자들로부터 모은 기부금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단의 사명에 따라 필요한 단체에 배분해주는 재단(grantmaker)”이라고 정의하며, 주요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

- 특정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른 조직, 정부 또는 기부자의 통제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폭넓은 다양성과 변화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에게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 지역주민, 기업, 정부, 다른 재단 및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기부자들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자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부자들이 그들의 자선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촉매자(catalyst), 주최자(convenor), 협력자(collaborator), 촉진자(facilitators)로서 지역의 광범위한 리더십 및 파트너십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개방하고 투명한 정책과 실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재단의 목적과 활동,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영국 UKCF(UK Community Foundation)⁵⁾는 지역재단이 다른 재단들과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재단은 지역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재단은

4) http://wings-community-foundation-report.com/gsr_2010/gsr_aboutcfs/about-community-foundations.cfm, 그러나 모든 재단들이 이 원칙을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5) <http://ukcommunityfoundations.org>, CFN(Community Foundation Network)이 2013년 UKCF로 변경됨.

신중한 지원과 배분을 통해 기부자의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며, 맞춤형 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자신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게 한다. 지역재단은 전문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를 지원하며, 다양한 목적의 기금축적과 그 수익을 통해 지역단체들에게 배분하고 지원한다.

지역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촉매자(cataly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안목과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미국의 제임스 어바인 재단(The James Irvine Foundation)은 지역재단의 잠재력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기금형성과 배분이라는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를 키우는데 있다고 믿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7개 지역재단을 지원하였다⁶⁾.

대다수의 지역재단은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에서 기금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의견이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촉매자로서의 역할이며, 이러한 촉매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지역재단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규모가 작은 지역재단일수록 촉매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관계자들이 지역재단에 대해 인식하고 기부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2) 지역재단의 발전과정⁷⁾

지역재단이 최초 설립 이후 어떠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역재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미국의 지역재단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14년 오하이오주에 클리블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3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 많은 개인들이 재산과 소득을 잃기 전까지 지역재단의 수와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역재단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6) The James Irvine Foundation, 2004. Community Catalyst 참조

7) Jeffrey S. Lowe(2004)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8) 본문 2장 2)절 해외 지역재단 현황 참조

이후 약 20년간 성장을 거듭하던 지역재단은 60년대 중반부터 또 다른 침체기를 경험해야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일부 개인과 집단들은 지역사회가 동질성을 가진 시민만을 포함한다고 생각한 반면, 인권 및 여권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이 모두 지역사회에 포함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지역재단 성장 저해의 또 다른 요인은 이러한 포용성과 다양성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규모의 재단(national foundation) 및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묵살해왔다고 믿는 일부 백인들, 유럽의 인종단체와 노동조합원들, 가톨릭교도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969년에는 지역재단의 모든 사업에 대해 의회의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지역재단은 민간 재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네 가지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공적 책임을 주장하였다. 네 가지 특성은 첫째,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기부자들로부터 생성된 기금, 둘째, 공익을 대표하며 공무원이나 기관 또는 재단이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사회, 셋째, 전문성 높은 직원들, 넷째, 지역사회 내 연차보고서 배포 등이다(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US Congress, 1969). 이후 1969년의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은 지역재단에 다른 어떤 재단 보다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재단과 기부자들이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방정부가 주나 지자체로 책임을 위임하듯이, 전국 규모의 재단들은 지역재단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재단이 지역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지역재단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면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믿었다.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릴리재단(Lily Foundation), 존 D. 앤 캐서린 T. 맥아더재단(John D. and Catherine T. McArthur Foundation), 찰스 스투어트 모트재단(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등 4개의 전국 규모 재단들이 지역재단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입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재단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1984년 찰스 스투어트 모트 재단은 지역재단이 빈곤 지역의 지역단체를 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재단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역재단 및 지역주민

들을 위한 소규모 보조금 사업(Community Foundation & Neighborhoods Small Grants)'을 시작하였다. 이는 1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25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재단이 지역지원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거쳐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라. 둘째, 이해관계자들이 기여한 것을 밝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셋째, 성공을 공유하고 축하하라. 넷째,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라. 다섯째, 어디에서 어떻게 그들의 기여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지원하라.

1987년부터 1991년까지 27개의 지역재단이 포드재단과 존 D. 앤 캐서린 T. 맥아더 재단이 후원하는 '지역재단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Leadership Program for Community Foundation)'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2백만~13백만달러 규모의 고정자산(permanent assets)을 보유한 소규모 지역재단의 자산증대와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를 통한 역량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즈음 모든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감 증가, 자원 증가, 지역사회 조직 기술의 향상과 같은 영역에서 역량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지역재단의 성장과 역량 형성에 기여하여 주목을 받았던 릴리 인다우먼트(Lily Endowment, Inc)는 1990년 GIFT(Giving Indiana Funds For Tomorrow)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디애나 주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재단뿐 아니라 신규 지역재단 설립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은 기술지원, 자산 형성,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운영 등 4개 활동 영역에서 지원이 가능하였다. 10년 동안 인디애나 주의 지역재단 수는 대략 12개소(총 자산 1억 달러)에서 90개소 이상(총자산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인디애나 주는 그 어떤 주보다 지역재단이 가장 밀집한 주가 되었다.

1983년부터 1999년까지 포드재단은 15개의 지역재단이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과의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지역사회개발협력체(communitiy development collaborative : CDC)의 설립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즉, CDC에 대한 지역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포드재단은 지역재단이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

협력체를 합법화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여러 지역재단이 포드재단이 제안한 모델을 따라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CDC의 노력을 합법화 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협력체를 설립하였다.

2. 지역재단 현황

1) 해외 지역재단 현황

세계 최초의 지역재단은 클리블랜드 재단으로서 프레드릭 고프(Frederick H. Goff)가 1914년에 설립하였다. 고프는 지역 내 자선가들의 돈을 모아 재단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정신적·도덕적·물질적 삶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설립 후 5년 이 지난 1919년에서야 첫 기부가 들어왔으며, 5년간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실행의 기반을 다졌다. 클리블랜드 재단은 시민발전기금(civic-progress fund) 18억 달러를 조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 협력적 파트너십, 용기 있는 리더십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부자들의 기부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모든 계층의 기부로 확산되었으며, 단순히 기부금을 분배하는 기능에서 지역사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로 그 기능이 발전되었다. 클리블랜드 재단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단 성장의 모체가 되었으며, 클리블랜드 재단 설립 이후 5년 내 시카고·보스턴·밀워키·미니애폴리스·버팔로 등 미국의 주요재단이 설립되었다.

〈표 II-2-1〉 미국 지역재단의 변화(1990-2009)

구분	1990	2009	성장률(%)
재단수	328	737	124.6
총배분액	4억 9,588만 달러	41억 7,441만 달러	751
총자산	62억 2,244만 달러	494억 9,121만 달러	695.7
모금액	6억 939만 달러	48억 1,437만 달러	597.1

〈표 II-2-1〉과 같이 2009년 현재 미국 내 지역재단은 737개(1990년 328개)로서 2008년 전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재단은 여전히 기부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금기관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단 설립은 확산 추세에 있다(2000년 905개소에서 2010년 1,680개소). 그중에서도 유럽, 특히 독일의 지역재단 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유럽(독일)은 2000년 103개소(10개소)에서 2010년 631개소(240개소)로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경우 현재 100개 이하이나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⁹⁾

지역재단의 그간 성과로는 시민참여 증가(Citizens more involved),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Stronger linkages across the community), 기관의 투명성 증가(Greater transparency of authorities), 지역 내 신뢰 증가(More trust in the community) 등(2010 세계지역재단 현황보고서 GSR : global status report)¹⁰⁾을 들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적으로 각 지역재단들의 발전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재단 지원조직(supporting organization)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표 II-2-2 참조)

9) 2012 GSR(global status report)보고서에서는 “Africa is rising”이라고 하여 향후 아프리카의 지역재단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10) Executive Summary : WINGS(Worldwide Initiative for Grantmaker Support)

〈표 II-2-2〉 해외지역재단 지원조직 사례

조직	CMF (미국) 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	UKCF (영국) UK Community Foundation	EFC (유럽) European Foundation Centre
설립연도	1975	1991	1989
설립 배경	1972년, the Kellog Foundation, the Dow Foundation, the Kresge Foundation, and the Kalamazoo Foundation 등 미시간 주 지역재단들의 대표들은 1969년 개정된 세금제도(Tax Reform Act) 및 변화하는 지역재단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음. 당시 지역재단의 대표들은 그들의 경험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임. 미시간 주 지역재단 대표들 간의 컨퍼런스는 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1975년 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 (CMF)가 501c(3) ¹¹⁾ 협회 멤버로 설립되었음.	1975년, 영국에 처음으로 지역재단(Swindon지역)이 설립된 이래로, 1980년대에는 6개의 지역재단들이 The CAF ¹²⁾ 와 중앙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았음. 그 후 1991년에 The CAF와 찰스스튜어트모트재단 ¹³⁾ 들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영국 내에서 지역재단기금 발전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입증되었고, 그 시기에 UK Community Foundation(UKCF)가 설립되었음.	1989년에 설립된 European Foundation Centre(EFC)는 유럽 지역재단들의 국제적인 멤버십 협회로 23년 동안 7개의 주요 지역재단(The Charities Aid Foundation, Fondation De France, Fundação Oriente, King Baudouin Foundation, Stifterverband, Oranje Fonds)들과 함께 성장하여 왔음. EFC는 국제적 비영리단체로서 벨기에 법(AISBL)으로 등록되어 있음 ¹⁴⁾ .
목표	미시간 주 자선활동(philanthropy)의 영향력 향상(To grow the impact)을 목표로 함.	각 지역재단들의 발전과 지역재단의 효과적인 지원(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재정적·물리적 자원의 설립 및 지원, 기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재정적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협업)을 목표로 함.	유럽 지역재단의 강화를 추구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회원 수	330개 이상의 지역재단들이 회원으로 가입 ¹⁵⁾ 되어 있음.	46개의 지역재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214개의 지역재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자원	큰 규모의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음.	큰 규모의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음(ex. Big Lottery Fund ¹⁶⁾)	유럽의 지역재단 및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음.
순자산	\$27,292,322	615(£'000)	\$5,252,209

II.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

조직	CMF (미국) 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	UKCF (영국) UK Community Foundation	EFC (유럽) European Foundation Centre
주요 사업 내용	정부와 비영리부분(nonprofit sector)간의 파트너십 지원 및 법적 문제 논의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커뮤니티 내에서의 변화·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 (Comic Relief ¹⁷⁾)	EU의 법을 지지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규제를 반대, 세금감면과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와 정부 리더들 간의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서 비판적 이슈 및 논의사항 검토	회원 지역 재단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교육
	지역재단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지역 재단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정기회의 등 개최	유럽지역의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ex. 미디어 활용), 재단 홍보 및 유럽 지역재단들과의 정보 공유
	지역재단의 기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질 높은 혁신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마케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 재단 홍보 및 회원 지역재단에 대한 현황 공개(Local Giving)	자금 제공자들과의 네트워크(ex. DAFNE ¹⁸⁾)를 활용한 현 이슈, 트렌드에 대한 논의
	지역재단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및 트위터를 이용한 마케팅 및 정보제공	기부금 및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자선 위원회의(The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¹⁹)보증	연간회의와 컨퍼런스 개최 및 지역재단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11) 거의 모든 재단은 IRS의 규정에 따라 501(c)(3)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12)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 13)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 14) 기관수는 Italy-46, Germany-24, United States-16, Netherlands-14, United Kingdom-13기관 순임. 현재 벨기에 지역에 위치해 있음.
- 15) Family Foundations(123)37%, Community Foundations Affiliates, DAFs(94)29%, Independent Foundation (44)13%, Corporate Giving Programs/Corporate Foundations(40)12%, Public Foundations & Public Donor Advised Funds(20)6%, Individuals & Out of State(11)3%
- 16) Big Lottery Fund(BLF)는 비정부공공기관으로서 기금 분배를 책임지는 기관임. 2004년 이래로 영국 내에 130,000개의 프로젝트에 £4,400,000,000를 지급하였음.
- 17) 그 외에 홍수나 태풍에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Flood and Storm Appeal),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Surviving Winter), 사회 트렌드나 이슈들을 조사하여 지역 자선(단체) 기부 안내서와 같은 정보를 지역 내에 제공(Vital Signs), 기부금의 50%를 정부로부터 매칭해주는 프로그램 (Community First) 등이 있음.
- 18) 유럽의 기부자와 지역재단을 위한 자체적 거버넌스 체계의 네트워크(6,000개의 재단이 소속되어 있음).
- 19) 영국 내 자선단체(The Charity)들의 승인을 위한 비 행정부 정부기관.

2) 국내 지역재단 현황

국내 최초의 지역재단은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현안 문제와 활동가들의 소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5년 윤희란 복지활동가가 막사이사이상 수상금 5만 달러를 기탁함으로써 재단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6년 8월에 600명의 시민들이 기부한 3억 4천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7년 3월 충청남도 공익재단법인 2007-1호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13년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사업(꿈찬그룹홈 설립지원, 해누리청소년센터 설립지원,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지원),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사업(해외연수·가족여행 지원, 애니어그램 바로알기, 함께하는 학습코칭, 비영리단체 중견활동가 교육사업), 미래세대 희망투자사업(새내기 대학생 첫등록금 지원사업, 청소년 자립기반마련 자격증 지원사업), 지구촌 나눔사업(방글라데시 우물파기·화장실 설치 지원), 기부문화 연구(천안·아산지역 기업의 기부현황 조사연구) 등이 있다.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모금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모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활발한 지역밀착형 사업 등을 통해 지역재단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나라 지역재단의 롤 모델이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도에는 부천희망재단(2011년 3월)을 시작으로 성남이로운재단(2012년 4월), 안산희망재단(2013년 5월), 남동이행복한재단(2013년 10월) 등 4개소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상황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재단의 불모지라 할 수 있으나, 각 지역의 NPO 및 NGO 등을 중심으로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재단의 역할 및 기능들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재단의 발전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supporting organization)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주요 현황은 <표 II-2-3>과 같다²⁰⁾.

<표 II-2-3> 국내 지역재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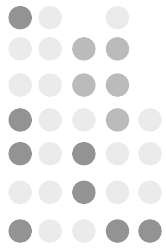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연번 (지역)	법인명 (설립년도)	설립배경 및 목적	연간 세입현황 ('13년/'14년)	주요사업
1 (천안)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 (200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희관 복지활동가가 2005년 막사이사이상 '떠오르는 지도자' 부문을 수상, 상금 5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 - 이후 시민 600여명의 기부금인 3억 4천 5백만 원을 설립기금으로 2006년 설립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재단 	총수입 329,292,536, 후원금수입 257,202,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큐베이팅 사업(클로버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지원) - 활동가 역량강화사업(해외연수 지원사업, 가족여행 지원사업) - 활동가 교육지원사업(한국형 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아동·청소년 학습코칭 교육, 청년공익활동가배움터, 천안비영리컨퍼런스) - 미래세대 희망투자사업(새내기 대학생 첫 등록금 지원사업, 청소년 자립기반마련 자격증 교육비 지원사업) - 지구촌 나눔사업(방글라데시 우물파기·화장실 설치 지원) - 기부문화연구
2 (부천)	부천 희망재단 (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년 전 부천 시민사회활동의 원로인 강희대 서예가의 뜻을 기리는 강희대 시민상이 모태가 되어 관의 도움없이 민간 주도로 설립 - 모금이 어려운 비영리 공익기관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총수입 554,514,900, 후원금수입 344,745,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인재 육성 및 해외 연수 지원 -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비영리공익단체 '청년공익활동가양성프로젝트' 지원) - 정인조 풀뿌리 참시민 기금(부천지역 공익활동경력 5년 이상 비영리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난치병 미취학아동 지원(어린이 집연합회 연계 매년 3천만 원 모금) ● 지역공동체의식 복원 사업 - 희망나눔콘서트(디딤씨앗통장21) 지원) - 희망리어카(폐지 줍는 노인 지원) ● 사회적 약자 지원 - 지우개캠페인(부천지역 대학생 신용유의자 17명 신용회복 지원) - 청개구리밥차(가출청소년지원)

20) 천안풀뿌리재단·부천희망재단·성남이로운재단은 2013년, 안산희망재단은 2012년 사업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인천남동이재단의 경우 2014년 정기총회자료집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음. 안산희망재단과 남동이행복한재단은 설립 이후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연번 (지역)	법인명 (설립년도)	설립배경 및 목적	연간 세입현황 ('13년/'14년)	주요사업
3 (성남)	성남 이로운재단 (2012.4)	-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살아 가고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변화와 희망을 주기 위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재단으로서 순수 민간 에 의해 설립	총수입 136,083,083, 후원금수입 135,339,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대학생 첫 등록금, 결식아동 제로, 공부방, 다문화 자녀 지원기금 • 사회적 약자·소수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우(아동)치과 치료, 한부모 가정 생활비 및 의료비, 무더위·추위 노인, 독거노인, 노숙자 쉼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 새터민 쉼터 지원 기금 • 공익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및 대안적 공 익활동 사업비 지원, 풀뿌리시민사 회단체의 일상적 공익활동 후원, 비 영리단체 활동가 양성 및 지원기금 • 재능기부 컨설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비영리 공익단체 법률 및 세무 회계 컨설팅, - 후원기부·유산기부 컨설팅, 기부 및 모금 관련 교육 컨설팅
4 (안산)	안산 희망재단 (2013.5)	- 환경, 노동, 복지문제 등으로 갈등 발생하여 산업단지외 시민사이에 대립과 반목 지속. 기업과 시민의 통합 필요 - 나눔이 순환하는 희망의 지 역공동체를 목표로 함	총수입 101,171,807, 후원금수입 52,879,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청 소년 등 지원(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 지원 - 일자리 만들기 - 기부문화 확산(시민 1% 나눔운동, 기부문화 조성) - 비영리공익단체 지원(공익활동가 재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5 (인천)	남동이 행복한 재단 ²²⁾ (2013.10)	- 주민과 기업의 참여와 나 눔을 통해 행복한 지역공 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 적 변화를 이끌어냄 - 나눔과 함께/삶을 바꾸는 복지/함께 그리는 세상	총수입 134,613,970 후원금수입 7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 및 기금 조성 사업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복지사각재단 해소 - 생태, 문화 등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 - 지역사회 리더 발굴·육성 - 공동체 사회를 위한 대안 연구

21)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적립금은 대학(대학원)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22) '2014년 남동이행복한재단 정기총회 자료집' 참조



Ⅲ | 국내 지역재단 운영사례



Ⅲ. 국내 지역재단 운영사례

Ⅲ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지역재단인 천안 풀뿌리희망재단과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인 부천희망재단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의 노하우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재단의 운영사례는 설립배경 및 과정, 미션 및 주요사업, 모금전략 및 사례, 민관협력(파트너십), 인적자원, 지역변화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설립배경 및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현안을 비롯하여 지역재단 관련 연구(지역재단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학습, 국내외 현장탐방 등), 지역자원(인적·물적 자원) 확보, 네트워크 구성 및 관계자 협조 등의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션 및 주요사업에서는 각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비롯하여 사업목표·사업방향·사업계획·사업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모금전략 및 사례에서는 각 재단의 후원금 모금전략 및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넷째, 민관협력(파트너십)에서는 비영리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민관 혹은 민민 네트워크 현황, 시민참여 및 기업의 사회공헌파트너십 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인적자원에서는 재단 상임이사의 역량 및 자질과 노력, 이사진·사무국장·간사 등 인적자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지역변화에서는 재단 창립 이후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지속적인 지역변화 창출을 위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1. 풀뿌리희망재단(천안)

풀뿌리희망재단은 2006년 8월 천안지역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인 윤혜란의 상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시민 600여명이 출연해 만든 공익 비영리법인이다. 재단은 설립 이후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미래세대 성장, 기부문화 확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1) 설립배경 및 과정

(1) 천안지역 시민사회의 특성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제도적 민주화로 한국사회는 비로소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가가 시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던 시기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러한 열린 공간에서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역별로 조직화되어 등장하였다. 시민운동은 토지공개념 입법,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문제제기자로서, 대변자로서, 대안제시자로서 한국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운동은 생활협동조합운동,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찾아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빠른 성장은 역량에 비해 다양한 영역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많아 90년대 후반부터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도 함께 생겨났다. 특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자기성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천안지역은 시민운동의 문제를 조직과 운동의 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하며 다양한 시민운동 영역에서 지도력의 지속적 발굴을 통한 재생산과 시민사회의 폭넓은 역량 강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지역 시민운동이 없던 천안지역에서 시민운동의 형성과정은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1993년 설립된 천안YMCA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천안YMCA는 청소년문화, 대중교통, 환경, 소비자, 지방자치 발전 등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천안지역의 시민사회 성장을 이끌었다.

1997년 이후 천안지역의 시민사회는 새롭게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태동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1997),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1998),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1998), 천안KYC(1999) 등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이 계속해서 창립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천안YMCA의 상근활동가

또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던 전문가, 자원봉사자, 회원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는 지역의 시민운동이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운동이 필요하다는 천안YMCA 시민운동 리더들의 성찰 결과였다.

또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창립 이후 IMF 위기상황에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여는 아이들(1998~2003)〉, 발달장애아동들의 부모조직인 〈충남 장애인부모회(1999~2000)〉, 미신고장애인시설의 비리사건에 대응하며 우리사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당사자조직인 〈충남여성장애인연대(2000~2003)〉, 원도심지역의 노인문제에 접근한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2003~2005)〉 등을 조직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복지현안과 자조모임에서 제기된 사안을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개하여 2~3년 후에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지역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90년대 이후 약 10여 년간 천안지역 시민사회는 시민운동 조직과 공익활동가들이 씨줄과 날줄로 연계되어 이후 풀뿌리희망재단이 탄생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또한 모금기관으로서 지역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내 한정된 모금자원이 나눠먹기 식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부정적 개념보다 비영리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

(2) 설립과정

풀뿌리희망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좀 멀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박성호 당시 천안YMCA 사무총장(현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이 미국의 비영리단체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연수를 통해 앞으로 시민운동 영역에도 경영과 마케팅이 필요하고, 지역재단과 같은 지역모금기관을 통해 지역시민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얻었다. 그는 지역시민운동가 몇몇과 함께 『재단이란 무엇인가(헬무트 안하이어 외, 2002)』를 같이 읽으며 지역재단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다양한 비영리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단의 필요성과 함께,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0년 박원순 변호사가 주도해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은 천안지역에 지역재단을 설립하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재단의 종류나 수가 많을뿐더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가능하면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기 미션과 비전에 의거해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개발과 이슈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모금을 하여,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박성호 상임이사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인터뷰 (2006년))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추진계획 없이 안타까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2005년 드디어 천안지역 시민사회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 사무국장 윤혜란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떠오르는 지도자부문)을 수상하면서 5만달러(약 5천만원)를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상금의 사용용도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지역재단 설립의 종잣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막사이사이상 수상 축하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재단 설립준비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며, 시민단체·사회복지단체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15명의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호)가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재단의 방향과 역할을 설정하는 일, 발기인 모집 및 재단 이사로 참여할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 재단의 기본재산을 모금하는 일 등이었다.

발기인 모집을 위해 기업,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우편 발송과 전화, 직접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당시 구상한 비전은 최초 1인 기부자로부터 15인의 설립추진위원을 추천받음으로써 이를 통해 150인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1,500인의 재단설립자로 동심원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총 143명의 발기인과 2억4천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여 2006년 7월3일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충근 초대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600여명의 재단설립자가 추가로 약 1억 원을 기탁함으로써 2006년 8월31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모금된 총 3억4천만 원 중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설립추진위원회가 재단 기본재산의 모금목표를 3억 원으로 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지역은 3억 원, 중앙은 5~6억 원의 기본재산이 요구된다는 통설을 들었을 뿐 어디에도 그런 명문화된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2,000명에게 발기인 참여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팸플릿과 전화 한 통만으로 발기인회비 1백만 원을 기부한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내용만 보고 선뜻 기부한 분이라 저희도 놀랐죠.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발기인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액수가 크면 만나서 권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3개월간 집중해서 만났고, 7월 초에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 (박성호 상임이사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인터뷰(2006년))

설립준비 과정 중에는 재단의 명칭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풀뿌리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은 ‘풀뿌리(운동)가 희망이다’라는 신념을 기초로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풀뿌리(운동)의 역량을 강화해 희망을 복돋우다’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시민운동지원기금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가 명칭과 성격에서 시민운동을 너무 표면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풀뿌리희망재단의 명칭이 모금활동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재단 설립의 미션을 명칭에도 분명히 담고자 하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이 발기인총회에서 받아들여졌고, 1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모금활동이 재단의 명칭으로 크게 제약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관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도 ‘이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2006년 8월 창립대회를 마치고 거의 1년여의 시간은 재단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었다. 최초 6개월의 시간은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데 사용되었다. 충남도청은 지역재단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려 하지 않았다. 3개 부서를 순회하며 지역재단 및 재단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도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외부의 도움으로 기획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의 새마을과에 업무를 배정시켰다. 담당부서와 실무적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모금을 통해 사업을 실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마침내 2007년 3월 재단법인 허가를 얻고 등기를 마침으로써 (재)풀뿌리희망재단이 탄생하였다.

한국 최초 지역사회재단 '풀뿌리희망재단' 창립 지역NGO의 벗으로 8월31일 천안서 창립, 시민단체 활동가 지원

천안지역 시민사회, 98년 이후 비약적 성장

8월 31일 오후 7시 신방동 파크에비뉴 야외행사장에서는 '풀뿌리희망재단 창립대회 및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풀뿌리희망재단 발기인 및 설립기금 후원자들과 지역인사 등 4백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광야에서'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 등 사회성 짙은 노래들로 80년대를 풍미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축하공연을 감상하고 영상메시지도 보며 재단 창립을 자축했다.

풀뿌리희망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3월 30일. 추진위 구성 후 다섯 달만에 창립이란 첫 번째 결실을 이뤘다.

풀뿌리희망재단은 한국사회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재단이다.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이란 일정 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시민들로 만들어진 재단이다.

특히 풀뿌리희망재단은 천안이라는 지역성 외에 천안지역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 지원을 재단의 핵심역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례가 없음에도 다섯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풀뿌리희망재단은 창립했다. 그만큼 재단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가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천안은 지난 1993년 천안YMCA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지역시민운동 시대를 개막했다. 뒤이어 천안YWCA, 천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충남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가 창립했다.

지역시민운동은 1998년 이후 또 한번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98년 이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새교육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천안KYC, 천안시민포럼 등이 창립했다. 지역시민운동단체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2002년에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는 90년대 초반에는 YMCA와 YWCA 등 전통적인 시민운동단체가 활동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복지, 환경, 교육, 지방자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창립, 양과 질적인 성장을 맞았다.

풀뿌리희망재단, 천안지역 시민단체 창립

규모나 숫자 면에서 천안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는 몇 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속내를 보면 취약점도 많다.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4월 펴낸 '천안시 사회복지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단체별 평균 인원은 4.8명. 17명이 근무하는 천안YMCA를 제외하면 단체 당 3명 정도에 불과하다.

천안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성별 구성은 전체 37명 중 여성이 28명이다. 전체 활동가의 75.7%를 차지하고 있는 셈.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에 여성들이 유독 많은 이유로 천안시사회복지

협의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의 재정여건도 취약하다. 자원조사결과 천안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의 건강성과 안정성의 척도인 각 단체별 회원회비나 후원금 규모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천안지역 여덟 개 풀뿌리 시민단체 가운데 회원회비나 후원금이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3개 단체에 불과했다.

단체의 재정여건이 미약하다보니 시민단체 운영은 물론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배가 됐다. 특히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박봉에 헌신적으로 일하지만 늘 재충전 여건이 부족해 활력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이중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에서는 그 동안 대안 논의가 꾸준히 전개됐고 마침내 풀뿌리희망재단 창립으로 구체화됐다. 그런 만큼 풀뿌리희망재단은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상담이나 컨설팅 지원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개발과 연계를 향후 사업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의 과제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도 개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풀뿌리 시민단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교육훈련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NGO 네트워크, 정보교류, 활동가 교환연수도 꾀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재단 창립 전부터 일부 실행에 옮겨졌다. 풀뿌리희망재단은 2005년 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풀뿌리운동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 특강에서는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등이 매번 진지하게 토론됐다.

올해 1월에는 풀뿌리활동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공모해 지난 3월 아동복지활동가 4명이 일본아동복지기관 연수를 다녀왔다. 전 충남도교육위원인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는 “풀뿌리희망재단 창립은 그 동안 천안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와 기대가 그만큼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풀뿌리희망재단 창립식에서 “전국에 4백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지만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라며 “천안의 풀뿌리희망재단이 한국사회의 희망재단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7123

이후 6개월은 재단 활동의 가장 중요한 축인 이사회와 사무국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 구상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모금 전략과 방법을 세워나가는 데 할애되었다. 이사회는 매월 회의 시작 전에 지역활동가로부터 ‘천안지역 시민운동의 흐름’, ‘천안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등에 대해 듣고 이해를 넓혀나갔으며,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2007년 설립 첫해에 실시된 첫 번째 교육은 기업재단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현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이 ‘공익재단의

이해와 미션'을 주제로 강의하였는데, 강의말미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준비과정을 지켜 보며 천안에서 풀뿌리희망재단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지역재단은 불가능하다”며 천안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사명의식을 불어넣기도 했다. 두 번째 교육은 국제구호단체에서 모금활동을 기획해왔던 양용희 호서대 교수가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모금전략과 모금프로그램,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3) 인적 자원

초기 재단설립을 주도하고 사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한 것은 박성호, 윤혜란 등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기 천안YMCA 창립부터 함께해온 활동가로서, 꾸준히 지역재단 설립을 모색하고 고민해왔으며, 재단설립 이후에도 교대로 상임이사직을 맡으면서 재단의 여러 모금과 배분활동, 재단과 함께할 인적 자원(이사, 사무국) 발굴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이를 직업군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1〉 풀뿌리희망재단 설립발기인의 직업군

구분	발기인 수(명)	구분	발기인 수(명)
교육	24	주부	7
보건의료	12	자영업	18
기업	20	회사원	20
법조	4	정치인	2
시민사회	23	공무원	4
종교	5	언론	4
합계		143명	

창립 당시 이사회는 기업인·전문가그룹·시민사회계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업인은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충근 조아건설 대표를 비롯하여 6명, 전문가그룹으로 한동우

순천향대 교수(현 강남대 교수), 소삼영 변호사 등 2명, 시민사회계는 박광순 천안시사회 복지협의회 회장 등 4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원칙은 모금활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비영리 활동의 경험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에 근거하였다.

이사로 참여한 기업인 2명은 천안 출신이나 서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윤혜란은 대학동문이기도 한 이들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서울을 몇 차례 오가며 권유하였으며, 이들은 설립 이후 이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출향인사들을 기부활동에 연계 시키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버팀목장학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새내기의 첫 등록금을 매년 지원하는 등 재단을 통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천안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천안YMCA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충근 조아건설 대표는 재단설립 후 8년 동안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이사회에 재단의 미션을 상기시키며 재단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 전문가로서 참여한 한동우 교수는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에서 배분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해온 경험을 살려 재단 창립초기의 배분지원 방향설정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직장을 옮김에 따라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재단 설립 후 1년이 지나면서 사무국체제를 재단 상임이사 중심에서 사무국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30-40대의 사무국장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연이어 두 명의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각각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임함에 따라 재단은 다시 상임이사 중심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2) 미션 및 주요사업

(1) 미션 ‘좋은 일을 더 잘하도록’

재단은 창립 당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재단의 성격을 첫째, 다수 시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지고 지역사회를 활동범위로 하여 설립된 지역사회재단, 둘째, 건강한 지역사회와 나눔의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셋째, 재단 자체의 사업보다는 풀뿌리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원조직으로 규정하였다.

2006년 창립대회 자료집에는 재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풀뿌리단체의 부족한 2%를 채워드립니다 - 운영교육 및 컨설팅, 자원개발 및 연계
- 희망의 씨앗을 인큐베이팅합니다 - 풀뿌리단체의 창립 지원, 신규 공익사업 개발
-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키웁니다 - 풀뿌리활동가 교육훈련 및 재충전 지원
- 기부자의 정성을 큰 희망으로 돌려드립니다 - 각종 기부상담, 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 아시아를 만나는 새로운 창(窓)이 되겠습니다 - 아시아 비영리단체와의 교류

“그동안 고민이었던 풀뿌리활동가들의 교육과 재충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욕구는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풀뿌리단체의 창립, 기존 단체들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풀뿌리활동가와 풀뿌리단체가 목마를 때 찾는 샘물같은 존재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창립대회 이충근 이사장 인사말 중에서)

(2) 가치와 운영원칙

- 재단의 가치
 - 나눔 : 사람과 지역을 변화시켜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나눔의 가치를 지향한다
 - 상상력 : 나눔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소중한 상상력의 가치를 지향한다
 - 변화 : 좋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변화의 가치를 지향한다
 - 희망 : 단 한명의 변화와 참여가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희망의 가치를 지향한다
- 재단의 운영원칙
 - 현장성 : 이론이나 이념보다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 희망과 미래를 만든다
 - 공정성 : 어떠한 이해관계에 치우침없이 오로지 공익과 공동선을 위해 일한다
 - 투명성 : 재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한다
 - 전문성 : 지역의 문제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 변화를 일으킨다

(3) 비전 재정립

재단은 설립 당시 ▷풀뿌리단체의 부족한 2%를 채우는 재단 ▷희망의 씨앗을 인큐베이팅

하는 재단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 재단 ▷기부자의 정성을 큰 희망으로 돌려 드리는 재단 ▷아시아를 만나는 새로운 창(窓)으로서의 재단 등으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재단은 설립 5주년을 맞아 설립 당시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에 이사회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비전을 재점검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재단의 비전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풀뿌리희망재단'으로 재정립한 후, 그 비전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을 많이 하는 재단
-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 재단
- 재정, 배분, 운영 등에 있어서 투명한 재단
- 정의로운 배분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드는 재단
-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단
- 이사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 성별로 구성된 재단
- 이사회가 역동적으로, 사무국이 전문성있게 활동하는 재단
-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재단

(4) 주요사업

①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활동의 주요 인적자원인 공익활동가들의 건강한 성장이 중요하다. 현재의 공익활동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 활동가들을 재생산하고 유입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장하기에는 단체의 여건이 너무 열악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재단은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부터 시작했다.

〈표 Ⅲ-1-2〉 풀뿌리희망재단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사업 참가기관

연도	참가기관	참가자수	연수지역 및 기관
2006	미래를여는아이들	4	일본 아동복지기관
2007	충남장애인부모회	4	미국 장애아동기관
2008	천안녹색소비자연대	3	네팔 공정무역단체
2009	천안여성의전화	4	필리핀 여성인권단체
2010	천안쌍용종합복지관의 1곳	3	호주 사회복지기관
2011	낮은울타리지역아동센터의 1곳	2	호주 아동복지기관
2012	인주지역아동센터의 3곳	4	미국 비영리기관
2013	아산시장애인복지관	3	일본 장애인복지관
2014	천안모이세	4	필리핀 이주민지원센터
2015	환희애육원	4	미국 아동정신보건기관

〈표 Ⅲ-1-3〉 풀뿌리희망재단의 ‘풀뿌리운동 희망 찾기’ 강좌 내용

일시	주제	강사
2005. 11. 29	한국의 미래, 지역혁신과 NGO	이형모 시민의 신문 대표
2006. 3. 25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
2006. 4. 18	리더십과 자기경영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소장
2006. 5. 9	필리핀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코라손 J. 솔리만 前 필리핀 복지부 장관
2006. 6. 23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기업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2007. 9. 8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풀뿌리시민운동	정수복 박사
2007. 11. 16	인권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풀뿌리단체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

● 풀뿌리운동 희망 찾기

2006년 재단설립 전부터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회씩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풀뿌리운동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활동가들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후 2010년에 중견활동가들의 리더십교육을 위한 풀뿌리학교로 발전하였다. 풀뿌리학교는 1기 6명, 2기 8명, 9개월간 주1회씩 총 36회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성찰적 삶과 사회 만들기, 인권의 역사, 시민사회와 풀뿌리정치, 사회적기업과 지역기반운동, 역사란 무엇인가, 영화를 통한 세상읽기, 상상력으로 만드는 창조도시,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운동, 비영리조직 경영전략과 자원개발, 주민조직과 의사소통 등이었다. 이후 천안지역에 NGO센터가 설립됨으로써²³⁾ 풀뿌리학교 등 직접교육 사업은 NGO센터로 이관시키고 재단은 비영리컨퍼런스 및 모금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 비영리 컨퍼런스

2013비영리컨퍼런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활동내용, 사업사례, 프로젝트 및 캠페인 사례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비영리컨퍼런스는 기획위원을 모집하여 모든 강연 준비과정을 함께 만들어갔다. 섹션주제 선정부터 강연자 섭외까지 비영리활동가 14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준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의 비영리분야 활동가 약 150명이 참석했고, 강연은 총 6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후에는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 활동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즐길 수 있도록 유쾌한 장으로 꾸몄다. 또한 지역사회 내 비영리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4년 이내인 청년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사무실 밖 사람들과 친해지는 사이(4.4.7.4)’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6명의 청년활동가들에게 12회기에 걸쳐 시민사회, 역사, 경제, 실무능력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 공익활동가 가족 해외연수 지원 사업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가족의 지지와 격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족여행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10가정씩 지원하였다.

23) 2008년에 설립되었으나, 2012년에 사무국 형태 갖춤

활동가들은 가족과 함께 1박 이상 여행가서 쉬면서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②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사업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활동이나 현재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재단이 평균 2~4년간 물적 자원(재정)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독립적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아기가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인 인큐베이터에서 일정기간 보호된 후 온전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재단은 이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 청소년방과후센터 설립지원

첫 번째 인큐베이팅 사업은 ‘청소년방과후센터 설립지원’ 사업이다. 2006년 천안교육청은 원도심지역 4개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습·정서·문화·건강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1년 사업 후 평가회에서 공통적으로 방과 후 학생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는 고민을 꺼내놓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재단도 함께 참여하였다. 재단은 천안교육청·천안아동청소년네트워크·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7월에 청소년방과후센터인 ‘해누리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2009년까지 2년간 총 7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립지원

두 번째 인큐베이팅 사업은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립지원 사업이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학대·빈곤·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6~7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2009년 당시 천안·아산지역의 요보호아동은 약 300명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중 10%인 28명만이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그룹홈에 사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녀 분리가 필요한데, 여자아이들을 위한 그룹홈이 없어 아동복지를 위한

봉사단체들은 그룹홈 증설을 재단에 요청하였다. 재단은 2009년 9월 ‘꿈찬그룹홈’을 설립하여 아동복지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후 2011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지원 사업

세 번째 인큐베이팅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창단지원 사업이다. 재단은 그동안의 인큐베이팅 사업이 보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둔 점을 감안해 향후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악기교육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나, 천안지역에는 문화소외계층(저소득가정, 아동생활시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재단은 2012년 1월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2015년 현재까지 4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에는 천안시립교향악단 단원을 포함한 지역의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인큐베이팅 사업은 공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의 신규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창립 시 지역사회에 필요하면서도 지역변화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곳을 선정해 3년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한국형 공익재단의 도전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국내1호 지역재단 출발 ‘한국판 엘 시스테마’로 소외 아동들 꿈 지피다

가족의 학대로 공동생활 가정에서 자란 연우(가명·10)는 외톨이었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런 연우가 달라졌다. 고사리손에 바이올린을 쥐게 되면서부터다. 함께 사는 형의 생일날 “축하곡을 연주해주겠다.”고 먼저 나섰다. 음악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도 생겼다. 연우에게 이런 꿈을 지펴준 곳은 지난 1월 출범한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이다. 국내 첫 지역재단인 충남 천안의 풀뿌리희망재단이 ‘한국판 엘 시스테마’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세 번째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빈곤, 폭력,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베네수엘라 빈민 어린이들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끌어들이는 무상 음악 프로그램이다. 전쟁터 같던 빈민촌의 범죄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무기력

했던 아이들은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로스앤젤레스필하모닉 상임지휘자)도 여기서 배출됐다. 이를 본뜬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40명으로 꾸려졌다.

복지·환경등 지역문제 품는 '인큐베이터'

8일 천안시 성정1동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 이사는 “영화 ‘엘 시스템아’를 보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사업지원 배경을 밝혔다.

“엄마, 아빠에게서까지 학대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소외감, 폭력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이 친구들이 화음을 이뤄가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면서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어른이 되어서도 누리길 바랍니다.”

재단의 뜻을 전해들은 천안시립교향악단 연주자 등 지역 음악가 30여명도 흔쾌히 재능기부에 나섰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요즘 아이들은 내년 1월 첫 연주회를 앞두고 맹연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품고 해결하는 인큐베이터가 되겠다’는 풀뿌리희망재단의 설립 목표를 그대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공익 인프라를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키우자.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면 처음엔 우리가 품고 돌보지만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독립시키자는 아이디어였죠.”

각 분야의 전문 비영리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할 지역재단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은 1990년대 초부터 천안 지역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5년이였다. 윤혜란 고문이 천안 YMCA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등에서 키워낸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과로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것. 상금 5만 달러(약 5600만원)가 재단을 세울 종잣돈이 됐다. 여기에 시민 143명이 힘을 보태 만든 3억 4500만원을 토대로 2006년 풀뿌리희망재단이 뿌리를 내렸다...(이하 중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9010018>

③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IMF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빈틈이 많이 존재한다. 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 기업 등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금 명으로 만들어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의 배분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 대학교 새내기 첫 등록금 지원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등 교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교 새내기 첫 등록금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 국가기술 자격증 지원사업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일찍 발 디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증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54명의 청소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취업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사회적 약자 지원기금 마련 캠페인

재단은 캠페인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다. 2010년, 2011년 결식아동제로 캠페인, 희망나무행복숲 캠페인은 중식비 미납 중학생들을 위해 1억 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계층의 집수리 지원, 전·월세·임대료·관리비체납금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6천만 원을 배분하였다.

2014년부터 아침밥을 먹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먹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조식지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아침든든112’ 캠페인을 통해 한 해 동안 조식지원금 2천1백만원을 마련하여 아동 약 50명에게 지원하였다.

④ 아시아의 친구 사업

재단 설립 당시 비전 중 하나는 아시아를 만나는 지역의 창(窓)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의 상금이 재단 설립의 종자돈이 되었기도 하고, 천안지역 차원에서 볼 때 아시아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활동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설립 이후 초기 몇 년간 특별히 진행된 사업은 없었으나, 2009년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무하마드 자킬(이하 자킬, 당시 31세)이 중심이 돼 만든 <아펙스(APEX)>와 협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펙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천안 등지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던 자킬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지역복지운동 등에 큰 감명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후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Empowering the poor!) 이라는 미션을 갖고 바길햇 지역에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자킬은 2008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평일에는 노동하고 주말이면 천안의 이주민지원단체인 <모이세>의 인턴으로 NGO에 대해 배우고,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연활동을 하면서 한국과 방글라데시, 천안지역과 바길햇 지역을 잇는 다리역할을 하였다.

재단은 2010년 아펙스와의 교류협약을 기초로 우물파기 사업, 화장실설치 사업,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 약 6년간 2천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토바라마울 우물 2개, 멀거르마을 우물 1개, 화장실 29개를 설치 완료하였다. 그리고 멀거르여학교와 우토바라마울 여성 650여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였다. 현재 아펙스재단은 우물파기 사업, 화장실설치 사업,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과 마을주민교육, 자립지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풀뿌리희망재단 ‘방글라데시’ 우물·화장실 설치 돕기

충남 천안지역 NGO단체가 최근 방글라데시 NGO단체와 현지 주민들을 위해 우물파기, 화장실 설치 돕기에 나섰다.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최근 방글라데시 NGO단체인 ‘아펙스 파운데이션(APEX Foundation)’과 바길햇 지역의 우물파기와 화장실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1960년대 사용하던 화장실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우물에 비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풀뿌리희망재단은 제이앤씨건설㈜(대표 김정회)과 디자인 사과나무(대표 이명재) 등이 기탁한 기금 1000만원을 지원해 2년간 우토바라마울과 노이하티 마을 등에 우물 4개, 화장실 2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NGO단체를 조직한 자킬씨(32)는 지난 2004년부터 천안시 모 제조 회사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로 알려져 이번 협약에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2004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 일하는 NGO단체 활동에 감명을 받아 2007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대학동창들과 함께 뜻을 모아 비영리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자킬씨는 지난 200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평일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이주민단체인 천안모이세의 자원활동가로서 봉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방글라데시 빈곤여성들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수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풀뿌리희망재단은 앞으로 이 수공예품을 수입해 제3세계 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공정 무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73080>

⑤ 기부문화 확대

● 기부의식 현황 조사

재단은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과제를 고민해왔다. 다수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부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통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이에 지역의 기부의식 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확대에 관한 연구 및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조사사업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소장 도종수 교수)에 의뢰하여 진행되었고,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 중 2009년 한 해 '순수기부자'는 49.1%, '순수기부액 평균'은 27.5만원, '주요 기부처'는 자선단체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의미있었던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향후 1년 이내 기부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가 '기부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유산기부 의향도 42%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나눔사회화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나눔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천안·아산주민들은 ‘기부천사’

작년 두명 중 한명 기부, 평균 금액 27만5,000원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주민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했으며 액수는 1인당 평균 2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10일 재단법인 풀뿌리희망재단에 따르면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천안·아산 지역 20세이상 성인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아산 시민의 기부현황 및 기부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부를 했다는 응답자가 49.1%로 나타났다.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은 1인당 2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기부를 하는 대상은 자선단체가 3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14.3%), 외국 구조단체(11.5%), 종교단체(10.7%), 부랑인이나 노숙인(9%), 이웃(7.4%), 공공기관(3.3%) 등이다.

기부자 가운데 31%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기부방법은 직접전달이 32.4%로 가장 많았고 자동응답(ARS)전화 24.8%, 자동이체 18.3%, 지로납부 8.8%, 온라인기부 4.6% 등이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3.1%에 달했다.

앞으로 1년내 기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63%가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으며 유산을 기부할 의사도 있다는 응답도 42%로 나타나 기부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23.8%,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 활동도 5.1%에 그쳐 기부비율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풀뿌리희망재단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역의 기부현황과 기부의식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96202>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조사

2011년 조사사업 또한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천안·아산지역 101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조사였다. 조사결과 50인 이상 101개 기업 중 조사에 응한 91개 기업 중 59.3%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고 했고, 기부금 액수를 밝힌 36개 기업의 평균 기부금은 1,607만원이었다. 사회공헌활동을 중단한 이유 중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부족이 19.7%로 나타났는데 모금기관들의 적극적인 접촉점 마련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천안·아산기업 절반이상 사회공헌

풀뿌리희망재단, 나사렛대 사회복지연구소 의뢰조사
제조업 기부금 가장 많아... 소외계층 도움 사유 1위

지난 2010년 천안·아산에 본사 혹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91개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 액수를 밝힌 기업 36곳의 평균은 1607만 원으로 조사됐다.

천안지역 시민단체인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5일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소장 김정진 교수)에 의뢰한 '천안·아산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조사'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1년 10월~2012년 2월까지 천안·아산 기업 101개가 참여해 이뤄졌다.

종사자 규모 별 참여 기업 수는 50인 이상 30개, 51~100인 45개, 101~300인 16개, 301~500인 6개, 501~1000인 2개 1001인 이상 2개 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제조업이 7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1%, 유통 및 운송업 5%, 금융보험업 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한 해동안 91개 기업 중 59.3%가 사회공헌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이유 1순위는 소외계층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2순위 사회적 책임 때문에, 3순위 CEO의 의지 등으로 조사돼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을 잘 나타냈다.

기업의 기부활동 추진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CEO의 의지(72.2%)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사원들의 합의(13.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기부금 총액을 밝힌 36개 기업 평균기부금은 1607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재원을 기업 이익금에서 마련 38.5%, CEO 기부 35.6%, 사원 기부 17.3% 등의 순이었다.

사회공헌활동을 중단 기업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52.6%, 사회공헌활동 불필요 2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활동의 장애요인 1순위는 예산부족 36.6%, 2순위 사회공헌 정보부족 19.7%, 3순위 정부 지원 부족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82.8%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12.9%가 확대의사를 4.3%가 축소의사를 밝혔다.

지역에서 기업운영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7.2%가 기업운영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풀뿌리희망재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부활동 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포상과 기부할 단체를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타지역 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021>

◎ 2015 크라우드펀딩모금 공모대회

지역 내 모금활동은 주로 인맥 위주의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조직만이 모금 총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인력 교체로 인한 기부중단과 기부자 이동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규모 기관·단체도 대중에게 활동에 대한 가치를 전하고, 공감을 불러일으켜 다수가 참여하는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2015년 재단은 인맥 위주의 지역모금 활동이 더 확대되어 많은 대중들이 공익활동에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2015 크라우드펀딩모금 공모대회를 실시하였다. 플랫폼 사업체인 와디즈(WADIZ)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많은 조언과 기술적인 면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단계로 천안지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후 최종 참가팀의 본격적인 프로젝트 기획이 시작되었다. 사전교육 참가자 수와는 달리 공모대회에는 4팀이 참가하여 그 중 3팀이 한 달 동안 목표금액인 2백만 원 펀딩에 성공하였고, 재단은 성공한 프로젝트(아이들이 만든 인형극단 초청공연, 천안윈도심 골목스케치 전시회, 빈곤 이해 첫걸음 Poverty Simulation 한국어판 제작)에 각각 2백만 원씩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팀당 기부참여자는 평균 81명으로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크라우드펀딩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이나 앞으로 새로운 풀뿌리모금의 방식으로 개발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참가팀의 평가가 있었다.

[풀뿌리희망재단,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한 사람은 약할지라도 손 맞잡으면 거대한 힘
함께함이 만들어내는 저력 ‘크라우드펀딩’ ... 모금과 함께 공감 확산이 큰 의미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숟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이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십시일반의 현대적 해석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수 개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는 나눔의 모습이기도 하다.

2012년 제작한 영화 '26년'을 크라우드펀딩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26년'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만 5000명으로부터 7억원을 후원받아 영화를 개봉할 수 있었다.

이때, 단지 후원이나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 후원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그에 대해 대중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더 큰 의미다. 크라우드펀딩은 나눔과 함께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공감을 얻어가며,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은 상황. 최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통해 지역에서 인식을 넓히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을 연 곳은 풀뿌리희망재단. 6월 한 달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한다. 지역민들이 공익활동에 대해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공모전을 연다. 풀뿌리희망재단 임재은 간사는 “천안 지역의 NGO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비영리단체들 모금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대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비영리단체에게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대중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표 모금액 달성하면 풀뿌리희망재단 같은 금액 펀딩

6월 한 달 와디즈(www.wadiz.kr/campaign/?ptncode=206)에서 진행한다. 대회에 참여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는 ‘아동건강네트워크’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지역 자활센터’ 등 네 곳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목표 모금액은 200만원으로, 참여 단체가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와 같은 금액 200만원을 풀뿌리희망재단에서 펀딩한다.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천안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천안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인형극을 통한 사랑나눔 1+1’을 기획했다. 모금액으로 기차길옆작은학교 인형극단(칙칙폭폭인형극단)을 초청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인형극을 열어 지역의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는 ‘천안의 골목풍경을 담은 스케치, 숨바꼭질 展’을 기획했다. 충남예고와 상명대학교 학생, 그림 그리기로 노후를 준비하는 아마추어, 전업작가로 구성된 숨바꼭질 등이 모여 점점 사라져 어찌먼 기억에서 잊힐지 모를 천안의 골목 풍경을 그리고 있다. 월 1회 활동을 통해 모인 천안 골목길 풍경 그림들은 오는 11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은 ‘빈곤을 이해하는 첫걸음, Poverty Simulation 한국어판 제작’을 기획했다. 빈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미국의 Missouri Association for Community Action이 만든

가상빈곤체험 키트 'Poverty Simulation Kit'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어판으로 제작, 워크숍 방식의 가상빈곤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펀딩금액은 Poverty Simulation 한국어판 제작을 위한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천안지역자활센터는 '버려지는 폐자전거에 폐(肺)를 달아 어려운 아이들이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를 기획했다. 모금된 금액으로 수리부품을 구입, 아파트 등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 일부는 아파트 등에서 공용자전거로 활용하고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천안의 아파트 일곱 곳에서 자전거 수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자전거 수리업체 'BTS'에서 수리와 교육 재능기부에, 천안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전거 해체와 수리에 참여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5112

(5) 재정추이

지역재단은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자원을 모아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배분 지원하는 일을 하기에 다른 비영리조직보다 재정규모의 성장과 재정안정성이 중요하다. 재단의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를 보면, 2010~2011년에 이루어진 언론사 캠페인모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기부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단 이사 1명을 비롯해 고액기부를 하던 2개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소유주가 변경돼 기부를 중단했거나, 재단이 새로운 모금액량을 키우지 못해 기부자 개발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었다.

또한 2010~2011년에는 기금기부의 비율이 높았고, 2012년 기부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비정기기부가 50%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2014년에는 정기기부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액 정기 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액기부자의 기부중단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기금기부 중 언론사 모금캠페인 기금액은 2010년 약 1억 원, 2011년 약 1억6천만 원이었으며, 이 기금은 2010~2012년에 걸쳐 저소득계층을 위한 결식 지원, 주거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배분 영역에서도 2010-2011년까지 결식주가의료비 지원 비중이 높았던 데 반해, 2012년부터는 공익인프라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미래세대 희망투자 영역의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Ⅲ-1-4〉 풀뿌리희망재단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

(단위:천원)

구분	정기기부	비정기기부	행사기부	기금기부	합 계
2010	37,225(13%)	57,377(20%)	33,547(11%)	165,831(56%)	293,980(100%)
2011	41,410(11%)	60,765(16%)	16,060(4%)	265,782(69%)	384,017(100%)
2012	46,725(25%)	94,135(50%)	15,378(8%)	33,004(17%)	189,242(100%)
2013	67,280(32%)	52,885(25%)	38,946(19%)	48,310(23%)	207,421(100%)
2014	64,220(37%)	36,483(21%)	26,725(15%)	46,615(27%)	174,043(100%)

〈표 Ⅲ-1-5〉 풀뿌리희망재단 최근 5년간 배분지원비 추이

(단위:천원)

구분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미래세대 희망투자	지구촌나눔	결식·주거 의료비지원	합계
2010	30,085(18%)	12,054(7%)	18,193(11%)	3,245(2%)	105,313(62%)	168,890(100%)
2011	22,559(11%)	22,961(11%)	42,512(21%)	8,045(4%)	104,787(52%)	200,864(100%)
2012	97,868(40%)	25,054(10%)	38,397(16%)	7,103(3%)	74,771(31%)	243,193(100%)
2013	38,438(35%)	19,402(18%)	48,361(44%)	3,402(3%)	-	109,603(100%)
2014	32,215(43%)	12,040(16%)	28,304(37%)	3,032(4%)	-	75,591(100%)

3) 모금전략 및 모금사례

(1) 모금전략

① 설립 초기 중규모 기부자를 전략적 모금대상으로

재단은 설립초기(2007~2010년)에 소액정기기부자(월 1만원) 모집보다 ‘희망나눔일터(월 10만원 기부하는 자영업체 및 회사)’ 확보 및 행사 개최를 통한 모금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는 소액정기기부자가 기존의 비영리단체 후원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자를 고액·중액·소액 등으로 분류했을 때 1년에 100만원~

500만원정도의 중규모 기부자를 재단의 전략적 모금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중규모 기부자는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기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개인기부자가 적다는 분석에 따라 법인(기업) 기부를 전략적 모금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법인 기부는 법인 CEO의 의지가 결정요인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CEO에게 재단을 알리는 일을 주요활동으로 삼았다.²⁴⁾ 기부골프대회, 나눔만찬 등 행사의 주요모집대상은 중소기업 CEO이었다. 기부골프대회에 참가한 후 추가기부(정기기부 또는 비정기 일시기부)를 요청하여 기부가 이어진 사람은 총 498명 중 114명으로 22.9%에 달한다.

② 중규모기부자 유지 외 소액정기기부 확대

설립 후 5년이 되는 2011년에는 그동안의 모금전략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중소기업CEO를 중점적인 모금대상자로 삼는 모금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소액정기기부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첫째, 그간의 모금활동 경험상 소액정기기부자가 지역의 비영리단체 기부자들과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둘째, 기부문화 저변을 넓히는 방법으로는 소액정기기부가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사회와 사무국이 매년 50명 확대목표치를 정하고 소액정기기부자 확대에 노력한 결과, 2011년에 125명이던 정기기부자가 2014년에는 370명으로 늘어났다. 소액정기기부자의 확대를 통해 재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재단을 홍보하며 호감도를 증가시켰다.

③ 기부 증액 캠페인 및 기부 릴레이

기존 정기기부자들에게는 재단과의 인연 및 기부실천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부증액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기부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부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부릴레이는 기부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무국은 매월 성과를 분석하고, 실패 사례-거절당할까 두려워 만나서도 요청하지 못한 경우, 재단을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하지

24) 풀뿌리희망재단이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1년 천안·아산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인식조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결정적 요소로 'CEO의 의지'라는 응답 비율이 79.4%로 가장 높았다.

못한 경우, 기부 요청 시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어서 거절당한 경우 등등을 공유하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상하며 보다 세심한 준비를 해나갔다.

④ 지정기부금 처리 문제

한편, 재단은 지정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비록 취약계층일지라도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 특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 등은 정의로운 배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성과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지정 기부금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문서상 규정으로 있지 않기에 향후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모금규정 및 윤리규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2) 모금사례

① 모금특별행사

재단은 모금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참가자들에게 재단을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제공할 목적으로 모금특별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5월에는 기부골프대회를, 매년 11월에는 송년나눔만찬을 개최하는 등 주요한 두 가지 모금특별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희망나눔굿샷(기부골프대회)

재단은 2008년 창립 2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부문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시민과 재단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특히 기부골프대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타당성, 시행 계획을 모색한 결과, 천안지역 인근에 골프장이 다수 존재하며 이사회 중심으로 참여자 조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기부골프대회는 이사 중의 한 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사무국에서 세부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모금사업이었다. 기부골프대회는 재단과 기업 및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재단을 홍보하며

기부자를 발굴하고, 이사회가 주도하는 모금행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사회는 기부골프대회를 준비하는 이사회를 골프장에서 진행하며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및 인적 자원 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사무국은 지역 현안인 빈곤청소년의 방과후 보호 문제를 기부골프대회와 연결하기 위한 홍보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대회장(18홀 이상 컨트리클럽) 섭외와 대회 참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자료화하였다.

그러나 제일 큰 장벽은 대회장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천안 소재 주요 4개 골프장을 섭외했으나, 골프장의 수익문제, 골프장 이용회원들의 시간조정문제, 재단의 행사개최역량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해 천안 외 인근지역에서 골프장을 섭외하여 제1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다행히 제2회 대회부터는 천안지역 골프장을 이용, 매년 5월에 대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제10회 대회를 치렀다. 대회당 평균 13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번 이상 참가한 인원이 498명으로서 중소기업CEO 및 소상공인과의 기부 접촉점을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다.

풀뿌리희망재단 기부 골프대회 '성료'

36개팀 144명 참가..티브로드 중부방송, 2천만원 기부금

(재)풀뿌리희망재단과 충남벤처협회가 공동주최한 '제6회 기부골프대회'가 지난 30일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36팀 144명이 참가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된 클로버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 티브로드 중부방송(대표 전영일)은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재단 측에 2천만 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30998>

● 나눔만찬

재단은 시민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찬과 공연이 어우러진 송년나눔만찬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연중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즐거움을 높이고 재단의 모금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갔다. 나눔만찬에는 매년 약 120~13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사들은 테이블(8명) 1개씩 책임지고 지인들을 초대한다. 기부골프대회 참가자가 주로 중소기업CEO 및 소상공인인데 반하여, 나눔만찬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하며 가족동반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8회 동안 진행해오면서 1회 이상 참가한 기부자는 약 700명이며, 이 중 가족과 동행한 참석자는 약 100팀이다.

(재)풀뿌리희망재단, 송년나눔만찬회 ‘나눔, 마법을 걸다’ 성료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의 악기구입 및 교육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28일 신세계충청점 문화홀에서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송년나눔만찬 ‘나눔, 마법을 걸다’를 개최했다.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천안지역 아동복지시설,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43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매주 토요일 악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며 긍정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번 만찬행사는 나눔으로 마법을 걸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첫 무대로 조성진 마임이스트의 ‘원앙부인의 꽃밭’이라는 주제로 웅장하고 고혹적인 마임공연이 이루어졌다. 마림바연주에서는 다양한 타악기를 선보여 보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재)풀뿌리희망재단 이충근 이사장은 “나눔으로 함께 자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http://www.cailbo.com/sub_read.html?uid=34523

② 거리공연하는 모금자원활동가

지역의 그룹홈 아동을 위해 거리에서 모금활동하는 직장인 거리공연모임이 있다. 이들은 어릴 적 뮤지션에 대한 꿈을 꾸며 보컬 및 밴드활동 등 음악활동을 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아쉬움과 못다 이룬 꿈을 마음속으로만 간직 한 채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위해 음악활동을 업으로 갖진 못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직장인들로 구성된 한 통기타 모임을 알게 되고, 그 모임이 공연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2009년부터 두드림스라는 팀을 이뤄 매주 토요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래, 악기연주 등 모금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두드림스가 결성될 때는 팀원 4명에서 현재 3명으로 팀원이 변경되었다. 음악적 느낌도 살리며 ‘꿈을 이루다’라는 영문 뜻도 담긴 두드림스를 고민 끝에 팀 명칭으로 정했다. 이 팀은 공연장소인 휴게소를 섭외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았다. 휴게소에서 음반 및 간식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음악소리가 불편하다는 점, 휴게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어떤 불편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지지 못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두드림스의 끊임없는 요청과 나눔에 대한 열정으로 그 해 첫 휴게소 모금공연이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에 자리한 정안휴게소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공연장소로 천안삼거리휴게소, 안성맞춤휴게소 등 여러 번 변경되긴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모금공연을 쉴 수 없는 이유는 노래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을 위한 나눔이 필요하기 때문에서다. 한 휴게소에서는 두드림스의 공연의미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며 마음을 모아주기도 하였다. 식사와 간식도 챙겨주고, 필요한 물품 등 전기사용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휴게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전해질 때 큰 힘을 얻고 함께하는 팀원처럼 생각된다고 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목소리도 늙기 마련이에요. 언제까지 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데요. 여름엔 비만 안 오면 감사하죠. 겨울엔 영하로 온도만 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다들 어려운 요즘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지내야하는 우리 이웃이 많기에 오늘도 공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좋은 모습을 더욱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드림스팀 고정애 단원)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 수익금 나눔 실천

천안 ‘두드림스’ 통기타 동호회 매주 고속도로 휴게소 자선공연 2년간 여행경비 1840만원 지원

재능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휴게소 밴드’가 있다. 천안의 통기타 동호회 회원 4명이 의기투합해 2009년 여름 결성한 직장인 밴드, ‘두드림스’.

음악적 느낌도 살리며 ‘꿈을 이루다’라는 영문 뜻을 담은 이름의 두드림스다. 두드림스의 자선 공연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연을 연다. 그들이 펼쳤던 공연 휴게소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휴게소가 출발점이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를 지나 2012년부터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안성맞춤휴게소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두드림스’의 단원은 김남 단장을 비롯해 총무를 맡고 있는 홍일점 고정애 씨와 김현우, 곽노산, 전영덕, 허세출 등 6명이다. 30대인 김현우씨를 제외하고는 50대 중년 들이다. 학창시절 그룹사운드에서 활동하거나 실제로 음반을 낸 이도 있지만 생업은 모두 따로다. 대부분 천안과 아산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음악과 봉사가 좋아 외지에서 근무하다가 공연날이면 먼데서 합류하는 멤버도 있다. 휴게소 공연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계속된다. 공연시간은 7시간이지만 무대 설치 등 사전 준비와 철수까지 감안하면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주말 낮시간이 통째로 공연에 할애되기 다반사다.

야외 공연인 탓에 날씨도 복병이다. 여름이면 더위에, 겨울은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고생은 겨울이 더 심하다.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입과 손이 얼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 못할 때도 많다. 공연 천막과 모금함이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날라가고 부서져 공연이 취소된 적도 있다. 휴게소 진·출입 차량들의 매연으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목이 쉬고 아플 때도 있을 법하지만 단원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를 몬다.

휴게소에 들렀다가 두드림스의 공연을 보고 한 푼, 두 푼 모금함에 넣어진 공연 모금액은 2010년에는 1486만 원, 2011년 1287만 원을 기록했다. 동전에서부터 천원, 만원 짜리로 모아진 공연료는 고스란히 기부금으로 관리된다. 이들에게 기부금은 그 어떤 돈 보다 소중하다. 공연이 끝나면 휴게소 직원과 함께 금액을 확인한 뒤 두드림스의 인터넷 카페에 공지를 하고 곧장 천안의 풀뿌리희망재단으로 전액이 보내진다. 2012년부터는 천안의 8개 그룹홈 여행경비로 기부하고 있다. 풀뿌리희망재단을 통해 2년간 1840만 원이 지원됐다. 두드림스의 기부 덕분에 생활교사까지 포함해 8개 그룹홈의 아동 60여 명은 소중한 여행기회를 갖고 있다.

김남 두드림스 단장은 “아이들 얼굴이 떠 올라 피곤해도 공연을 거를 수 없다”며 “그룹홈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환하게 웃었다.

임재은 풀뿌리희망재단 간사는 “두드림스의 재능기부가 그룹 홈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한 번의 기부도 좋지만 재능을 활용한 지속적인 기부가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살찌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www.daejoni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02903

③ 학교축제 기부 - 즐겁게 참여하는 나눔

나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에서 증명되듯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나눔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며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재단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추진하지 못했던 청소년 나눔교육 사업을 2012년부터 서여자중학교, 2013년부터 북일고등학교와 진행하게 되었다.

서여자중학교는 저소득가정 학생이 많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교육복지사업이 실시되는 학교이다. 처음에는 교육복지사의 제안으로 교육복지사업 대상학생들의 저금통 기부 활동을 본 재단과 연계하려고 논의가 시작됐으나, 본 재단의 새로운 제안인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기부 및 나눔교육 사업을 학교에서 받아들여 2012년 6월부터 시작해 201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여자청소년들에게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는 '방글라데시에 웃음을 전하는 소녀들'(약칭 방글웃는걸) 이름의 나눔프로젝트는 40여명의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봉사동아리와 함께 사업추진회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점심시간 교내방송을 활용해 나눔과 기부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나눔교육 및 면생리대(대안생리대) 제작활동을 하였고, 학교축제때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북일고등학교는 2013년에 환경동아리 R.E.D가 학교축제에서 동아리회원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판매해 본 재단이 전개하는 방글라데시 우물파기·화장실 설치에 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눔캠페인은 그 다음해에는 학생회와 다른 동아리들도 참여하여 학교 전체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

④ 프리마켓 열고 판매금 기부

향기로운 꽃 위로 예쁜 꿀벌이 모여들듯이 아름다운 사람 주위에는 늘 기쁨가득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의미있는 일을 위해 2박3일간 프리마켓을 진행하여 재단에 나눔을 실천해 준 3명의 기부자가 있다. 이들은 서로 성당에서 인연을 맺고,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공통점으로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꽃집, 베이킹스튜디오, 소품가게를 운영하는 3명은 나눔의 가치에 서로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꽃집 앞에서 지인분들의 소중한 아기자기한 물품까지 기부받고, 각 가게 상호 한 글자씩을 따서 ‘메.아.리 프리마켓’을 열었다. 판매수익금 105만원은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입 및 연주회 단복 대여비로 사용되었다.

“각별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의미있는 프리마켓을 열어보려고 이야기가 오고갔을 때만해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꽃과 쿠키,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준비하느라 바쁜 날들이 지났어요. 이번 마켓은 저희 셋 말고도 지인분들의 다양한 물품 기부가 없었다면 이렇게 풍성한 마켓이 되진 못했을거예요.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봄날의 보리 임미희 대표)

프리마켓 수익금 풀뿌리희망재단 기탁

[천안]30대 초·중반의 여성 3인이 프리마켓으로 풀뿌리희망재단에 사랑을 전달했다.

10일 풀뿌리희망재단에 따르면 김정주, 정소이, 임미희씨 등 세 명은 최근 천안시 성정동의 재단 사무실을 찾아 105만 6700원을 기탁했다.

풀뿌리희망재단에 전달된 기금은 김정주씨를 비롯한 세 명이 지난 달 개최한 프리마켓을 통해 마련됐다. 플로리스트로 활동중인 정소이씨의 꽃 제품들과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정주씨의 제품, 임미희씨의 수집품과 지인들이 기증한 물건들로 꾸며진 프리마켓 장터는 호응 속에 매출액이 100만 원을 넘어 전액 풀뿌리희망재단에 기부됐다.

풀뿌리희망재단은 세 명의 기부금을 저소득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클로버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악기 및 단복 구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43920

⑤ 희망나눔일터

희망나눔일터는 재단 설립초기부터 시작된 주력 모금프로그램으로서, 월 10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자영업체 및 중소기업체를 모집하는 활동이다. 모집활동은 주로 이사, 직원, 기부자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그리고 재단의 각종 모금행사 참가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진다. 재단은 현판을 제작하여 희망나눔일터에 부착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사회공헌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고객에게는 나눔 이미지와 접촉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은 매년 희망나눔일터 3~4개소를 목표로 모집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 31개소 중 7개소가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중단하고, 현재 24개소가 유지되고 있다.

“지인을 통해 희망나눔일터 기부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손님 한 분이 오실 때마다 100원씩 모아 기부하기로 했어요. 직원들도 기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요. 손님들도 식사하고 뿌듯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편피시레스토랑 김성수 대표)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따뜻한 연세정형외과의원

연세정형외과의원(원장 박재현)은 4월 2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을 통해 ‘희망나눔일터’ 나눔을 시작했다.

희망나눔일터는 풀뿌리희망재단의 기부 방법 중 하나로, 수입의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이다. 천안지역에 총 1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에는 ‘나눔일터’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연세정형외과의원은 1년 동안 총108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문화소외계층 아동들로 구성된 클로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악기구입 및 교육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재현 원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에 전해져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4260>

⑥ 재능을 나눠주는 교육기관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본인의 특기를 살려 실천하는 재능기부도 있다.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KEEC) 윤운성 소장(선문대학교 교수)은 천안·아산 지역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및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 한국형

에너지그림 1단계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를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도 나눔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재능기부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혜자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닿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기부를 통해 매월 2명의 활동가들은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수료하게 되며, 상담 및 인간관계에 필수적인 성격유형훈련프로그램(한국형에너지그림 성격유형검사(KEPTI))을 경험하여 에너지그림의 지혜를 통합함은 물론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는다. 이 교육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의 활동가가 교육에 참여했다.

풀뿌리희망재단,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와 MOU체결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지난달 30일 한국 에너지그림 교육연구소(소장 윤운성 선문대학교 교수)와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한국형 에너지그림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천안·아산지역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들은 ‘한국형 에너지그림 성격유형검사(KEPTI)’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한국 에너지그림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금)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문의는 풀뿌리희망재단(041-576-6491, www.hopefund.or.kr)으로 하면 된다. 한국 에너지그림 교육연구소 윤운성 소장은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이 한국형 에너지그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꿈꾸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49567>

또 나눔참여의 문을 먼저 두드린 곳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상담, 기법코칭 등을 교육하는 멘토학습코칭 연구소 심상용 소장은 지역에서 연구소를 개소한 후 사회공헌활동 주제를 고민하던 중 재단에 직접 사업을 제안해 왔다. 그는 교직생활을 접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관심과 오랜 연구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능력 성장과 지속성에 대해 도움을 전하고 싶어했다. 아동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있고, 다수 아동에게 1:1 상담을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직접 대면하여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 내 아동복지활동가들에게 아동·청소년 학습에 대한 이해와 코칭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제안했다. 이 후 분기별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8주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을 고안해냈다. 그 동안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총 56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활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 꿈과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자원봉사,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에도 세금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재능기부자들이 공익활동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멘토학습코칭연구소와 교육기부 협약

▲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18일 멘토학습코칭연구소(소장 심상용)와 천안지역 아동복지활동가들을 위한 학습코칭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풀뿌리희망재단(이사장 이충근)은 18일 멘토학습코칭연구소(소장 심상용)와 천안지역 아동복지활동가들을 위한 학습코칭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아동복지활동가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코칭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학습코칭 교육과정은 매주 1회씩 3개월 과정으로 8명씩 소집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심상용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워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08>

⑦ 1+1 희망기부보험

재단은 단순히 주는 것으로 그치는 기부가 되지 않고,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이로우를 함께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던 중, 보험사의 기부보험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부보험은 고객의 사망보험금이나 납입하는 월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이 지정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보험상품이다. 재단은 2008년 7월부터 A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10년 만기 희망기부보험을 통해 기업은 사회공헌을 도모하고 기부자는 보장을 받으며 재단은 기부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시행된 지 1년만에 A보험 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통합된 후, 희망기부보험상품이 중단됨으로써 가입한 30여명 중 10여명은 중도해지하지하고, 현재는 20여명만 유지되고 있다. 기부보험은 2000년대 중반 부터 여러 보험회사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상품으로 내놓았으나, 2010년을 전후해 기부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자 상품 자체를 조기에 중단하거나, 기부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줄여 최근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보험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⑧ 나눔의 접점을 마련하는 거리모금

재단은 온라인과 언론홍보만으로는 시민들이 나눔 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로 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나눔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거리캠페인 및 거리모금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결식 아동제로 캠페인, 2011년 희망나무행복숲 캠페인은 시민들과 함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플래시몹, 종이저금통 만들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나눔 주제가 정해져 있는 캠페인이 아닌 재단의 미션과 역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월 1회 ‘캠페인데이’를 정하여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다. 거리모금 때에는 플루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길 가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첼로, 바이올린 등 악기를 기부받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에 참여해주는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기부 현장을 만나기도 하는 등 거리캠페인 및 거리모금 활동은 시민들에게 나눔활동에 대한 공감과 참여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⑨ 행복한 달리기

모금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모금방안을 제안하는 재단의 A이사는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기부천사 별명을 지닌 유명 연예인의 마라톤 기부를 언론을 통해 접하며 자신도 따라하게 되었다는 그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지인들에게 참가동기를 전하고 모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소의 청소년 약기 구입을 위해’ ‘아침결식 아동의 한끼나눔을 위해’ 등 매년 모금주제를 정하고, 그 뜻과 마음을 모아 운동과 나눔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기부를 실천하였다.

⑩ 새생명축하 나눔

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했던 A산부인과병원은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A 병원은 아기가 탄생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기쁨을 산모에게도 권유하며 나눔을 전파하고 있다. 이 기금은 『생명의 탄생 - 산부인과병원 - 공익인프라 구축 - 희망 만들기』라는 개념에서 착안하여, 해누리청소년센터 설립, 꿈찬아동그룹홈 설립 및 클로버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등 재단의 인큐베이팅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뿌리내리는 천안 기부문화

보험 출시·신생아 출생 때마다 적립 등

이충근 풀뿌리희망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은희 연세앙주로 산부인과 원장이 ‘새 생명 축하기금’ 협약을 맺었다. 기부보험이 출시되고,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기부하는 병원이 생겨나는 등 천안에 기부문화가 서서히 불붙고 있다. 한 음식점은 매월 수십만원씩을 지역사회에 내놓기도 한다.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역사회재단인 희망재단이 새로운 나눔의 길을 선보였다. 희망재단이 최근 ‘함께 만드는 기빙 천안 2007’ 행사를 통해 선보인 기부프로그램은 ‘1=1 희망기부보험’과 ‘희망 나눔 가게’, ‘새 생명 축하기금’, ‘터닝 포인트 희망리더 양성기금’, ‘그룹 홈 추진 인큐베이팅 기금’ 등 모두 다섯 종류다.

기부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재해에 대한 보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게 된다. 10년 납, 10년 만기에 최소 월 보험료 2만원을 내면 가입 후 2년차부터 매년 15만원~16만원이 총 8회에 걸쳐

희망재단에 기부된다. 보험만기 시에도 많게는 80여만원이 희망재단에 기부된다. 천안 연세양자로 산부인과는 신생아가 태어나는 날을 기부의 날로 정했다. 희망재단과 연세양자로산부인과는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때 마다 한명 당 5000원씩을 기부한다. 신생아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위해 5000원의 기금적립을 권한다. 이 병원에서는 한 달 평균 약 100여명의 신생아가 탄생한다.

천안 쌍용동의 한정식집 ‘마실(대표 박노준)은 수익금중 매달 30만원씩을 희망재단에 기부기로 했다. 풀뿌리희망재단은 이 음식점을 닦아가는 가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실’을 ‘희망나눔 가게’ 1호점으로 선정했다. 이 음식점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하루를 ‘해피데이’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NGO와 함께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그날 음식을 팔아 올린 수익금중 정반을 함께한 NGO에 기부한다.

‘터닝포인트 희망리더 양성기금’과 ‘그룹홈 추진 인큐베이팅 기금’도 나왔다.

‘터닝포인트 희망리더 양성기금’은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 리더들을 양성하고 격려 하는데 쓰여지는 기금으로 미국에서 사회공헌 기금을 운영 중인 심진 대표가 LA 한인모임에서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윤혜란 희망재단 상임이사를 만나 ‘리더양성기금’을 제안하고 1000만원을 종자돈으로 내놓으면서 생겨났다.

‘풀뿌리희망재단은 2005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떠오르는 지도자상)을 받은 윤혜란씨(40·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가 상금으로 받은 5만 달러(5000만원)와 각계에서 낸 기부금 3억 5000만원을 종자돈 삼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사회 재단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720750

⑩ 결혼기념 나눔

재단은 2010년 들어 결혼, 자녀 첫돌, 생일, 승진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기부’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평생에 한번 뿐인 결혼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까 고민하다 재단에 기부 나눔을 결정하였다. 신랑은 기부를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했지만, A씨의 권유와 설득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한 기부를 한 후, A씨 부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 특별한 날이 아닐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행복이 두 배가 된 결혼식이었다”고 기뻐하였다. 재단은 액자 한쪽에 행복한 부부의 결혼사진을, 다른 한쪽에 희망기부증서를 담아 평생 기억하게 하였다.

(3) 기부자 예우 및 소통

재단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소통을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넘어 또 하나의 모금활동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였다.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활동 이상으로 기존 기부자가 기부를 지속하게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① 기부생일 기념하기

먼저 정기기부자들에게는 기부약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화, 약정서원본, 연간보고서 등 재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첫 기부가 이루어지면 감사 편지와 함께 감사선물을 전한다. 매년 기부약정일이 다가오면 기부생일(정기기부자의 첫 기부 약정일을 기념하는 날)카드를 발송한다. 보통 많은 단체들이 '기부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카드를 발송하는 곳이 많지만, 재단은 기부자가 기부를 시작한 날, 즉 '기부생일'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② 기념액자 발송 및 현판제작

기금기부와 희망나눔가게(일터), 특별한 기부(생일기념, 자녀돌기념, 결혼기념 등)를 통해 나눔을 전해준 기부자에게는 기부자의 사진을 받아 기부를 기념할 수 있는 액자를 제작하여 발송한다. 기금기부와 1%희망나눔가게(일터)일 경우 현판을 제작하여 사업장 등에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X배너를 설치하여 사업장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행사 수익금 안내 및 사진 발송 등

기부행사에 참가한 기부자들에게는 행사 후 일괄적으로 행사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감사마음을 담은 편지, 그리고 행사 당일에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발송한다. 기부자들이 다음 기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구도 꼭 잊지 않고 전한다.

④ 기부 영수증 등 발송 및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연초 재단은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과 감사편지, 기부선물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매년 재단에서 발행하는 연간보고서는 정기, 비정기, 잠재기부자 등에게 4~5월에 일괄적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재단의 소소한 활동은 SNS를 통해 쌍방향적 소통을 하며, 격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소식은 물론 매월 수입, 지출 내역과 기부자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⑤ 현장방문 등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

기부자 예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판단하고, 기부자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들이 기부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동기부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매해 기부자 만남의 날에 재단이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만든 해누리청소년센터, 꿈찬아동그룹홈 등을 기부자들이 방문해 현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2010년 온라인모금활동을 펼치던 중 쪽지형식의 감사편지를 기부자에게 발송했던 적이 있었다. 어느날 재단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나이의 자매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이들 자매는 몇 천원의 작은 기부금을 풀뿌리희망재단에 기부했는데, 이런 감사편지를 처음 받아보았고, 이에 마음이 움직여 정기기부 약정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약정서와 함께 자매가 보내온 2장의 편지는 단순한 감사쪽지가 미래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4) 중단 및 실패 사례

계획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일은 명예홍보대사 위촉 작업이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재단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천안출신의 마라토너와 지상과 방송의 아나운서 등 두 사람을 명예홍보대사로 추천하였다. 명예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마라토너의 이름을 딴 마라톤대회 개최를 함께 계획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아나운서 명예홍보대사 위촉 역시 방송사 사정을 이유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재단은 이후에도 홍보대사 위촉 작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설립초기 추진하다가 도중에 중단된 사례는 ‘희망의 친구들’ 사업으로서, 재단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주부·기업인 등 31명을 시민모금단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재단을 홍보하고 기부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이 지나 활동이 중단되었다. 모금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로서 자발성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사무국이 자원봉사활동가 개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조직을 잘 관리하여야 했다. 설립초기의 사무국이 그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처음에는 적은 수의 소그룹으로 시작하여 점차 인원수를 확대해나갔어야 했었다(좀 더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파트너십

시민사회는 자발성, 다양성, 연대성 등의 특성을 지닌 사회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체인 각종 비영리조직들도 독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씨줄과 날줄로 연계되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시민사회가 계속적으로 다원화·복잡화 되어가고, 시민사회·기업·정부 사이에도 상호협력 및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생겨났다.

재단은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구성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일해오고 있다. 특히 참여주체들 간에 수평적 관계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비영리조직체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였다. 언론과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케이블방송과 함께 나눔음악회를 공동개최하거나 지방일간지와 함께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 지역언론과 함께 펼친 희망나무행복숲 모금캠페인 : 결식·주거·의료비 지원

재단은 2010년 ‘결식아동제로’ 캠페인, 2011년 ‘희망나눔행복숲’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방일간지인 대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서의 모금활동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재단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되었을 때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모금총량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였던 대전일보의 지역취재본부장이 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규모의 캠페인을 2년간 지속할 수 있었다. 언론은 신문지면을 할애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섰으며, 지역 내 기업 및 교육계·금융계·의료계 등에 기부를 제안했다. 또한 언론사는 음악회,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문화와 나눔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모금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2010년 약 1억2백만 원, 2011년에는 약 1억6천만 원이 모금되었다. 모금액은 2010년 천안교육지원청에 전달하여 급식비 미납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1년에는 긴급의료비·전기료·난방비 등 저소득층의 최소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비로 지원되었다.

지역사회에 희망 씨앗 심는다

대전일보·천안예총·바이올리니스트 한소라씨 풀뿌리희망재단에 공연 수익금 1030만원 기부

대전일보와 천안예총은 22일 풀뿌리희망재단 사무실에서 ‘희망나무, 행복 숲’ 캠페인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박광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신혜중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대표,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 오형만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바이올리니스트 한소라씨, 고경호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김성운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사진=풀뿌리희망재단 제공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달 28일 대전일보 주최, 천안예총 주관으로 열린 ‘희망 나무, 행복 숲’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음악회-한소라의 고백’무대에 재능을 기부했던 바이올리니스트 한소라씨는 22일 오전 10시 풀뿌리희망재단을 찾아 공연 수익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나무, 행복 숲’ 연중 캠페인의 첫 재능 기부자다.

이날 한씨와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 고경호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은 음악회 수익금 1030만원을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광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형만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신혜중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대표,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성윤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느 영화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뿐”이라며 겸손해 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도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향기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희망 나무, 행복 숲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아름다운 재능기부가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이런 나눔과 기부 문화가 전염성 강한 나눔 바이러스가 돼 지역사회 전 영역으로 골고루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나무, 행복 숲’ 연중 캠페인은 대전일보와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모임, 아산 YMCA, 풀뿌리희망재단이 공동으로 펼치는 나눔 프로젝트로, 수익금은 캠페인 의제인 ‘빈곤층 주거환경개선’, ‘빈곤층 긴급의료비지원’과 ‘급식지원’ 등에 전액 쓰여 지게 된다.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958011

(2) 아침든든112 모금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연결 : 아침결식 지원

결식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은 대전일보와의 공동캠페인이 끝난 후,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²⁵⁾와 함께하는 아침결식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되었다.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는 2013년 천안지역 조식결식아동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A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전교생 428명 중 부모의 부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33명으로, 이는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는 조식결식아동을 위한 조식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재단은 이 사업에 대한 배분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25) 2013년 미래를여는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20여개의 관련 기관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고자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처음 시범사업 논의는 조사를 진행한 A 초등학교와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가 함께 조식 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책임소재 및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는 논의 끝에 결국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크는 시범사업 실시 전 아동들의 선호메뉴를 조사하였고, 영양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구성하였다. 시범사업 준비 기간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른 시간 센터에 나와 아동을 위한 아침식사 준비가 가능한 선생님의 존재 여부였다. 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두 지역아동센터 급식선생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2014년 1학기가 시작되고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이들은 거점센터 두 곳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실시 이후 4~5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이들은 “수업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고, 오전에 체육수업을 진행해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아침에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갈 수 있어 기분이 좋다”라는 것과 “매일 지각을 하지 않고, 아침을 먹으면 수업시간에 집중이 잘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으면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2015년부터 천안시에서 조식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두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서부터 시범사업의 진가는 그 빛을 더욱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천안시는 2개의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최대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참여와 지역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값진 결과다.

저소득층 아동 조식지원금 모금

풀뿌리희망재단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동안 신부동 아라리오 조각공원에서 ‘아침든든 112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아침든든 112’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하루(1) 첫(1) 끼니를 위해 이(2)천 원을 나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천안의 한 초등학교와 풀뿌리희망재단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조식지원 사업에 쓰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간편식 형태의 아침밥 한 끼를 지원하게 된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04726

(3) 업(業)연계형 나눔의 선순환으로 발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재단 이사의 소개로 연결된 한 전자부품 제조관련 벤처기업은 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넥스콘희망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매일 회사에서 먹는 아침 식사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쿠폰을 기부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였다.

재단은 이렇게 조성된 넥스콘희망기금을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을 위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 교육비로 지원한다. 2010년부터 56명의 청소년들이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자격증으로는 한식·중식·양식 등의 조리자격증, 미용사자격증, 컴퓨터관련자격증,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등 다양하다.

자격증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비를 지원받아 조리자격증 취득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된 A군이 교육기관 선생님과 끈끈한 사제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 선생님은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진로 뿐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 방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더 나아가 선생님은 A군을 통해 지역에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아동센터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A군도 친구들을 동원하기도 하며 보조역할 자원봉사를 함께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과정 교육비만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은 변화의 시작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 (재)풀뿌리희망재단에 기부금 전달

(재)풀뿌리희망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한 미래에너지 응용기술 전문기업인 넥스콘테크놀러지(주)(대표이사 김종환)가 직원송년회 행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넥스콘희망기금에 18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직원들이 식사비를 아껴서 모은 900만원과 회사 차원에서 1:1 매칭그랜트 사업(동반기부제)으로 900만원을 보태 3년째 매년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넥스콘테크놀로지(주) 관계자는 “직원들과 함께 연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작은 나눔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풀뿌리희망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사업 - 꿈키우기’를 실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에게 취업과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지난해 17명(미용사자격증 4명, 제과제빵기능사자격증 3명, 한·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6명, 중·일식조리기능사자격증 1명, 실내건축기능사자격증 1명,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2명)의 학생에게 총 1700만원을 지원했다.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5797>

5) 조직구조

(1) 이사회

재단은 법적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기에 조직구조상 이사회가 법적 책임자로서의사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재단의 미션과 비전·중장기발전계획·조직진단·사업 계획 수립 등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결산 심의를 통해 재정을 책임지고, 사무국의 임면을 통해 사무국 업무수행에 대해 협력·평가하고, 기부와 모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속적 발전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사회가 어떠한 리더십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지역재단의 성패가 달려 있다.

재단에 적합하며 좋은 역할을 하는 이사는 첫째,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며, 둘째, 이사회 회의 및 재단의 각종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공익을 우선시하여 판단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이고, 셋째, 모금활동에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단이사 중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이사가 5명인데, 그 중 3명은 재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이사로 추천·선임되었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경우이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사를 발굴하는 일은 재단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사회가 재단의 방향과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설립 당시부터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사들의 역할이 많은 기부골프 대회, 나눔 만찬행사에 대해서는 토론이 활발하지만, 모금활동과 배분지원활동, 나아가 재단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사들은 본인의 기부와 모금활동을 합해 1년에 500만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영리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사를 제외하는 등 모든 이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사회 구성원 중 50% 정도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이사회 회의 및 기타 경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의 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이사들이 별도의 활동비를 부담하여 지출하고 있다.

(2) 상임이사, 사무국장

재단의 상임이사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사무국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비영리 조직의 성격상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이사회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일을 수행하도록 돕고, 상호간에 협력과 견제를 조화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상임이사과 사무국장은 재단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비전과 지역의 현실을 잘 통합하여 재단의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감사

재단은 자산 규모나 연간기부금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내부 감사가 담당하고 있다. 재단은 어느 비영리조직보다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조직체이기에 내부감사이긴 하지만 대외적인 공신력 측면에서 비영리회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등 총 2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의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기능과 함께 재단의 회계직원에게 비영리회계를 교육하는 등 회계인력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4) 사무국

비영리조직에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사무국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두 바퀴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기구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의 기반 위에서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게 되는데, 사무국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재단은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금·사업기획·회계 등 비영리조직 운영에 필요한 각종 외부교육에 참가하거나 자체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5) 자원봉사자

재단이 펼치는 활동은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재단의 자원봉사자들은 20~3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데 활동영역으로는 주로 모금캠페인 진행 시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면하는 활동과 다양한 모금이벤트를 개최할 때 참가자를 응대하는 교류안내자 역할을 맡는다. 또한 본인이 가진 재능을 적극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거리에서 노래와 연주로 모금공연을 펼치거나, 직접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봉사활동을 실천하기도 한다. 재단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맺어진 인연을 단발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재단이 창립했을 때부터 활동해온 자원봉사자들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 동기부여와 재단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지역사회 변화

지역재단은 시민들이 기부한 선한 뜻의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단은 설립당시에 ‘안식처를 잃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호받을까? 차별을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까? 가난의 대물림은 끊을 수 없을까?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시민들은 이웃

들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까?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며, 지역사회가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지난 9년간의 재단의 활동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영리조직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 측정 자료는 없으나, 내부평가를 통해 기부문화 변화 및 확대, 공익인프라 확대,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기부문화 변화 및 확대

지역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첫 번째 성과라고 하겠다. 재단 설립 이전에 지역 비영리단체들은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역에서 성공한 모금사업 모델과 기법이 없다보니 선뜻 모금에 나설 수 없었다. 재단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모금 기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소액기부자를 위한 1%희망나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희망나눔일터, 기부보험 등 정기기부, 이벤트성 행사 기부로 나눔만찬, 기부골프대회, 기부 음악회, 기금만들기 등을 운영하였다. 이런 모델들은 풀뿌리단체들이 적극적인 모금을 시도하도록 하였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기부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시민들이 기부와 나눔을 쉽고 친숙하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2) 공익인프라 확대

재단의 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은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 예로 2007년 천안시 해누리청소년센터의 설립은 이를 모델로 2013년 1개소, 2014년 1개소 등 총 2개소의 센터를 설립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으로 구성된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사회복지관과 기업 등에서 벤치마킹하여 2015년 현재 3개로 확대되었다(혹시 다른 예는 더 없는지요?).

(3)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재단은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져야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공익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단의 사업을 선택·집중하여 공익활동가 지원에 노력한 결과, 공익활동가 해외연수지원사업 35명, 애니어그램연수지원사업 101명, 학습코칭연수지원사업 56명, 중간리더십교육 풀뿌리학교 14명, 클라우드펀딩연수 40명, 가족여행지원사업 10가족 등이 참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이들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최○○ 월드비전천안가정개발센터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배분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재단에 지원해봤지만 매년 선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역재단이기 때문에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준 것 같아요(김○○ 우리가족상담센터 팀장)”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내부적 취약점과 외부적 환경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재단의 모금액량을 확대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금방법을 개척하지 못해 모금액이 정체 상태에 있다.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설립한 복지재단이 모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모금의 경쟁상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사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단은 몇몇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시행해보지 못한 모금방법인 유산기부를 새로운 과제로 삼아 시도할 계획이다. 유산기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기부자들과 재단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유력한 모금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배분지원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 특히 아동·청소년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치중해 온 것을 지양하고, 인권·문화·지역공동체 등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그동안 매해 초 사업파트너와 함께하는 실시하던 사업계획 회의뿐만 아니라 사업평가도 사업파트너와 함께 함으로써 기부자, 비영리단체, 언론 등과 파트너십을 더욱 긴밀히 유지할 계획이다. 넷째, 공익활동가 및 비영리조직 지원활동에 대한 효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성과 등을 연구하여 향후 재단의 사업방향과 모금제안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2. 부천희망재단

1) 설립배경 및 과정

(1) 지역의 특성 및 설립배경

1980년대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해오던 전국의 서민들이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부천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부천은 베드타운화 되고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직장은 서울로 잠은 부천에서” 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당시 부천은 잠깐 머물다 형편이 되면 다시 서울로 이주해가려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었기에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70·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청장년층과 의식 있는 시민들이 부천YMCA, 부천경실련, 부천Y시민회, 부천시민회, 노동청년회, 부천전교조(전교조 설립 최초 제안), 지역언론사(부천시민신문)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사회 부조리와 군사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부천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활동하게 된다.

부천은 1980년대부터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며, 타 시도에 비해 시민사회 연대가 잘 이루어져 활동가들의 끈끈한 유대감 및 관계망이 형성된 곳이다. 1980년대에는 대학생 노동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고 여성운동단체·민주시민운동단체·노동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자, 부천시에도 부천 YMCA·부천 YWCA·여성노동자회·여성의전화·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천시민회 등의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1988년 충남 홍성에서 지역신문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자 부천에서도 1989년 지역신문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다. 부천시민신문은 한겨레신문 창간방식을 취하여 시민들이 돈을 모아 지역신문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87년 6월 항쟁을 주도하였던 민주인사들과 부천YMCA와 같은 기존 단체 및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부천의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민의 신문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극심한 자금난으로 오래가지는 못하였으나 부천 시민운동 역사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시의회가 구성되고 1996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자, 시민운동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1998년부터 시민단체들은 부천시와 지방의제 사업들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2000년에는 시민, 부천시, 기업이 함께 지방의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구인 지방의제사업단 ‘푸른부천만들기 21’을 출범 시켰다. 2003년에는 시민운동의 제안으로 ‘시민의 강’을 만들었고, ‘작은도서관운동’과 ‘학교숲만들기’ 등 다양한 파일럿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천 YMCA, 부천YWCA, 생활협동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시민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등이 부천시민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학습과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계속되면서 모든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민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비영리단체들은 스스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자 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비인가 비영리기관 등 사각지대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함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재적 인력과 재능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의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설립과정

① 설립계기

당시 부천지역에는 평생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노력하신 故김관식 선생님과 故강희대 선생님, 그리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박동래 선생님(신애원농장) 같은 분들이 계셨다. 이들은 故원경선 선생님(풀무원농장 설립자)과 함께 30대부터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 풀무원 공동체 운동을 함께 한 분들이다. 이들 중 故강희대 선생님은 부천의 재야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와 시민운동을 이끌며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셨다. 그 분의 참 삶의 의미를 시민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2005년 『(사)강희대 부천시민상』²⁶⁾을 제정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은 박동래 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은 김범용(현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이 맡았다. (사)강희대 부천시민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역 사회에 헌신한 공로가 큰 사람들을 발굴하여 매년 '강희대시민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시민상 운영위원회의에서 김범용 운영위원장이 지역재단 『(사)부천희망재단 (이하 '희망재단)』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를 운영위원회가 받아들여 이사회가 승인하였다.

'강희대시민상'은 부천희망재단 설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매년 시민상을 주는 것만으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으며, 지역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때 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5월 '강희대시민상' 운영위원회(지역시민사회 활동가 출신들 10 여명)는 1년여 동안 토론 등을 통해 준비모임을 결성하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사회에 지역재단 설립을 제안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지역재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견학, 국내외 재단 사례에 대한 토론, 재단설립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사무국장 채용 및 임시 사무실 입주, 재단 소개자료 제작, 발기인 동의서, 마중물 약정서, 발기인 모집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준비과정에서 자료준비, 법인설립절차 진행,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준비할 사무국장의 1년 활동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법인이사 중 2인이 출연한 2400만원으로 인건비 1년 충당). 법인설립에 동의하는 부천지역 오피니언 리더 40명으로 준비모임이 구성 되었으며, 2011년 3월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몇 차례의 준비모임 및 제안자 모임과 5차례의 창립준비소위원회 모임 등을 통해 사업계획과 창립행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부천희망재단은 출범 당시 정부나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 상임이사가 지역 사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기인을 중심으로 5억 원의 마중물기금 약정을 추진하였다.

26) 부천시민사회가 민주화 및 지역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한 민간모금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강희대 시민상'이었다. '강희대시민상'은 2002년 서예가이자 시민사회의 어른이신 강희대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선생의 유족들이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민주화나 지역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희대선생의 생각이나 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상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 1억을 만들었다. 강희대 시민상은 2005년 3월 사단법인으로 설립 되었으며, 2005년 제1회 수상자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현재 10회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발기인 1인이 사무실 매입 후 전액(1억5천)을 기부하였으며, 지역기업인을 비롯한 시민 사회 인사들이 1인당 100만~1천만 원씩을 기부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재단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사회 인사들을 설득하기, 지속가능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재단임원진 구성하기, 지역일부 인사의 ‘발목잡기’ 등은 재단 설립 이전에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작업이었다.

희망재단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데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가치 위에 ‘사람들의 모임’에 부여한 법인의 성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설립자본금이 재단법인보다 적게 소요되어 초기자본금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고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돈과 사람이 서울중심 혹은 중앙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에 비영리 활동이 쇠퇴해가는 것을 보면서 부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발견한 것이 지역재단이었다.

부천의 무너진 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모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역재단을 통해 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가치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재단설립이 필요했고 순수 민설민영 지역재단으로 부천희망재단을 준비하게 되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설립된 부천희망재단은 복지영역의 자선을 뛰어 넘어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활동가와 공익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전문적으로 모으는 지역재단이 되고자 하였다. 2010년 12월 40명의 부천시민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김범용 준비위원) 하고 참석자 모두의 동의로 지역재단을 추진키로 하고 준비소위를 구성했고 이후 발기인 90명(부천시인구 90만의 100분 1% 상징성)이 모여 부천희망재단을 만들기 위해 시간 및 재능, 자원 및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하였다.

“희망재단 만들 생각은 10여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다 1년 전 부천지역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창립을 준비해왔지요....[김범용 상임이사, 창립축사 중에서]”

창립 축사에서 전국 지역재단의 롤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한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희망재단의 싹을 틔우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천희망재단의 씨앗은 김 이사의 선배 2명이 지역재단 만드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보태주기로 약속하면서 진행됐다. 또한 1억5천원의 거금을 낸 발기인 동참자는 사무실 매입을 약속했고 1억 원, 500만원, 10만 원 등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발기인만도 50명이나 된다.

“황량한 들판에 심은 나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과의 고민이 필요하다... 부천하면 기부와 나눔이 일상화된 아름답고 좋은 도시라는 말을 듣고 싶다[김범용 상임이사, 내일신문 인터뷰 중에서]”

② 지역재단 연구 및 자원 확보

2009년 5월~지역재단 연구 및 현장 탐방을 위해서 지역재단 준비위원중에서 [미국 뉴욕 재단(시민상운영위원 중) 을 방문하여 재단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지역재단 준비에 공유하였다.

지역재단 준비위원회는 부천환경교육센터 일부 공간에 무상으로 책상을 놓는 것을 시작으로 사무국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역재단 창립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0년 1월 ~ 2011년 3월 창립까지 지역재단 학습, 법인설립 및 사업계획준비 등을 위해 법인설립에 동의하는 부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로 제안자 모임 40명을 구성하였다. 제 1차 제안자모임(2010년12월26일)에서 준비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유한대 김영호 총장)을 포함하여 김종해(가톨릭대교수),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사)강희대부천시민상운영위원장), 이승열(부천승마공원대표), 임성현(부천혜림원장) 등 5인을 준비소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소위 위원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2차 준비모임과 3차 준비모임에서 사업계획을 하였으며, 창립행사 일정 등을 논의 확정 후 소위위원들이 논의하여 학계·시민사회·기업인·지역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발기인 90명을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마중물기금 모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4억 5천만 원을 약정 받게 되었다.

(사)부천강희대시민상 이사회에 제안하여 재단 설립준비금으로 박동래이사장과 정인조

이사가 각각 개인기부금 1350만원과 1200만원을 내어 사무국장 1년 인건비와 준비비로 255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역재단 준비위는 김범용을 선임하고 준비위원은 무급, 사무국장(초대 사무국장 정석준)은 월200만을 주고 채용하였으며, 사무실을 기부 받아(정인조 시민상 이사 1억5천 기부) 부천 지역사회는 본격적으로 지역재단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준비위는 처음부터 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준비하고 100% 민간 기부를 지향하며 모금을 하였다. 매월 CMS 약정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월급의 1%를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행정부시장, 공무원, 시의회의장, 시민사회, 노동조합대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의소, 문화예술계, 지역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기업인 등 연인원 1천5백여 명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부천 지역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였다.

2011년 3월 29일 오후 7시 가톨릭대학교 성심캠퍼스 김수환 100주년기념관에서 부천 희망재단 창립행사가 진행되었다. 초대 연사로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지역재단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유한대 김영호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김범용 소장이 초대 상임이사로 선출되면서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인 부천희망재단이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이사진은 총 16명으로 기업인·시민사회인사·직능단체·학계전문가 등 주로 초기 재단에 고액을 기부한 기업인 및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분들로, 향후 지역사회의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인은 배제하고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재단상임이사·시민단체·사회복지계 인사 등으로, 모금위원회는 재단이사장·재단이사·기업인·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배분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장·사회학교수·재단사무국장·재단이사·변호사 등으로, 기부특별위원회는 유산기부 및 특별기부 등을 상담하고 조언하고자 종교인·법조계·재단이사장·지역원로·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으로, 기금위원회는 재단이사·교수·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관장·지역기업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부천의 시민사회는 '나눔운동'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제안자 모임을 지난 12월 21일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었다. 부천지역재단 제안자 모임에는 종교, 계층, 정치, 세대를 뛰어 넘어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부천의 기업인들과 토박이 재력가들이 참여해서 부천지역재단에 거는 희망을 한층 배가했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다양해진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로 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단이다. 현재 전 세계 47개 나라 1,175개의 지역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는 아름다운 재단, 김해생명나눔재단, 천안풀뿌리희망재단 등이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천지역재단이 설립되면 부천이라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이사회와 재정을 갖는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민 모금활동을 통해 부천의 공공과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게 된다. 부천지역재단이 만들어가는 ‘나눔문화’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넘어 시대의 눈으로 지역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혜, 감성을 갖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삶’의 기적을 맞출 수 있는 ‘여럿이 함께 하는 창의적 나눔’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민 전체의 1%가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1%나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부천 전체 시민의 1%인 8,800명이 1%나눔에 동참할 경우 연간 10억의 기부금이 모여 지역의 빈곤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의 문제와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하고, 증폭시켜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인사 40명이 제안자로 참여한 모임에서 유한대학교 김영호총장이 부천지역재단 준비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김영호(학계), 이승열(기업인), 임성현(사회복지), 김범용(시민사회) 총 5인의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2011년 상반기에 정식 창립총회를 거쳐서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인사 3인이 초기 지역재단 설립기금으로 2,550만원을 기부하고(약정)했으며, 제안자 1인이 부천지역재단 사무실을 매입(1억5천정도)하여 기부할 예정으로 부천지역재단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총 40명, 이하 가나다 순)

강영석(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강호정(법무법인두우앤이우변호사) 권영욱(삼정(주)이사) 김기명(부천시 새마을협의회회장) 김기찬(가톨릭대학교 기획처장) 김기창(탐치과 원장) 김범용(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사) 김선구(매티코리아(주)대표) 김영호(유한대학교 총장) 김은혜(부천시민생협이사장) 김종해(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창섭(전부천예총회장) 문병권(소신여행(주) 대표) 박광국(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박동래((사)강희대부천시민상이사장) 박혜연(전국녹색가계운동협의회대표) 손인환(손인환한의위원장) 신철영(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위 집행위원장) 오경석(예웅건설(주)대표) 원종섭(전CJ대표이사) 원혜영(국회의원) 유석성(서울신학대학교총장) 이길향((주)알펜채움 대표이사) 이상덕(화가) 이수복(이수복신경정신과원장) 이승열(비바승마클럽대표) 이시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진희(전 부천시약사회장) 이하규(가톨릭대학교 교학부총장) 이해선(전부천시장) 임성국((사)백십자사 이사장) 임성현(부천헤림원 원장) 임영담(석왕사지주스님) 임해규(국회의원) 임현정(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정인조(글로벌21(주) 대표) 정해구(성공회대학교 교수) 조관제(한국카툰협회 회장) 최은희(YWCA 사무총장) 호인수(고강동성당 주임신부)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14>

2) 미션 및 주요사업

(1) 재단의 미션 및 비전

Mission : 부천희망재단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부천희망재단의 미션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 지역 공익 기관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공익기관과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해서 더 잘 하게 돕습니다.
- ▶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한다. 다른 기관이 나서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찾아 해결합니다.
- ▶ 함께 만들어 갑니다. 투명한 자금 사용과 보고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부천의 공익활동과 나눔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활동가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하고 힘을 길러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지역재단은 지역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온갖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희망이 되고 지역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재단이다.

Vision : 대한민국 지자체에 지역재단을 세울 때 가장 따라 하고 싶은 재단

부천희망재단의 비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재단을 세울 때 가장 따라 하고 싶은 재단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 부천희망재단은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 ▶ 부천희망재단은 가장 투명하고 역동적이며 가장 일 잘하는 지역재단입니다.
- ▶ 부천희망재단은 부천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부천이 긍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 ▶ 부천희망재단은 지역의 문제와 기회가 무엇인지 찾고 해결합니다.
- ▶ 부천희망재단은 나눔을 삶의 가치로 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부천희망재단의 향후 30년의 미션과 비전은 100개의 사회변화 기금을 만들어 부천 지역 사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며, 부천의 민관 거버넌스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100억의 민간기금으로 1000억의 공익 가치를 극대화한 창의적 배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사람'변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재단은 중앙을 흉내 내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민주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단체인기에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천이 변해야 경기도가 변한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면 지구촌이 변한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의 변화로 나라를 변화 시키고자 공익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일시적 자선을 넘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재단의 주요 사업

재단의 주요사업은 공익인재 육성 및 해외 연수 지원, 의료비 지원, 지역공동체 의식복원, 사회적 약자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업은 <표 III-2-1>과 같다.

〈표 Ⅲ-2-1〉 부천희망재단 주요사업

영역	사업 및 기금
공익인재 육성 및 해외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비영리공익단체 ‘청년공익활동가양성프로젝트’ 지원) - 정인조풀뿌리참시민기금(부천지역 공익활동경력 5년 이상 비영리활동가 해외연수 지원) - 정희석재단활동가키움기금(파워보이스활동가기금) - 태웅정밀디딤씨앗기금(정일석 디딤씨앗기금 106명의 아동의 꿈) - 김종필 청년세바꿈기금(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꿈, 지역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난치병 미취학아동 지원(어린이집연합회 연계 매년 3천만 원 모금) - 새생명축하기금(싱글맘 지원과 저소득 어린이의료비지원) - 어린이집연합회꼬마마라톤기금(미취학어린이 희귀병의료비지원)
지역공동체 의식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나눔콘서트(디딤씨앗통장²⁷⁾ 지원) - 연말도네이션파티 (지역사회변화에 투자 특별기획모금) - 희망리어카(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우개캠페인(부천지역 대학생 신용유이자 17명 신용회복 지원) - 청개구리밥차(가출청소년지원) - 부천시독거노인가금(부천독거어르신 생활지원) - 청소년지원기금(거리청소년공간마련지원)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열HOPE기금 (부천희망재단 인큐베이팅기금) - 원혜영푸른나무기금(부천지역나무심기지원)

(3) 재정추이

지역재단은 재정규모의 지속적 성장 및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재단의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를 살펴보면(표 Ⅲ-2-2 참조), 고액기부가 있었던 설립초기(2011)에 비해 2012-2013년에는 기부금 합계가 감소하였으나, 2014-2015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고액기부로 인한 비정기기부가 대부분이었으나, 2013년 정기기부가 시작

27)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적립금은 대학(대학원)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되면서 해가 갈수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의 5년간 배분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배분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소외와 차별'의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에서 2014년 이후 점차 '공익과 대안', '다음세대와 나눔문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2> 부천희망재단 최근 5년간 기부금 추이

(단위:천원)

구분	정기기부	비정기기부	행사기부	기금기부	합 계
2011	-	562,065(92%)	270(0.0%)	49,181(8.0%)	611,516(100%)
2012	-	112,520(31.0%)	31,946(8.8%)	218,221(60.2%)	362,688(100%)
2013	58,098(16.9%)	117,817(34.2%)	33,380(9.7%)	135,451(39.3%)	344,745(100%)
2014	78,679(17.7%)	93,707(21.1%)	142,127(31.9%)	130,379(29.3%)	444,892(100%)
2015	102,781(20.9%)	160,367(32.6%)	96,771(19.7%)	131,319(26.7%)	491,238(100%)

<표 III-2-3> 부천희망재단 최근 5년간 배분지원비 추이

(단위:천원)

구분	소외와 차별	공익과 대안	다음세대와 나눔문화	시민참여형 사업	합계
2011	13,734(53.6%)	10,382(40.5%)	1,495(5.8%)	-	25,612(100%)
2012	66,227(87.7%)	9,280(12.3%)	-	-	75,507(100%)
2013	83,970(60.7%)	17,978(13.0%)	34,772(25.2%)	1,513(1.1%)	138,233(100%)
2014	63,736(44.2%)	53,762(37.3%)	19,780(13.7%)	6,998(4.9%)	144,276(100%)
2015	41,635(16.1%)	32,771(12.6%)	152,329(58.8%)	32,523(12.5%)	259,257(100%)

3) 모금전략 및 사례

(1) 모금전략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재단의 경우 법적으로 모금액의 15%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적은 인원의 사무국 직원들이 모금을 기획하고 담당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나눔 및 기부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척박한 까닭이다. 그러기에 지역재단에게 모금전략은 더욱 필요하다.

“기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를 제안하는 사람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해요. 행정에게도 좋을 일이 있어야 해요.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했던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했을 때 뭘 배웠냐면, 기업의 컨설팅 방식이에요. 기업은 목숨 걸고 물건 팔아야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부자에게 우리 재단에 돈을 내서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거나 해야겠죠. 적어도 ‘저곳에 돈을 기부하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행사인 기부천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2015.3.25. 김범용 이사, 희망제작소와의 인터뷰 중)

부천희망재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김범용 상임 이사는 기부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기부를 받는 자, 기부를 제안한 사람, 행정 등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재단의 모금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능한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기부라는 시스템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재단의 몇몇 모금사례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 모금사례

① 희망리어카

희망리어카는 환경미화원들의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사례이다. 2012년 초 부천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십시일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한푼 두푼 모금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500만원을 모아 부천희망재단에

기부한다. 한국노총 부천시부 의장 김준영과 함께 재단사무실에 찾아온 미화원노동조합원들의 아름다운 기부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어카로 다시 태어났다.

먼저 소사본동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 00 공무원이 주도하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 및 부녀회 등 10개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설명회를 하고,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가 동을 방문하여 희망리어카 사업설명회를 하게 된다.

희망리어카는 단순히 리어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천희망재단은 돈을, 동사무소는 기획을, 동주민들은 폐지를, 사회적기업센터는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되고 힘든 어르신을 돌보기로 한 것이다. 동주민센터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희망리어카기금(부천희망재단에 설치) CMS에 가입하고 이러한 운동이 다른 지역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 ‘희망리어커’가 희망입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사본동주민센터와 부천희망재단 넘버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리어카와 멋진 조끼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희망리어커’ 발대식에 동참한 오금숙(73세) 할머니가 기쁨과 감사의 인사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힘차게 내밀었다.

생계를 위해 파지를 줍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리어카와 조끼를 무상제공 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희망리어커’ 20대 전달식이 24일 오전 11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 지원된 리어카는 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소장 신수연)와 노동조합, 부천시 녹지공원 노동조합(위원장 양장근), 부천시청노동조합(위원장 강선남)에서 모아주신 800여만원의 기금으로 총 20대가 제작되어 지원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천희망재단 정인조 부이사장, 김범용 상임이사, 백정옥 이사, 부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시의원 한선재, 박상설 소사구청장, 김달호 소사본동장, 임성현 부천혜림원장, 차정섭 소사본동주민자치위원장, 유한대학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황문상 관리지원팀장, 신수연 우주엔비텍 대표 이사 등이 참석했다.

‘희망리어커’는 가정과 가게에서 나온 파지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은 보답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민·관·학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첫 사례이다.

또한 부천희망재단(이사장 김영호)은 기부운동을 통해 리어카와 조끼를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부천시와 유한대학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참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희망리어카’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사본동 주민자치위 복지환경분과 한영자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희망리어카는 노령화 노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노인인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당장 많은 일 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현실이고 어르신들은 파지수집으로 월 3~4만원을 벌기위해 위험하게 거리를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리어카와 안전조끼를 만들어드리고 주민들은 기부개념으로 파지를 제공하고 노인들은 보담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희망 리어카사업을 구상하였고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됐다”고 그간 경과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사본동주민자치위, 부천희망재단, 유한대학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방안을 논의해 소사본동 주민자치위는 ‘주민참여 부문’, 부천희망재단은 ‘기부를 통한 사업재원마련’, 부천시와 유한대학 사회적 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소사본동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40명을 인터뷰하여 오늘 1차 15명을 대상으로 희망리어카 발대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과제는 희망리어카를 후원하는 가구와 가게를 발굴하여 어르신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많은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4>

② 부천희망나눔콘서트

● 지우개 캠페인(제1회~3회 희망나눔기부콘서트)

부천희망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10월 기부콘서트를 개최하여 2015년은 4회째를 맞는다. 2014년 10월 가을 부천희망재단은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지우개캠페인은 융자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사회에 나와서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 하기도 어렵고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프로젝트이다.

지우개캠페인 콘서트를 통해 부천시민 1000여명의 티켓구매와 기업 및 은행 등의 후원을 통해 콘서트 수익금 중 경비를 제외한 3천만 원으로 부천지역 신용유의자 대학생 17명의 신용불량 딱지를 말끔하게 지워주기로 하였다. 한국장학재단과 부천희망재단 두 기관은

MOU를 체결하였다. 부천희망재단은 모금을 통해서 갚아준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포기를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연체된 이자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17명의 부천 거주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에서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에 부천지역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하였으나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이에 재단은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하였다. 결국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전국 및 부천지역 신용유의자의 숫자를 통보받고 지우개캠페인 스토리 제안을 작성하던 중 한국장학재단의 재단 방문 요청을 받게 되었으며, 장학재단 측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요청하게 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천희망재단 대학생 신용유의자 17명 구제

부천지역 20~30세의 청년 17명의 학자금 대출금 22,291,463원 대신 상환

부천희망재단이 부천청년 학자금대출금 22,291,463원을 대신 갚음에 따라 학자금대출로 시달리던 부천청년들이 활짝 웃었다.

부천희망재단(이사장 정인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광병선)은 3월 13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 희망재단 회의실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부천희망재단은 대출 원금 전액을 갚고,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원금 이자를 전액 감면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20~30세의 청년 17명의 학자금 대출금 22,291,463원을 대신 상환하여 형편이 어려워 대출금을 못 갚아 신용유의자가 된 기록을 깨끗이 지워줄 수 있게 됐다.

부천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 부천지역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지원을 위한 지우개 캠페인」을 통해 부천 청년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회관에서 '지우개 콘서트'를 개최하여 22,291,463원을 모금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생활고, 학자금대출, 이자상환을 위한 아르바이트, 또 다시 생활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20대 청년들이 헤어 나오지 못해 사회를 향한 첫발의 문턱을 넘기기조차 힘겨운 실정에서 부천희망재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했다.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부천지역 신용유의자 신용회복프로젝트 ‘지우개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부천청년의 신용유의자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7월 기준 전국 학자금 대출 이용자 148만명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신용유의자가 4만6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희망재단은 2011년 3월 경기도 최초로 지역재단을 설립하여 지우개캠페인 이외에도 풀뿌리공익 활동기금, 공익인재육성기금, 독거노인기금, 희망리어카기금 등 총 100억 원의 공익기금조성 목표를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84>

◎ 111명의 아이들 (제4회 희망나눔기부콘서트)

2015년 제 4회 희망나눔기부콘서트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부천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민간재단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부천의 요보호아동은 495명(2015년 7월 기준)으로, 이중 디딤씨앗통장²⁸⁾을 만들지 못하는 아동들이 111명이다. 부천희망재단은 2015 나눔콘서트를 통해 111명의 아동 모두를 구제하기로 했다.

111명의 아이들 프로젝트에는 경기예술고등학교(교장 황병숙)에서 무료로 콘서트홀을 대관하였고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64개 센터)가 동참하였으며, 지역의 기업 및 업소 등에서 2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③ 정인조 풀뿌리참시민기금/부천공익활동가 해외연수기금

20여년을 부천지역사회에 살면서 시민사회운동을 후원하고 지지하던 기업인 정인조이 사장이 환갑을 맞이하여 부천희망재단에 1억5천만 원을 기부하여 “정인조참시민기금”을 설립하였다. 정이사장은 희망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지역사회 부천Y시민회모임을 함께 꾸려오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다.

정이사장은 30대 중반에 부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부천지역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부천희망재단의 제안자로 참여하였고 발기인이 된 이후에도 재단 설립 초기 1년 동안 직원 인건비 1200만원 및 재단 사무실을 기부하는 등 부천지역 기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28)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적립금은 대학(대학원)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자사인 글로벌21의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 1만원 미만 끝전모금을 제안하였고, 임원은 물론 다수의 직원들이 1만원~5만원까지 재단후원자로 가입하였다. 또한 정이사장의 가족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바, 정이사장의 아내는 매년 2~3백만 원의 기부금을 재단에 후원하고 있으며 두 딸과 사위까지 매월 5만원을 CMS로 후원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기부천사 가족이다.

현재 ‘정인조풀뿌리참시민기금’ 1억5천만 원은 부천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천지역 비영리활동가의 해외연수 지원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상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부천글로벌21(주) 정인조 대표 부천희망재단에 거액 기부

자신의 회갑을 맞아 1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한 독지가가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부천글로벌21(주) 정인조 대표가 기부천사의 날개를 단 그 주인공,, 그는 60년 인생의 큰 결심으로 부천희망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에 근무하다 독립해 전공 분야인 검사·감리회사를 설립,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회에서 얻은 부는 ‘개인과 가족의 영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신조 아래 기부의 반열에 서게 됐다.

30대 중반이던 1982년부터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부천지역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발족된 부천희망재단의 발기인이 된 이후 재단 설립 초기 1년 동안 직원 인건비로 1천2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다음 달 12일 회갑을 앞두고 희망재단에 1억5천만 원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의 나눔정신은 일상 속에도 녹아들어 있다. 간혹 주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신랑과 신부에게 2가지 조건을 제시, 동의를 받고 나서야 허락한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주례에게 밥을 산다’, ‘급여 1%를 반드시 기부한다’가 바로 그 내용이다. 여기에는 인생선배로서 결혼생활 애프터서비스(A/S)를 해주겠다는 따뜻한 마음과 일상 속에서 기부를 실천하며 살라는 권유의 의지도 담겨 있다.

그는 부인 조우진 여사와의 생활에서도 검소와 절약을 실천하는 행동가이기도 하다. 집에 있는 가구나 의류는 신혼 초의 것이거나 주변의 지인과 녹색가게 등에서 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조 여사는 일회용 비닐봉지·편지봉투 하나도 반드시 서너 번씩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얻은 옷을 수선해 입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정 대표의 선행은 부천FC축구팀 자선경기, 부천필하모닉+장사의 자선연주, 부천시의원 및 공무원, 만화영상진흥원 전 직원 급여끝전 모금운동 등의 기부와 나눔으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부천희망재단은 정 대표가 기부한 1억5천만 원을 ‘정인조 풀뿌리 시민지원기금’의 주춧돌로 삼겠

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인조 풀뿌리 시민지원기금'은 부천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천지역 비영리활동가의 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부천희망재단은 지난해 3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창립한 경기도 최초의 지역 재단이다. 부천지역 4개 대학(가톨릭대·서울신학대·유한대·부천대학) 총장 등 지역인사 9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금을 기부했으며, 현재 4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810>

④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 탄생(지역사회 공익인재 양성프로젝트)

경영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피터드러커는 사회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간과 돈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비영리 공익활동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어 단체를 운영하거나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공익인간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인이 발 벗고 나섰다. 2013년부터 재단 상임이사가 부천지역의 기업인에게 특별한 '공익인재기금설립(3가지 기금제안 중 기부자 선택)'을 제안하였고, 매년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재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인재육성 기금 공모사업이 시작되었다.

●-1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 첫 번째 사업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푸른발자국 청년기획단활동가들이 부천청년공익활동가양성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공익인재육성기금으로 선정되었다. 부천청년기획단의 기획은 지역재단과 풀뿌리 시민단체를 엮어 현실로 이뤄졌으며 2015년 여름방학 비영리 체험 활동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집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2천2백만 원).

부천공익활동가 양성프로젝트는 기업의 사회공헌기부로 만들어진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으로 방학동안 스펙도 쌓고 대외활동도 하며 능력도 키우고 아르바이트 비용도 받는 사업으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며 비영리단체 실무도 체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이 직접 꾸리고 만들고 결과 발표회까지 한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이끌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익단체를 경험하면서 주체적으로 일하니 재미있고 재미있으니 열정이 생기고 이런 열정이 흘러넘쳐 활동하는 기관에도 활력을 준다.

‘오분전’, 부천의 청년 일자리는 우리가 기획한다

청년알바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방학, 부천지역에는 알바를 걱정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있다. 부천 지역의 공익단체 6곳과 함께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톨릭대, 서울신대 학생들이다. 16명의 청년들은 알바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오분전’이라 명명했다. 사회로 나가기 직전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이다.

‘오분전’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역의 공익단체, 시민단체들과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고민한다. 알바가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진로와 적성을 찾는 진정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부천지역에서 청년일자리를 고민하던 몇몇의 대학생들은 ‘푸른발자국’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알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공부모임을 진행한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 3월 부천희망재단의 공모사업에 ‘부천청년공익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청년인재육성기금으로 2200만 원을 확보했다. 청년기획단의 기획은 지역재단과 풀뿌리 시민단체를 엮어 이번 여름 현실로 이뤄졌다.

3월부터 부천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역사 특강 및 6개 공익단체 탐방이 진행됐다.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구마, 가정회복센터 쉼터,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살롬지역아동센터, 부천희망재단 6개의 공익단체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했다. 청년들과 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7월과 8월 공익활동을 진행한다.

각 공익단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9월과 10월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결실을 나누는 결과보고회도 계획됐다. 부천지역이라는 지역성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지역의 대학생들과 공익단체들 그리고 지역재단이 함께 만들어낸 대안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학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가 단순히 노동을 파는 단기알바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고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노동의 열매가 되길 소망해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3658

◎-2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의 2번째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청년사회적기업가(팀)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건강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청년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지원규모는 총2,000만원으로 1팀을 선발해 활동비 및 임대료 등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의 제안서가 부천희망재단 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공익활동 내용 미흡’으로 판정되어 공모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도 응모기업의 사회공헌 내용이 공익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 탈락하여 공모를 중단하였다.

**부천희망재단,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 공모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 지원사업, 1팀 선발... 2천만원 지원**

부천희망재단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팀)’을 발굴, 건강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본 배분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가정용 배선기구 시장의 선두기업인 (주)일신전기(부천시 소재)의 김종술 대표가 부천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출연한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2,000만원으로 1팀을 선발해 활동비, 임대료 등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28일 밤 자정까지. 선정 결과는 6월 일 오후 2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12698§ion=sc26§ion2=

◎-3 김종술공익인재육성기금 3번째 사업은 청년문화놀이터 ‘500/50(대표 신종호)’ 공간 지원(보증금 500만원 50만원 월세) 사업이다. 재단은 “문화공간은 왜? 서울에만 있나요?”라는 주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던 지역의 청년들에게 부천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청년지역문화기획활동가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보증금 500만원을 공익기금(부천희망재단 계약자)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청년들이 공간을 통한 수익으로 부담 수익금중 5%를 부천희망재단에(청년문화기금 조성) 기부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2015년 7월18일 500/50 프로젝트 공간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⑤ 청개구리밥차의 탄생(가출청소년들 돕는 단체에 1.5톤 이동식밥차 지원)

어느 날 부천역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밥을 해주는 물푸레공동체 대표가 부천희망재단에 찾아와 가출청소년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추운 겨울 천막을 치고 밥솥과 가스통 탁자 그릇 등을 이동 설치해야하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동식 밥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에 부천희망재단은 사무국 회의와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서 이동식 밥차를 구입하여 물푸레공동체에 전달하자는 사업기획을 하게 된다.

준비 과정에서 청개구리 밥차 구입을 위해 ‘도네이션 파티’를 기획하였으며 기부파티에 1차로 고액을 후원할 수 있는 호스트와 재단 이사진 중 파티에 초대할 기부자들을 물색하였다. 재단 이사진 중 부천승마공원대표 이승열 이사에게 호스트 제안을 하게 되고 이승열 대표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1천만 원을 내기로 약속하였다.

파티 장소는 2012년 12월 14일 저녁 7시 부천 가톨릭대 국제관 17층 레스토랑으로 결정하고 레스토랑 대표 및 가톨릭대 기획처장 김기찬 교수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니 학교 측에서도 장소 협찬은 물론 기부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후 재단은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 밥차 구입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파티를 최종 결정하고 기획안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20여명의 기업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기획안 내용을 설명하고 도네이션 파티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재능기부 해줄 가수나 사회자 파티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MBC아나운서 안희성 씨와(재단운영위원장과 인연) 가수 강허달님을 섭외하고 부천시장과 원미구청장에게도 파티에 참여하여 식사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희망재단 정인조 부이사장은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티즌스 오브리즈(Citizens oblige)가 필요하다. 재단은 소중한 기부금을 지역 사회 곳곳에서 가치 있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부카드에 기부금을 적어 내려갔다. 한국만화가협회 조관제 회장은 그림과 글로, 한국 블루스계의 디바로 통하는 강허달님과 보사노바 듀엣 나비다는 음악으로 재능기부를 하였다. 경인문고는 40권의 책을 참석자들에게 한권씩 나눠주었고, 승마공원에서는 무료승마권, 부천헤럴드에서는 롤케익을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했다.

부천희망재단 창립 후 처음으로 기획한 모금사업 ‘가출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 밥차’ 구입비는 이렇게 마련되었다. 재단은 모금된 2,700만원으로 1.5톤 왕바디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밥차를 구입하고 부천시청 앞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밥차 전달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 청개구리 밥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기부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개구리 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고, 밥을 매개로 청소년들과 만나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가 형성되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도네이션 파티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거리 밥차를 구입해주신 부천희망재단과 기부자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청개구리가 되겠다.”
(물푸레공동체 대표)

“이런 일들은 통상 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천희망재단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해법을 제시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기부의 방식으로 지역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김만수 부천시장)

부천희망재단, 청개구리 밥차 마련을 위한 기부와 나눔파티 열어

경기도 최초 민간주도 지역재단인 부천희망재단은 지난 14일, 부천 가톨릭대 국제관에서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 밥차 구입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파티를 열어 기금을 모금했다.

MBC아나운서 안희성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인 교수 등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24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천지역 내 문화소외 계층 및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 아쿠스틱 밴드 파피루스의 무대로 막이 올랐다.

이어 매주 화요일 밤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심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아 물푸레 대표의 식당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 대표는 “청개구리는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기능과 거리 청소년들의 위기 지원을 위해 천막 3개를 이용해 따뜻한 밥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천막식당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정과 학교가 품지 못하는 아이는 어디로 가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호스트의 무대였다. 오정구 여월동에서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승마공원 이송열 대표는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나로 인해 세상이 나아짐을 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같다. 오늘 제가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 우리 부천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동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대표의 부인 또한 남편의 기부에 동참하고자 100만원을 보태었다.

김영호 이사장은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티즌스 오블리즈(Citizens oblige)가 필요하다. 희망재단은 소중한 기부금을 지역 사회 곳곳에서 가치 있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부카드에 기부금을 적어 내려갔다. 한국만화가협회 조관제 회장은 그림과 글로, 한국블루스계의 디바로 통하는 강허달님, 보사노마 듀엣나비다는 음악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었다. 부천희망재단 선정 참 좋은 가게 1호인 경인문고는 책, 부천승마공원에서는 승마권, 부천헤림원에서는 롤케익을 선물했다.

<http://www.ibsnews.kr/news/15886>

http://kgmaeil.net/print_paper.php?number=18078

⑥ 부천희망재단 3인 3색전(재단창립 3주년 기념, 재단운영비 총 5천만 원 확보)

재단은 설립 3주년 기념식을 뜻 깊고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모금을 기획한다. 재단 사무국이 아이디어를 내고 상임이사가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만화가(한국만화가 협회장)를 만나서 부천희망재단 운영비 마련을 위한 ‘3인3색전’ 모금행사를 제안한다.

3인 3색전은 3명의 각기 다른 작가들이 부천희망재단 3주년 및 2기 재단 이사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인사 50인의 캐리커처 작품을 그려 전시하는 것이었다. 작가들과 재단은 판매수익금의 15%는 작가들의 작품비와 수고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80%는 재단 운영비로 기부하기로 협약하고 작품판매를 통한 사회공헌 기획을 하였다.

안중걸 작가는 총 50명의 기업인과 기부의향이 있는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500만원 까지 개인 작품을 액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였고, 조관제 작가와 김야천 화백은 각각 50개의 작품을 그려 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총 150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을 접촉하고 총 50명의 캐리커처 기부자를 최종 선정 확보하고 그림을 우선 구매할 기업인 등을 접촉함과 동시에 약 2개월간 그림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전시 장소 섭외가 문제였다. 부천희망재단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 10층 문화홀을 이용하고자 제안서를 작성하여 백화점 지점장을 면담하고 요청하였으나, 백화점 문화홀은 본사에서 관리하므로 본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1개월여의 검토과정이 필요하였다. 결국 총 14일의 무료 대관결정을 약속받았으며, 그 외에도 백화점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3인3색전 소개, 작품 브로셔 제작(400만원 상당), 전시장 큐레이터 2인 2주간 상시

지원(인건비 약 200만원) 등의 큰 도움을 받았다. 작가들은 작품 매매가의 15%를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모든 기획과 준비를 재단에 위임하였다.

행사 당일 부천시장과 국회의원 3인 시·도의원, 롯데백화점 점장, 캐리커처 작품 당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지켜보았고, 2주 동안 부천의 많은 지역사회 리더 및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시를 지켜보며 부천희망재단의 꿈을 응원하였다.

부천희망재단, 창립 3주년 기념 나눔갤러리 '3인3색전' 개최

부천희망재단은 창립3주년을 맞아 오는 17일(월)부터 30일(일)까지 롯데백화점 중동점 10층 갤러리에서 나눔갤러리 '3인3색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장르와 작품세계를 지닌 한국 작가 3인(조관제, 안중걸, 김야천)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나눔갤러리이다.

부천 각계각층 지역인사 50인의 캐리커처 작품 및 3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희망재단 기금으로 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총150여점의 (1인50점) 작품이 전시되며 현장에서도 직접 작품구매가 가능하며 별도로 일시·정기 기부를 할 수 있다.

17일(월) 오후 6시30분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부천희망재단 2기 임원진 및 이사장 취임 기념식이 진행되며 전시관람은 17일(월)부터 30일(일)까지 2주간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계속된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나눔갤러리를 통해 부천희망재단이 공익적인 활동과 지역의 나눔을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창립3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33650>

⑦ 저소득층 아동 106명 '꿈 발판' 마련 디딤씨앗통장사업²⁹⁾ 협약 체결

2014년 2월 부천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큰돈을 기부하겠다고 희망재단에 전화를 하였다. 2천만 원을 기부하여 약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29)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일대일로 매칭 지원(월 3만 원 이내)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 자립을 위한 학자금·취업훈련비용·주거마련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이다.

좋겠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즉시 재단 상임이사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 기업체 대표가 위임한 상무이사를 만나 기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의논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는 회사 측에 2천만 원을 10명의 학생에게 한꺼번에 장학금으로 주는 것 보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부하면 어떻겠냐는 설명을 하였고, 회사 측으로부터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답을 얻게 된다.

다음날 기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상무이사가 상임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사장님과 의논하여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은 부족한 것 같으니 1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부천희망재단은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부천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체 대표, 부천시장, 희망재단 3자가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논의 결과 2014년 2월 28일 부천시청에서 부천 저소득층 아동 106명의 '꿈 발판' 마련을 위한 부천시-태웅정밀-부천희망재단의 디딤씨앗통장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태웅정밀의 기부금 3천만원은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106명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되었다. 재단은 기부금이 사용되는 처음과 중간, 그리고 기금이 소진 되어 끝나는 시점에 회사 측에 기금사용보고서를 보내 기금 사용내역 및 성과 등을 보고 하였다. 이에 태웅정밀은 처음 일회성으로 2천만 원을 기부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에도 다시 2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그러나 재단 입장에서는 2014년 3천만 원이었던 기부금이 1천만 원 적어져 106명의 아동 중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고심하였다. 이를 알게 된 재단 이사 중 지역기업체 대표가 자신이 1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태웅정밀기금 2천에 보태어 106명의 아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여 큰 감동이 더해졌다. 처음 기부자를 설득하여 새롭게 진행하게 된 기획모금의 성과가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부천시-㈜태웅정밀, 디딤씨앗통장사업 후원 협약 체결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도당동에 소재한 ㈜태웅정밀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하게 될 때의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대1 매칭 지원(월 3만원 이내)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 자립을 위한 학자금·취업훈련비용·주거 마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106명에게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역내 견실한 중견기업인 ㈜태웅정밀의 후원은 기업의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의 여건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석 ㈜태웅정밀 대표이사는 “아동을 위한 투자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는 “오늘과 같은 따뜻한 온정이 모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들이 될 것”이라며 “디딤씨앗통장사업과 같은 좋은 제도를 널리 알려 기업체의 많은 참여로 이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480여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 개설·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kgmaeil.net/print_paper.php?number=40659&news_article=news_article

⑧ 싱글맘 & 모자가정 지원기금 새생명축하기금 탄생(대형병원 5개 부천희망재단 협약)

2013년 9월 재단 상임이사는 부천시 보건소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병원에서 아기를 건강 하게 낳은 부모와 병원 측이 각각 5천 원씩 기부를 하고 이 금액을 적립하여 싱글맘과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신생아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보건소장은 즉석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다음날 보건기획팀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기획팀장은 부천소재 각 병원 사회사업팀에 이런 내용으로 희망재단이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부천소재 대형병원 사회사업팀 담당자 및 3개 보건소 관계자와 부천희망재단이 참여하여 보건소 회의실에서 희망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를 갖게 된다.

보건소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관계자 및 사회사업담당자들은 각 병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였고, 부천희망재단은 구체적 기금조성 내용을 만들어 2번째 관계자 미팅을 갖는다. 병원장들의 결재를 거쳐 각 병원에 자발적 기부와 모금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만들고 부천시, 보건소 및 병원, 부천희망재단이 보건소장과 각 병원장 부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청에서 '새생명축하기금' 협약식을 체결한다.

새생명축하기금은 새 생명을 얻은 산모 및 가족과 아기가 태어난 병원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기금을 조성하여 어렵게 출산한 저소득가정과 싱글맘 영유아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생명축하기금 나눔사업에는 부천시, 부천희망재단, 부천가톨릭대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세종병원, 서울여성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새생명축하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부천희망재단 공동

부천시(시장 김만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 (사)부천희망재단(이사장 김영호)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생명축하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9월 16일(월) 오후 2시 부천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기금조성을 통해 부천시내 이른둥이를 출산한 저소득층 신생아 부모와 싱글맘의 진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함께하면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원내 새생명축하기금 홍보물 설치 및 성금 모금을 비롯해 아이 탄생아이 탄생에 참여한 의료진, 산모, 부천시민에게 자발적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 권유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또한 부천희망재단은 새생명축하기금 사업을 위한 전용성금계좌를 운영하게 된다. 조성된 기금은 부천시내 이른둥이를 출산한 저소득층가정, 싱글맘의 영·유아 긴급의료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 때 부천시에서 새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며, 부천시민들이 모두 축복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이다."며 "정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이른둥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2>

4) 거버넌스

(1) 비영리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천희망재단은 지역사회에서 돈과 사람, 그리고 교육 등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재단은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을 지원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풀뿌리단체를 지원한다. 재단은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연결하며 공익적 인재를 키우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재단은 지역의 자원을 지역사회 어느 영역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자원을 전문적으로 모으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분하는 중간지원 역할을 하며, 자선을 넘어 사회의 공익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곳에 우선 사용한다.

재단은 지역의 자원을 전문적으로 모금하는 특별한 집단이다. 재단은 부자들의 기부와 더불어 평범한 시민들의 사회공헌과 협력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낸다. 재단은 이로운 일을 하는 지역단체와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단의 힘을 길러야 한다. 지역재단의 힘은 수많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을 통해 공익기금을 만들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사회의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2) 민관 혹은 민민 협력 네트워크 현황

① 거버넌스 사례 1 : 행정 & 공공기관 & 민간기업 간 기부협약 체결

재단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이다. 먼저 공무원월급끝전 기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직장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제안서 검토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부천시 관계 공무원들과 미팅을 통한 협조 요청, 부천시장 면담 등을 통해 2012년에는 1,000여명, 2013년 1,300여명, 현재 1,600여명의 공무원이 월급끝전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행정부의 기부 흐름에 동참하여 부천시의회 의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

들도 월급끝전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2012년 재단 상임이사가 부천시의회 의장과의 미팅을 통해 시의원 월급에서 1만 원이하의 끝전을 기부하는데 동참하길 제안하였고 시의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재단의 요청에 동의하였다. 이후 의원 28명중 2명을 제외한 26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매월 1만 원이하 끝전을 부천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의원들이 3년 동안 모은 월급끝전으로 의미 있는 배분을 하게 되었다. 신학기 초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좋은 가방을 살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책가방을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재단은 이를 기획하고 시의회 운영 위원장과 만나 설명하였으며, 시의회 의원들의 공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하였다. 또한 책가방 업체를 방문하여 시의원들의 월급끝전 모금과정 스토리를 전하고 신학기 책가방 가격의 30%를 할인받았으며, 신학기 초에 부천희망재단에서 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가방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내 월급 명세서 끝전은 '부천희망재단'에
부천시 공무원 월급끝전 모금 운동으로 나눔 실천**

부천희망재단의 '월급끝전 나눔 캠페인'에 부천시 공무원 969명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천시는 6일 오전 부천시청에서 부천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월급끝전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부천희망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천시 직원 2,074명을 대상으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월급끝전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969명의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적립될 기부금을 부천희망재단에 기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천지역 소외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천시의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만원 미만 끝전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일터 속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부천시 공무원의 '월급끝전 나눔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 데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부천희망재단은 나눔과 배려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캠페인을 더욱 확대시켜서 부천시 소재 기업체와 상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확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0>

<http://www.bucheo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44>

② 거버넌스 사례 2 : 1사 1노 사업협약 체결

재단은 지역사회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관심은 물론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시청, 대한노인회 3개구 지회장, 부천타임즈 등 지역언론과 함께 부천시청 노인장애인과의 협조를 얻어 1사 1노 협약(1사업체 1노인정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부천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

부천시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돕고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1사 1 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2일 상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부천상공회의소 조성만 회장, 부천희망재단 김영호 이사장,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주학용 지회장,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 김영대 지회장,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 류영수 지회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발행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351개의 경로당이 있다.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역 사회의 관심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결연 기업체를 모집하고, 대한노인회 3개구지회와 협력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후원물품 및 금품의 지정 기탁 업무는 부천희망재단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홍보 및 취재 지원을 부천타임즈에서 하기로 했다.

기업체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자원봉사, 환경정비, 상담, 말벗되어주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게 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활력과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및 효행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시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이번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의 성공과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8>

③ 거버넌스 사례 3 : 공공기관 & 부천희망재단 간 협약 체결

재단 직원들은 언제 어디에 있던 어떻게 하면 모금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된다. 어느 날 재단이사는 부천시 소재 ‘펼벅기념관’에 가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재단이사는 출입구에 모금함을 놓아두고 입장객들의 후원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관장에게 전달하자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1주일 후 조례 및 내부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모금함 설치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에 부천지역의 유사한 박물관을 모두 조사해보니 단 한 곳도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단은 박물관 위탁을 주고 있는 부천문화재단대표(김용수 대표) 및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펠릭스박물관, 활박물관,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용기박물관 등 부천 소재 5개 박물관 대표들과 함께 나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중 용기박물관에는 특별히 학예사와 논의를 하여 재단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단순한 모금함 대신 용기에 쥘이로된 새끼를 묶고 거기에 숯과 빨간고추를 매달아 특별한 메시지를 넣기로 하였다.

“저희가 모금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 성북동에 있는 최순우 옛집에 갔는데요, 거기 놓인 모금통이랑 방명록 위치를 바꿔주고 왔어요. 지역재단은 어딜 가서든 다른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모금하도록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본 도쿄에 갔다가 도시농업 공원과 광장을 단체가 기부 받아서 운영하는 걸 배웠어요. 부천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시에 제안했거든요. 처음엔 공무원들이 잘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십 수 년 간 방치된 폐정수장을 활용하여 만든 여월도시농업공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배우고 부딪혀 보는 거죠.”[김범용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지역재단 인터뷰 중에서]

④ 거버넌스 사례 4 :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의 꼬마마라톤 기금 기부

꼬마기부천사들의 모금이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거듭나게 되었다. 부천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이 기획하여 매년 9월 ‘꼬마마라톤 대회’를 실시한다. 어린이들이 중앙공원에 모여 마라톤을 실시하고 이들이 참가비로 낸 3천만 원을 부천희망재단에 4년째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 돈은 자신들 또래 미취학어린이들의 희귀난치병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4년째 이어지는 민민협력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간 단체와 민간 지역재단의 협력 사례로 손꼽을 수 있으며, 타 지역사회에 전파되어 꼬마들의 나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부천시 함께 달리며 사랑을 나눠요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저소득층 가정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14회 꼬마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이날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교직원 등 6,000여명이 참석하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중앙공원 조깅트랙을 달리며 건강한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꼬마마라톤 대회는 1999년부터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을 위해 시작된 행사이다. 지금까지 심장병,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천시 아동에게 수술비 등을 후원했으며, 올해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들의 후원금, 어린이들의 성금 등 2950여 만원을 모아 부천희망재단에 전달했다.

이영희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해주신 어린이집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매년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926134139369>

<http://www.bucheontime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3926>

⑤ 거버넌스 사례 5 : 시민참여 파트너쉽 기업사회공헌 파트너쉽

● 어느 날 부천시 작동 전원마을의 마을회장이 재단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매월 마을에서 회장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활동비를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입금하였다.

재단은 현재 후원자가 원하는 가정을 찾아 연결하고 노인과 아들 둘이 살고 있는 가정에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결연을 맺은 가정의 노인은 장문의 감사편지를 희망재단에 매월 보내오고 있으며, 자녀는 이 후원에 힘입어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또한 재단은 그 학생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학재단과 연결하여 장학금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지역시민 1명의 기부가 한 가정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 어느 날 딸의 이름으로 된 현금봉투를 들고 한 아주머니가 재단에 찾아왔다. 사연인 즉 그날 자신의 딸이 결혼을 했고 결혼식 축의금 일부와 그동안 가족들이 각각 한 개씩

모은 저금통 3개를 들고 온 것이다. 딸이 결혼생활을 원만히 잘 해나가길 바란다는 의미로 기부한 아주머니의 저금통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 중 400여만 원을 책정하여 매년 10월 4일을 ‘부천 기부천사의날’로 지정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을 찾아 표창(도지사, 시장, 희망재단이사장 등)을 하고 시민들의 기부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 5일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의 장 마련

부천희망재단이 5일 오후 4시 부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제3회 부천시 기부천사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은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의 사회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운영 중인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5가지’를 주제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플로어 토론으로 ▲공공복지에 기부금 더하기(이영주 부천시 무한돌봄 팀장)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토론회(정현정 유한대 보건복지과 교수)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김은주 부천시의원)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선희 대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5가지’를 주제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종일 부천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시민들과 비영리단체 활동가, 사회복지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부천의 기부와 나눔 문화 활성화에 대해 열린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기부천사의 날은 숫자 1004(천사)와 부천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10월4일로 지정됐으며 부천 지역에 나눔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기부천사를 선정·시상하는 기념식이다.

2013년 1회에는 ‘부천시 승격 40주년’과 함께 최초로 기부천사의 날을 진행하며 19년 동안 한 기관에 기부를 실천한 시민들에게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하며 큰 화제를 끌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획일적인 기념식에서 탈피하고 선진 기부문화의 지역사회공헌을 만들기 위한 실질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토론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08>

◎ 부천시지역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 파워보이스기금

(주)파워보이스 (대표 정희석)는 부천희망재단의 등기이사로서, 상임이사의 기부요청으로 기업에서 매월 150만원을 기부하여 부천희망재단 간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단 운영비 지원(및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전등 스위치를 기탁하는 등 재단을 통해 나눔과 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주)파워보이스,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전등스위치 기탁

부천시는 지난 24일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음성인식 전등스위치 100개를 (주)파워보이스(대표 정희석)로부터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음성인식 전등스witch는 “나래야 안방 불켜”등 말로 명령을 내리면 음성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제공 및 설치될 예정이다.

스위치를 전달한 (주)파워보이스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춘의테크노파크에 있으며, 자체개발한 음성인식 전등스위치로 활발한 해외수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전달식에서 정희석 대표는 “이 스위치가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준비했다. 앞으로 스위치를 정기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7>

<http://www.hopefoundation.or.kr/rb/?r=home&c=001005/001005003&uid=536>

- 한일오닉스기금

(주) 한일오닉스(대표 황윤대)는 2015년 4월 14일 부천희망재단에서 협약식을 갖고 매월 100만원씩 재단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일오닉스는 클럽하우스, 유명호텔, 골프장 등의 대형시설 주방을 디자인·설계·시공하는 곳으로 황대표는 이미 여러 곳에 장학금과 기부금을 기탁해오고 있어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인재 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회사설립 후 12년 동안 주방용품 설계·시공 관련 특허를 받으며 국내에서의 성공은 물론 세계 각국의 나라에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기업 사회공헌기금 뿐 아니라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하겠다...

(한일오닉스 황윤대 대표, <http://www.bucheo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241>)

5) 인적자원

(1) 재단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전반에 관하여 공무원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욕구, 지역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민·관·기업 등의 자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지역 시민사회와 상공인 행정부 시·도 국회의원 등 이른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며, 그 경우 지역사회에서 재단의 사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다.

상임이사는 정치를 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투명하게 행동하여 덕망 있고 신뢰받는 인사가 적당하다. 또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도시생활 디자이너이어야 하고, 모금기획자이어야 하고 정당과 종파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져야 하며, 지역재단을 잘 이해하고 재단 사무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 모금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잘 이해하고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지역재단에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전 부천에서 30년 동안 있었어요. 저는 YMCA랑 부천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그래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설득시킬 때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의 요구가 정말 '진심이고 간절하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지 할 수 있죠. 지역재단 일도 마찬가지예요.”(2015.3.25. 김범용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인터뷰 중에서)

(2) 이사진, 사무국장, 간사 등

● 이사회

이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는 기업인, 시민사회, 종교, 사회복지, 학계 등의 리더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다.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재력을 갖추고 향후 재단 정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액기부자가 이사회 구성원 중 50% 이상이 되어야 좋다. 나머지 50% 이사진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재단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가까이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다. 이사진 중 재력가는 자신들이 직접 특별기금에 출연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내려면 아주 유연해야 해요. 모두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되면, 사람들에게 특정 세력의 것이라고 낙인찍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사 선임에도 신중했어요. 모금위원회에는 돈 많이 모아본 사람이 들어와야죠. 경영학 교수나 기업인사도 포함됐고요. 아는 사람들의 자원만 끌어쓰면 뭐 하겠어요. 담쟁이 타고 가듯이 줄 타고 사람들을 엮어가는 사람들이 모금위원회죠. 배분위원회에는 ‘이분들은 욕심 없이 공모 심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믿을만한 사람들이 포진되어야죠.” (2015.3.25. 김범용 이사, 희망제작소와의 인터뷰 중에서)

●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역재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회계, 경영, 모금기획 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와 사무국 업무를 신속하게 연결하고, 지역사회를 상임이사에 준하여 파악함으로써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사회 임원들을 세세히 챙겨야 한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지시하는 창의적 모금관련 기획에 대해 각종 자료들과 통계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은 재단과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한다. 지역의 문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비전과 지역의 현실을 잘 통합하여 재단의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사무국 간사

사무국의 간사는 비영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과 배분/ 감사인사/기부금 사용보고서/기부자 예우 등을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부자 모집(지역재단 참여)의 경험이 없는 모금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역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 모금기획 등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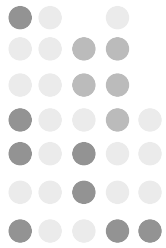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지역재단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투명성을 요구받는 곳이기에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멤버로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모든 살림살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낸다. 또한 감사는 세무사라는 전문 직종을 활용하여 재단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 기업인을 접촉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잘 알고 있기에 기업에 기부의사를 묻기도 하고 재단에 기업을 연계하기도 한다. 106명 아동의 디딤돌씨앗기금을 만들어준 (주)태웅정밀 대표이사의 기부의사를 확인하고 재단과 연결하여 3천만원 기부를 성사시킨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6) 지역변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천은 1980년대부터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면서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활동가들의 끈끈한 유대감 및 관계망이 형성된 것이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초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2000년대 들어서 강희대 시민상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지역재단의 토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을 비롯하여 우리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기부 의식 및 나눔문화가 아직까지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력하나마 부천희망재단이 기부 의식 및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부천희망재단 설립 이후 부천시 행정부,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 지역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나눔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날로 높아져 나눔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에서 작은 돈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위해 기부는 부천희망재단에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들의 돈을 지역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역재단에 대한 기부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주로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기부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이제는 단순한 시혜 및 자선을 넘어 보편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다. 그를 통해 지역재단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에 대한 기부 및 후원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천희망재단이 설립 이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부를 받으며, 조성된 기부금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 해외사례 및 시사점



IV.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해외 지역재단 사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임팩트·레버리지·경영이라는 기술적 이슈와 민주주의·정보·언론이라는 가치 지향적 주제를 다룬다. 즉, 전자가 제임스 어바인재단’과 ‘멘도시노 카운티재단’ 등 9개 지역재단이 참여한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I’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재단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은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면, 후자는 ‘나이트재단’과 뉴저지지역재단 등 4개 지역재단이 참여한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를 통해 “지역 언론과 매체의 역할, 자원으로서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공유가 지역사회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과정과 결과에서 지역재단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지역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 1914년 클리블랜드재단 설립 이래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2014년 현재 750여 개의 지역재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총 자산 가치는 약 579억 달러(약 60조 원), 연간 사업비는 약 43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 미국의 지역재단은 클리블랜드·실리콘벨리·시카고·뉴욕·캔자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자신이 스스로 진화되어 온 예도 있지만, 지역이라는 주제를 두고 사립재단(독립재단, 가족재단)³⁰⁾과의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해 진화해 온 예도 있다. 특히 후자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 민간 재원(사립재단)이 지역사회 변화의 촉매자 및 집행자로서 지역재단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진화해 왔는지, 사립재단과 제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지역재단은

30) 재단은 크게 사립재단(private foundation)과 공공재단(public found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사립재단’은 비정부·비영리기관이며 기본재산 혹은 기본출연금을 갖고 있다. 이는 자체 이사회를 통해 관리 운영되며, 자선·교육·종교 및 기타 공익 분야 비영리기관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공공재단’ 역시 비정부·비영리기관이기는 하나, 그들의 재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재단도 자체 이사회를 통해 관리 운영되며,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 임무로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금지출처 및 지출에 따른 테스트를 거쳐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단체 및 기관은 사립재단으로 분류해서 과세의 기준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공공자선단체’로서 공공재단으로 분류되며, 사립재단과는 다른 세법상의 지위를 갖는다. 이외에도 미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소산에 기반을 둔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설립된 재단으로, 설립자들이 기부금조성 및 재정지원 과정에 일정하게 관련된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가족재단: family foundation)’, 독립재단과 유사하나 기업에 의해 설립된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 전형적인 재단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 그리고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이다.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 왔으며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해 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장에서는 민간재원(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단 역량강화 및 리더십,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제임스어바인재단(James Irvine Foundation, 이하 ‘어바인재단’)³¹⁾과 ‘멘도시노카운티재단(Mendocino Foundation)’ 등 9개 지역재단이 참여한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I(Community Foundations Initiative II)’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언론과 시민사회, 민주주의, 지역사회 등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³²⁾과 ‘뉴저지 지역재단(New Jersey Community Foundation)’ 등 4개 지역재단이 참여한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Knight Community Information Challenge, KCIC)’를 사례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사례가 국내 지역재단에 시사해주는 바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1.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이다. 더욱이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와 공생 관계에 있는 비영리분야의 단위 조직에는 생존과 직결된 주제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 31) 제임스 어바인재단은 1937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제임스 어바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어바인은 현 오렌지카운티의 1/3을 소유할 정도로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했고 각종 농산물을 생산했다. 그 후 부동산 개발로 자본 전환을 해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1947년 어바인 사후 그의 재산은 재단에 유증되었고, 1977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어바인 주식회사(Irvine Company)의 주식을 매각했다. 주로 청소년 분야, 예술 분야, 캘리포니아 민주주의와 공공정책 분야가 주된 지원 분야이다 (<http://www.irvine.org>). 2013년 말 현재 자산규모 19억 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48위에 올라 있다 (Top Funders, 미국재단센터).
- 32) 나이트재단은 1940년 나이트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를 기리며 Knight Memorial Education Fund를 오하이오 주 애크런에서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부친 때부터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 활동했던 나이트 가문은 신문사를 통해 그들의 부를 축적해 왔다. 1950년에 나이트재단으로 재단의 이름을 바꿨고, 1972년에는 나이트 형제의 모친이 사망할 때 재단에 기증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재단은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 교육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번에 걸친 리더십 교체는 사업 영역 및 지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대중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저널리즘, 미디어 혁신, 참여와 지역사회,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나이트 형제가 신문사를 운영했던 26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애크런을 비롯한 8개 도시에는 직접 사무소를, 나머지 18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http://www.knightfoundation.org>). 1981년 형인 Jack가, 1991년에는 동생인 Jim이 사망하면서 그들의 재산이 재단에 기증되었고, 재단의 자산은 상당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3년 말 현재 자산규모 24억 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31위에 올라 있다 (Top Funders, 미국재단센터).

‘지역사회’ 혹은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존재하는 지역재단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어바인재단이 기획·실행한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 / II(이하 ‘이니셔티브 I / II’)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리더십 향상 및 촉매자로서의 역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표 IV-1-1 참조). 특히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니셔티브 II는 어바인재단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지역재단 이니셔티브’(Community Foundations Initiative)의 두 번째 시도이다. 이는 사립재단인 ‘어바인재단’과 캘리포니아 주 소재 ‘멘도시 노카운티재단’ 등 9개의 중소규모 지역재단의 파트너십 사례로서 사립재단이라는 민간자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단의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IV-1-1〉 어바인재단의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 II 비교
(Community Foundations Initiative I, II, Irvine Foundation)

	이니셔티브 I	이니셔티브 II
기간	1999-2003(5년)	2005-2011(6년)
참여재단 수	7개 지역재단	9개 지역재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촉매로서 능력을 포함, 자선과 나눔의 능력을 증진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 지역, 9개의 소규모 지역재단의 리더십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교훈/학습과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verarching Assessment of the Community Foundations Initiative (2003)</i> <i>Eyes Wide Open: Deciding When To Launch A Community Initiative (2003)</i> <i>Community Catalyst: How Community Foundations Are Acting As Agents For Local Change (2003)</i> <i>What Does It Take? Attributes of Effective Community Foundations Chief Executives (2003)</i> <i>Matrix for the Overarching Assessment of the Community Foundations Initiative (2000)</i>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earning to Lead: The Journey to Community Leadership for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s</i> <i>Sizing Up: Strategies for Staffing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s</i> <i>On Board: Engaging the Full Potential of Community Foundation Directors</i> <i>Growing Smarter: Achieving Sustainability in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s</i> <i>Reaching Out: Board Ambassadors for Growth in Community Foundations</i> <i>The Four Ps of Marketing: A Roadmap for Greater Community Foundation Visibility</i>

출처: <https://www.irvine.org/special-initiatives/priority-regions/community-foundations-initiative-2>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지역재단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Growing Smarter’³³⁾에서는 키워드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해 “지역재단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용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미래 유지가능성(환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위키 백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의 객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능력(HRD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등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환경적 이슈와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해 국가 및 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결국 지역재단을 둘러싼 지속가능성은 ‘미래’와 ‘자원’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사명’을 갖는 비영리조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적 상황, 즉 비영리부문이 상대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는 지역재단과 민간 사립재단과의 파트너십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특정 지역사회에 사립재단(어바인재단) 펀드의 재배분,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을 둔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확산, 기부자·후원자 및 지역 리더들의 참여와 효과적·전략적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등은 이들 이니셔티브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거의 모든 지역재단은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성장(grow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성은 성장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람직한 성장의 패턴을 정의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더구나 소규모 지역재단은 기존의 대규모 지역재단보다 좀 더 신속한 적응, 민첩한 움직임, 그래서

33) ‘새로이 출현하는 지역재단과 지속가능성’(Achieving Sustainability in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니셔티브 II는 대규모의 기존 지역재단이 대상이 아니라 새로이 출발하는 혹은 재출발하는 소규모 지역재단, 대도시 지역보다는 중소 도시 혹은 농촌지역의 지역재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한 대부분의 지역재단은 2명 이하의 전임 직원, 1,000만 달러 이하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니셔티브 II에 참여한 9개의 지역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자산 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6개의 지역재단을 추가하여 총 15개의 지역재단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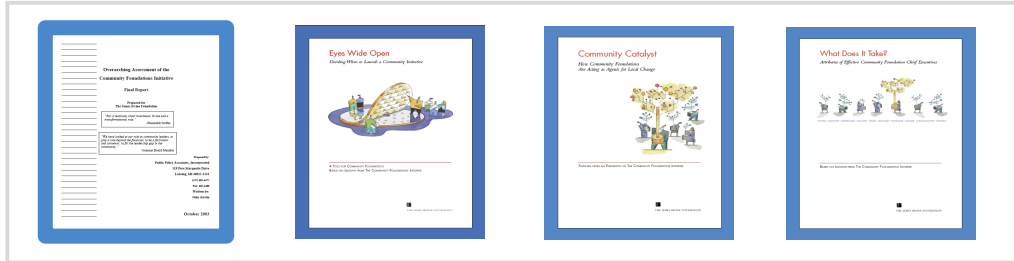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 만큼 이들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나이트재단과 뉴저지지역재단 등 4개 지역재단이 참여한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 사례는 ‘언론과 민주주의’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사립재단과 지역재단 파트너십의 또 다른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왜 중요하며, 이것이 왜 근간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재단은 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2. 지역재단과 지속가능성

1) 어바인재단과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표 IV-1-1〉에서 보듯이, 어바인재단의 ‘지역재단이니셔티브 I’은 캘리포니아 주 내 7개 중소규모 지역재단(자산기준 2,500만 달러부터 1억 2,700만 달러)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 지역재단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 능력을 확장하는 것, 지역재단 고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과 나눔(philanthropy)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1차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정치·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구성원들의 깊은 신뢰는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자선과 나눔 자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점, 세금공제라는 도구적·현실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는 Community Catalyst: How Community Foundations Are Acting As Agents For Local Change (2003) 외 4종의 보고서로 정리되었다(그림 IV-2-1 참조).



[그림 IV-2-1] 어바인재단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의 결과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진행된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지역재단의 리더십 구체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재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의 9개 중소규모 지역재단(자산 기준 300만 달러부터 1,700만 달러)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참여한 각 지역재단의 핵심적 지원 사업 및 지원기관으로서 역량 및 기술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어바인펀드 재지원(Irvine Fund regrants)’이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각 지역재단에 대한 직접 지원,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t)을 강화한 것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클리블랜드·뉴욕·실리콘밸리 등 대규모의 지역재단보다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새로이 출발하거나 혹은 재출발하는 지역재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단위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3자, 즉 외부컨설팅 팀을 통해 평가를 하였으나 지역재단의 지원대상인 NPO를 통해 지역재단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NPO의 역량개발과 강화에 각 지역재단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원개발, 지역사회 지원, 기부자 참여, 전략경영, 이사회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역재단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자 파트너라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풀뿌리 NPO가 보여주는 긍정적 성과는 지역재단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 편익이 증가했음을 나타

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역재단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그림 IV-2-2>에서 보듯이, Growing Smarter: Achieving Sustainability in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s 의 5종의 보고서로 정리되어 출간되었다. 각 보고서는 출간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주제는 ‘이니셔티브 I’부터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지역재단의 리더십과 지속가능성의 주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림 IV-2-2] 어바인재단 지역재단 이니셔티브 II의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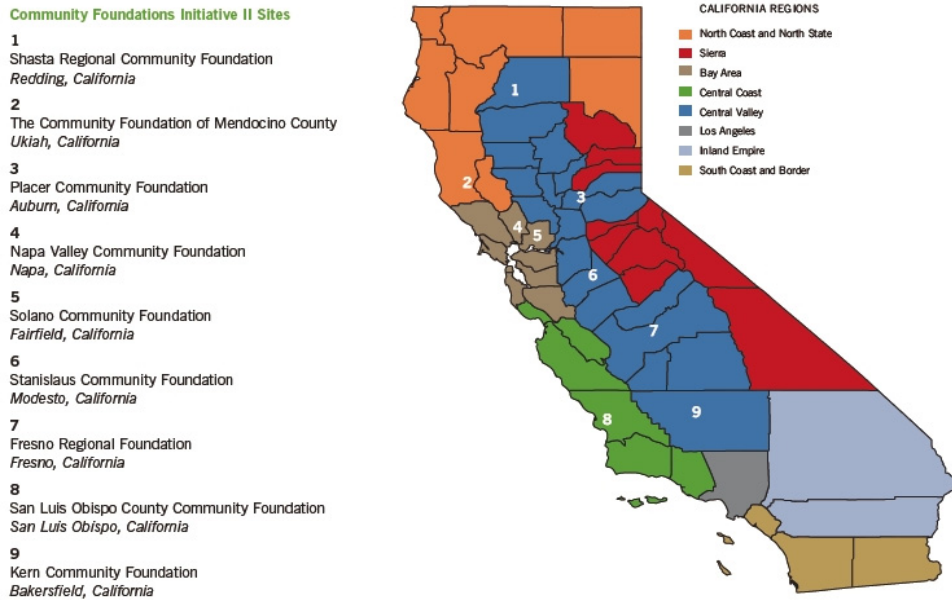
보고서 ‘Learning to Lead’는 ‘지역재단 발현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을 향한 여정’이란 부제에서 보듯이, 지역재단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실천되었는지 7개의 지역재단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소외된 자들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리더십의 본질로 정의하고, 비영리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중요 이슈를 해결하는 것, 지역사회 내의 주요한 행위자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을 리더십의 구체적 역할로 상정한다. 물론 각각의 사례가 구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재단 리더십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 경험과 사례는 ‘Reaching Out’와 ‘On Board’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특히 지역재단의 이사진의 기능과 역할을 외교사절로서 혹은 한 국가를 대표

하는 ‘대사’(ambassador)에 비유함으로써 지역재단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마음가짐·역할·행동에 달렸음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The Four Ps of Marketing’과 ‘Sizing Up’은 지역재단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의 원칙과 적용,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및 경영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각기 언급한다. 특히 The Four Ps of Marketing은 기존 영리 조직에 잘 알려진 마케팅믹스(marketing mix)의 원리와 이에 기반을 둔 4P를 ‘개인 접촉’(personal contacts),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advisors), ‘파트너십’(partnership), ‘대중의 인식’(public awareness) 등으로 치환함으로써 지역재단의 상황과 환경에 그 원리를 응용하고자 했다. 결국, 모든 지역재단이 접하고 있는 예산의 한계, 즉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해야만 하는지, 투자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배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재단의 고민을 ‘이니셔티브 II’에 참여한 지역재단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간다.

‘Growing Smarter’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지역재단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보고서 중 가장 먼저 나온 결과물답게 지역재단에게 ‘성장’(growth)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답은 자산(assets)의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사명(mission)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재단에게 빠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가능’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보고서는 각각 그 말미에 워크시트,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슷한 배경을 갖는 지역재단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 사회 사회적 문제 해결과 나눔 및 기부문화를 둘러싼 제도적 선택으로서 지역재단, 이러한 제도가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적 상황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응용해 본다면 좋은 안내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2-3] '이니셔티브 II'에 참여한 지역재단의 지리상 분포

(출처: Growing Smarter, p.3)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전통적 상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자산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다. 이는 새로이 시작하는 소규모 지역재단에도 예외는 아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자산이 5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재단만 놓고 보더라도 자산 규모 면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정의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증가된 모든 자산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이란 자산의 증가에 기반을 둔 '성장'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장의 패턴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선택·성취,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과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냐는 이슈에서 사명에 복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의 이슈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표 IV-2-1>에서 보듯이,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 이끄는 세 가지 방법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표 IV-2-1> 지속가능한 성장과 접근 방법

관리 경영적 접근 (controlled approach)	참여적 접근 (engaged approach)	레버리지 접근 (leveraged approach)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라.”라는 마음가짐	“우리의 활동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가짐
조직의 안정과 독립성을 강조. 조직 확장과 이에 상응하는 운영 비용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이에 대한 경영적 마인드를 강조.	관계 구축(relationship building) 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 일종의 지역활동가, 시민활동가들의 접근 방법. 지역사회의 욕구를 강조.	파트너십을 통한 규모의 경제, 범위의 확대를 강조. 영향력 있는 지역인물을 참여하도록 독려, 다른 지역과의 파트너십, 그뿐만 아니라 매칭 펀드 전략을 채택하기도 함.

아울러 언급한 세 가지 접근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조직을 둘러싼 경제적 원리와 환경을 얼마나 철저히 이해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경제적 동인(drivers)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표 IV-2-2 참조).

<표 IV-2-2> 네 가지 유형의 경제적 동인(drivers)

우선순위 (priority)	가격 (price)	수입 (revenue)	비용 (cost)
생산되는 서비스 및 재화와 지원 펀드의 우선 순위 명확성	비용 및 기부자의 인센티브를 감안한 제품 서비스 가격의 결정	자원 출처의 다원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입구조의 창출	원가비용 구조의 이해와 관리운영

이들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세 가지 접근 방법(관리 경영적, 참여적, 레버리지적)과 네 가지 동인(우선순위, 가격, 수입, 비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1) 문제 제기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장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재단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성장, 즉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500만, 1,000만, 5,000만 달러 등등의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fee)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효율성과 영향력을 낼 수 있다.

즉, 그들의 능력·영향력·가치를 지역사회에 확대해 가기 위해서 재단은 재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신생 지역재단의 경우 이런 유형의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재단의 자산 확대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만 볼 수도 없으며, 재단의 자산을 단순히 달러가치로만 환산할 수는 없다.

이들의 경험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른 시일 안에 자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나, 일정 목표에 다다르게 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 즉 “1,000만 달러의 목표 달성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질문, 즉,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조직을 영똥한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으며, 더구나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와 함께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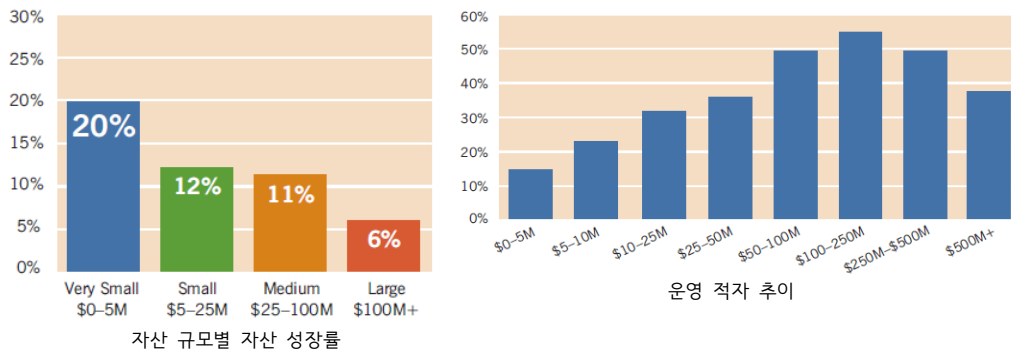
자산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혹은 얼마나 더 빨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나, 이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성장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조직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전략과 선택

①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IV-2-4〉에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재단의 자산의 성장률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일정 자산 규모로 성장해 가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자산 규모 단계별로 서로 다른 시간을 요구한다. 즉 1995년과 2005년 사이 자산규모 5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지역재단들은 평균적으로 2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지만, 이런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간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규모가 커지면 운영비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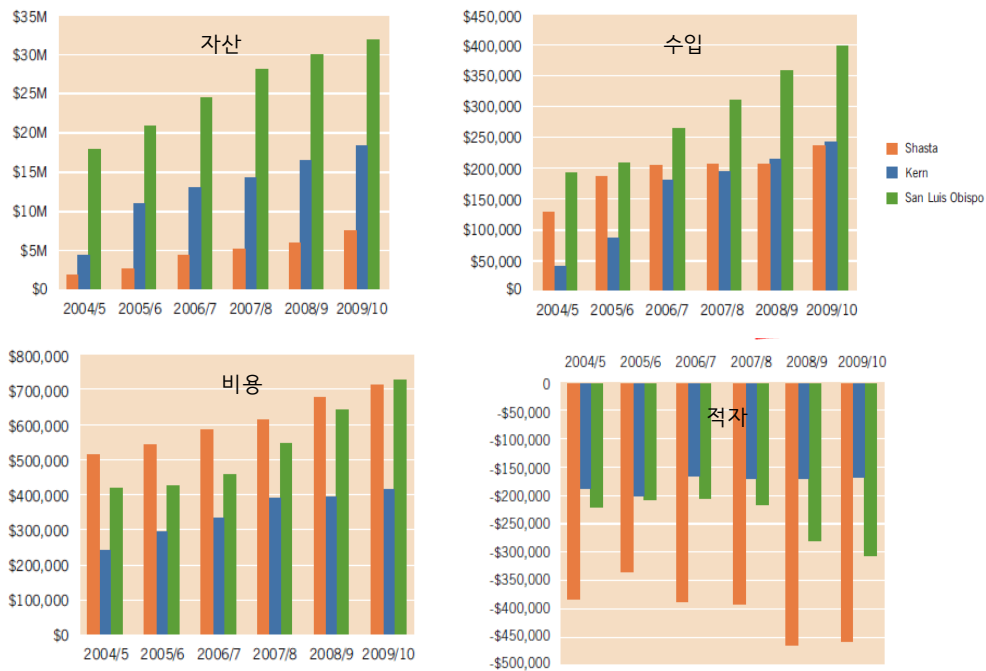


[그림 IV-2-4] 자산 규모별 자산 성장률 및 운영 적자 추이(1995~2005)

(출처: Growing Smarter, p.11, 12)

[그림 IV-2-5]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3개 지역재단의 자산, 수입, 비용, 적자의 추이와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 정리해 놓은 그래프다. 이는 ‘성장의 패러독스’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수료 등 수입이 증가하지만, 아울러 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많은 수의 소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결국, 수입 대비 비용을 따져보면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말해주고 있다.



[그림 IV-2-5] 3개 지역재단의 자산, 수입, 비용, 적자 추이—Shasta, Kern, San Luis Obispo
(출처: Growing Smarter, p.13)

다시 말해 이는 자산의 규모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지역재단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란 자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만이 아닌 이를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공'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고 묻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우리의 목표가 뭐냐고 묻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역량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이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재단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자신의 사명을 장기적

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한 자원의 효과적 운영 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며,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이란 자신의 비전과 기회를 주의 깊게 따져볼 수 있는 능력,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원리와 요인들을 분석·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의 목표를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선, 기금조성자(grantmaker), 즉 기부자들로 하여금 재단 활동과 관련된 기부금 조성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즉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사진, 자문 전문가그룹, 그리고 현재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추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부자를 받아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자원이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성장의 목표다.

지역 언론매체에 기회가 될 때마다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재단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액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재단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목표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체 수입에서 기부자지정기금(donor-advised fund)의 수수료 수입 비중을 점차 높여감으로써 재단의 지출 비용에서도 이들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³⁴⁾

끝으로 지역사회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재단이 지역사회의 나눔의 저수지가 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시적이고 양적인 자산의 규모도 중요하나 소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나눔의 문화

3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모금액의 15%를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기부금품법’은 규정하고 있다. 비용 충당 비율을 놓고 현장에서는 기부자는 기부자대로, 모금처는 모금처대로 서로의 관점에 따라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비가시적 요소에 대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 능력의 확대라는 질적 요소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고 성장이라는 주제에 접근해 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성장의 방법은?

성장의 목표를 나름대로 정의했다면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간략히 언급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접근법, 즉, 관리경영적·참여적·레버리지적 접근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관리경영적 접근(controlled approach):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접근법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조직의 안정과 독립성을, 그리고 조직 확장과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용에 대한 관리 조절 및 이에 대한 경영적 마인드를 강조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각종 비용을 전체 경영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관리하면서 다면적이고 창의적 전략을 구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활동이 제한될 수도,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그리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재단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no”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관리 운영비 지출만을 위한 운영기금(operating fund) 등의 확보와 같은 대안을 통해 우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접근법은 지역구성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재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표 IV-2-3〉 [사례] Greater Green Bay Community Foundation(Wisconsin)

1991년 재단 설립자들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운영기금(operating fund)을 모금하기로 약속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2,500만 달러의 기금이 모이게 되고, 설립자들은 이자소득의 1%를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1998년, 재단은 그 다음 단계로서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재단의 존재를 알리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재단은 여러 노력 끝에 켄 스톰스카를 CEO로 임명했다. 그의 구체적인 임무는 지역사회 내에 비영리조직을 위한 특정 기금을 개발하고, 이들 조직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모금캠페인을 위해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전제로 했다.

재단 및 지역사회 리더들은 이런 활동이 지역재단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 기대의 저변에는 재단이 상대적으로 기부자의 영향력이 덜한 비지정 기금(unrestricted fund) 개발에 힘쓰는 것보다는 비영리조직과 함께 일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전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개별적으로 기부자들과 파트너를 맺어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고, 법률가, 교육자,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회계사와 같은 지역사회 자문 전문가집단 및 잠재적 자문가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은 자산 규모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확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재단이 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지를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의 운영관리, 사무실 공간, 일반 운영 관리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 인접 지역재단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전략적인 기술 관련 투자 비용 절감,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 전반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 참여적 접근(engaged approach)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라.”라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이 접근법은 관계 구축(relationship building)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원결정과정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대사’(ambassador)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들이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급박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재단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갖는 책무성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재단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조직 구조나 제공 서비스를 지역사회 욕구에 맞추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다수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관계 구축의 기술적 측면, 다차원적인 복잡한 계획과 동시 다발적 운영, 스태프 또는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인적 자원 운영 기술 등 이에 상응하는 경영 관리 능력은 이 접근 방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표 IV-2-4 참조).

〈표 IV-2-4〉 [사례] The Community Foundation Serving Boulder County(Colorado)

1991년, 지역 신탁인 ‘채리터블 리마인더 트러스트’(Charitable Reminder Trusts)를 흡수 합병하여 시민사회 리더들에 의해 지역재단이 설립되었다. 1994년 이사회에서 전략과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1) 대도시 혹은 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역재단과 제휴해야만 하는가? 2)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대부분의 이사진은 이왕지사 설립된 지역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기 바랐다. 재단 CEO인 조지 히스에 의하면, 당시 기부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재단의 활동을 전개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어 창의적이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당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이후 재단은 ‘재출발’이라는 모토아래 지역사회 비영리조직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초점을 맞췄고, 비영리조직을 향해서는 “우리는 당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또한 재단은 이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의 (모험)사업가적인 정신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이 사명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단은 우선 자원이 한정되기는 했었지만, 비영리부문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고, 포상 제도를 만드는 등 적극적 독려와 함께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밀레니엄트러스트(Millennium Trust)는 재단의 존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모든 사람들이 기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매년 기부자들을 배분위원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였다.

최근에 재단은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육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cultureofgiving.org라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 개별 기부자와 지역 비영리조직을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역차원의 클라우드펀딩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모금도 모금이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고 절실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다.

재단이 정의한 ‘성장’이란 지역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재정 면에서 재단의 지출 비용은 수수료 수입과 후원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매년 25,000달러, 15,000달러, 혹은 10,000달러 정도의 후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CEO인 조지 히스의 말대로, 재단은 현재 수수료 수입으로 비용 지출의 72%정도를 감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점차 직접적으로 후원받는 방식을 줄여가면서 비율을 높여 갈 예정이다.

재단은 또한 ‘15 For Ever’라는 캠페인을 통해 비지정기금(unrestricted fund)을 늘려왔다. “올해가 재단 15주년입니다. 비지정기금의 한 형태로 우리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고 3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재단이 15살이 되는 올해,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15,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라고 조지 히스는 힘주어 말한다.

2000년에 800만 달러였던 재단의 기본자산이 2005년에는 3,1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지금까지 1,300만 달러를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런 양적 성장은 재단의 사명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진행되었으며, 참여적 접근(engaged approach)이라는 대전제를 기초로 한다. 특히 관계 구축,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지역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및 독려가 이들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 레버리지 접근(leveraged approach)

“우리의 활동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한 범주 또는 범위의 확대를 강조한다. 영향력 있는 지역 인물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다른 지역과의 파트너십, 매칭 펀드 등이 이 접근법과 관련된 주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의 분산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넓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휴, 이를 위한 새로운 기부자 발굴, 사회변혁적·도전적 성격의 펀드 조성, 사립재단과의 제휴 모색 등 구체적 실천은 지렛대 효과를 염두에 둔 재단의 활동과 사업이다(표 IV-2-5 참조).

〈표 IV-2-5〉 [사례] Community Foundation of the OZARKS(Missouri)

1973년 미주리 스프링필드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시작하여 비영리조직으로, 지역재단으로 발전해 왔다. 1988년부터 1999년 사이 자산은 1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름 흥미로운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좀 더 지역사회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New Venture in Philanthropy’라는 농촌지역의 기부와 나눔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제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이나 이니셔티브는 심한 경쟁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는 곧 재단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기회로 지방 정부 및 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농촌 지역의 리더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 여러 농촌지역에 소규모의 부설 지역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욕구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밖으로 나가 뭔가를 더 얻어오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전략을 택했던 것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우선 신뢰를 받는 지역사회 소규모 그룹과 같이 일을 시작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점차 더 큰 그룹으로 확대해 갔고, 유기적일수록,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이 주도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이후 재단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재단은 소규모의 부설 지역재단을 도왔는데 주로 기술적인 것과 운영 관리적 것들, 그리고 이사회와 기부자 개발, 세미나, 컨퍼런스 등과 같은 지역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특히 지역 사무소와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분권화된 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 이사이자 현 CEO인 그레이 핑크는 “우리는 이중적 삶을 삽니다. 스프링필드에서 우리는 시민활동가이지만, 조직으로서 우리는 다른 지역재단을 발전시키는 데 온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헌신적인 스태프들입니다. 그들은 여기 오기 전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들로 대부분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총 1억 2,700만 달러의 자산 중 부설 지역재단이 460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 1999년 출발 당시 이들의 자산이 현재 총 자산의 1% 이하였다는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엄청난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산 규모 면에서 이들 부설 지역재단에 대한 투자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이는 재단이 큰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③ 사명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성장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관리경영적·참여적·레버리지적 접근만으로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명 완수를 이룰 수 있을까? 보고서는 세 가지 접근법과 함께 지역재단을 둘러싼 경제적 원리와 동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선 내용이 전략적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들 부분은 전략적 선택을 뒷받침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다. 한국의 지역재단 발전 정도에 견주어 볼 때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한국 지역재단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실천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펀드 및 서비스의 우선순위 명확히 하기

비용과 수입 등 지역재단을 둘러싼 경제적 원리와 동인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어떤 형태의 기금이라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경제적 프로파일을 분석,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2-6>은 크렌지역재단의 사례다. 기금성펀드(endowed fund)는 자산만을 대상으로, 비기금성펀드(non-endowed fund)의 경우는 자산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포함하여 수수료를 상정한다. 이는 고정된 지출 구조를 가진 기금성 펀드와 기부자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지원이 결정되는 비기금성 펀드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수입과 지출비용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재단이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것을 지역 내 유사 기관으로 이관한다거나, 외부 기부금을 받은 데 대해 무조건 수용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사명을 염두에 둔 선택을 한다면 자산의 규모 증가는 다소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표 IV-2-6〉 펀드의 종류 및 규모와 실제 원가 산출 내역(Kern Community Foundation)

펀드	평균 자산	년간 지원액	수수료
기금(endowed)	\$500,000	\$25,000	자산의 2% = \$10,000
비기금(non-endowed)	\$500,000	\$100,000	자산 및 지원액의 2% = \$12,000
비기금(non-endowed)	\$500,000	\$250,000	자산 및 지원액의 2%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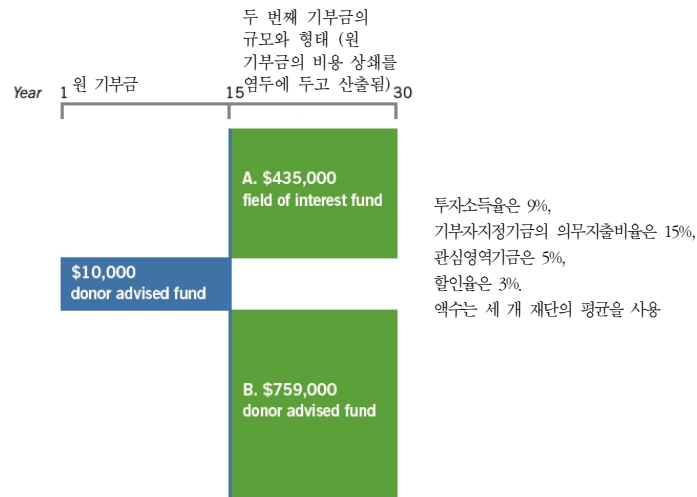
출처: Growing Smarter, p.23

나. 비용 요인과 기부자의 인센티브 및 가격 정렬하기

경제적 원리와 동인에 대한 분석은 지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합리적인지, 기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지 등 기존의 틀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 펀드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 이들 소액 펀드 기부자들이 추후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후에 큰 액수의 금액을 증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재단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많은 수의 소규모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당장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 IV-2-6〉에서 보듯이 만일 10,000달러의 소규모 지정기금을 15년간 운영한다면, 여기에 들어간 관리운영비는 특정 관심 영역 기금(field of interest fund)의 경우 435,000달러, 기부자지정기금(donor advised fund)의 경우는 759,000달러를 기부금을 받아 다시 15년간을 운영해야만 동일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고서는 이렇듯 기부자 개인을 중심으로 적은 규모의 펀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여성&소녀 펀드’(Women’s and Girl Funds)의 예와 같이 기부자들의 공통 관심영역별로 특정 영역 혹은 주제의 펀드를 만들어 좀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Luis Obispo County Community Foundation, Kern Community Foundation의 예).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운영비를 염두에 뒤야만 하겠지만, 많은 수의 소규모 펀드를 지역 재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효과 면에서 수월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는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와 나눔 문화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재단은 기부자들의 욕구와 관심, 전망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독려하는 방법과 정책을 끊임 없이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수료나 서비스의 가격 등의 기술적 이슈로부터 사명, 지속가능성 이슈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확장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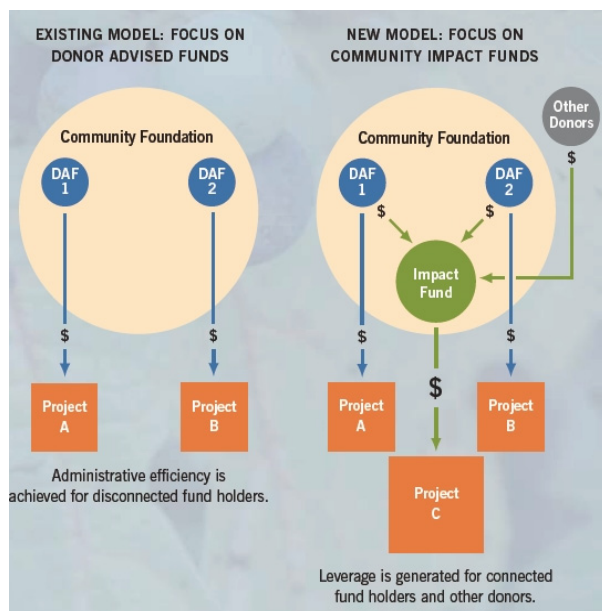
[그림 IV-2-6] 소규모 펀드의 상쇄 효과

(출처: Growing Smarter, p.25)

다. 자원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 꾸준한 수입 구조 만들기

여러 경제적인 동인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가격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비의 출처를 다변화, 다양화시킴으로써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지역재단은 운영비의 90% 이상을 수수료로 충당하지만, 조사대상인 새로이 출발하는 젊은 지역재단은 평균 36% 정도만을 충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이는 수수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구조를 개선해 보려는 대안 모색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운영기금(operating endowment)이나 행정관리기금(administrative fund)의 설치를 통해 운영관리비를 위한 별도의 출처를 만들거나 혹은 <그림 IV-2-7>에서와 같이, 기존의 기부자지정기금과 또 다른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들여 별도의 제3의 펀드, '커뮤니티 임팩트펀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지역재단의 능력과 역량이 밀반침되어야 하겠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거나, 지역의 소규모 사립재단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는 다거나, 사립재단의 지역사회에 대한 재지원(re-granting service) 프로그램을 위탁받는 등 다양한 수입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위치를 사이에 두고 사립재단이 프로젝트 단위로 지역재단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본 사례의 대상인 어바인재단과 나이트재단의 이니셔티브와 같이, 해당 지역의 지역재단과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소위 상생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임팩트펀드'(CIF)는 레버리지와 전문성을 통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 낸다는 데 차이점이 존재한다. 왼쪽이 기존 기부자지정펀드고, 오른쪽이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한 '커뮤니티 임팩트펀드'다. 왼쪽 펀드는 펀드 기부자들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오른쪽 펀드는 기부자지정펀드의 기부자는 물론, 취지에 동의하는 또 다른 기부자들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각기 독립적인 펀드로부터 또 다른 펀드를 생성해내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기부자들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IV-2-7] 모델 비교(기부자지정펀드 vs. 커뮤니티 임팩트펀드)

(출처: Growing Smarter, p.27)

결국, 수입 증가의 필요에 대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펀드 기부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부와 나눔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표 IV-2-7 참조).

〈표 IV-2-7〉 [사례] Napa Valley Community Foundation(California)

1994년 이래로 1,0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지원사업을 해 왔으며 기부자지정기금이 주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한번은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재단이 지역 내 여타 조직들과는 다른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단의 리더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있었다. CEO인 테렌스 물리건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만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후,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빌게이츠재단에 기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듯이, 지속가능성, 임팩트, 혁신, 지역재단의 상대적 수월성 등등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고안해 낼 것인가가 이사진에게는 항상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테렌스 물리건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지역재단의 모델에 대해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다.

“1년 전쯤인가 나는 ‘기부와 나눔을 위한 은행’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행에 구좌를 하나씩 갖는 예금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기부자들이 어디에 돈을 써야할지 고민을 할 때 은행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미술 톱니바퀴 상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커다란 임팩트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즉, 기부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 가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레버리지, 임팩트와 같은 것들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진과 스텝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리건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5,000만 달러의 펀드가 있다면 2% 정도의 운영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수입은 기부자지정기금으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포함된 하나의 색깔로 구성된 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원가비용은 수입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파이는 하나의 색깔이 아닌 세 개 혹은 네 개의 색깔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면서부터입니다.”

재단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림 7>과 같이 ‘커뮤니티 임팩트펀드’(CIF, community impact fund)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모든 지정기부자가 매년 그들의 지정펀드의 5%를 임팩트펀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핵심을 이룬다. 재단은 더 나아가 지역의 긴박한 이슈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기부자의 관심을 연계하여 다양한 펀드를 만들어 왔다. ‘재난구호 커뮤니티 임팩트펀드’(Disaster Relief CIF), ‘예술 커뮤니티 임팩트펀드’(Arts CIF)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들 새로운 모델의 펀드에 대해서는 기부자들과 함께 시장조사와 검증도 거쳤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도 했다. 물론 이 작업을 위해 작업진행비로 총 펀드의 10%가 할당되었다.

“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이 엄연히 존재해 왔고,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 사람들은 기꺼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일의 진행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으며, 애정을 가진 기부자들이며, 여기에는 핵심적 기부자 6~7명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델에 참여한 두 명의 신규 기부자의 의견은 찬반 두 가지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꼼꼼이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건의 언급과 같이,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맥락, 그리고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일은 지역 재단이 뭔가를 도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소다. 이런 전제 위에 지역재단은 단순한 펀드관리자가 아니라, ‘전략적 촉진자’(strategic facilitator)가 되어야만 함은 물론이다. 물리건의 다음 언급은 새로이 시작하는 젊은 지역재단들이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기부자 혼자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더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임팩트펀드라는 저수지 속에 공익을 위한 자원을 한데 모으고, 이를 통해 개별 기부자들이 의도한 임팩트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비용 관리하기

보고서는 지역재단 지출과 관련하여 스텝과 관련된 비용, 즉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창의적 대안을 통해 이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가 관건임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재단으로서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지역재단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해결책으로서 가장 최적화된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새로이 출발하는 젊은 지역재단에서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어떻게 전문성 있는 스텝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계약직 직원의 활용, 전문성을 시간집중제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자문 전문가 그룹, 이사진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일반 행정이나 관리 운영 부문의 아웃소싱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케른 지역재단과 캘리포니아 지역재단 간의 제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은 이사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새로이 출발하는 젊은 지역재단은 무계획적이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참여가 독려 되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성장을 지향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단 이사들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기능과 역할, 즉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파악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 그리고 신의를 가진 수탁자 또는 안내자로서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 이사로서 책무(accountability)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다. <표 IV-2-8>은 지속가능성과 임팩트를 염두에 둔 지역재단 이사회의 역할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표 IV-2-8〉 지역재단 이사회의 역할: 지속가능성과 임팩트의 가이드

재단을 둘러싼 경제적 원칙과 동인에 대한 이해, 심화 발전	제공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가격, 인센티브, 지원 결정 원칙 및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렬	재단의 경제적 프로파일을 매년 재검토
여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면, 서비스 및 재화, 특정 서비스의 원가 비용, 수입, 과거의 성장 추이 등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 원칙과 동인을 고려할 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인지 등 우선순위를 결정함	기부자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통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이 시작하는 젊은 지역재단의 '경제학'은 빠르게 변함. 매년 검토, 그 변화를 인지해야함. 이는 재단을 목표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선순위를 항상 염두에 두게 함.

출처: Growing Smarter, p.30

3. 지역재단 : 정보와 사회참여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이 지원한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 (Knight Community Information Challenge, KCIC) 프로그램은 더 나은 지역사회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난 5년여 동안 80개 이상의 재단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다.

이번 장은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재단이 지역 미디어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전략적 우선순위와는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 갔는지? 목표했던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각각의 지역재단이 그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정보'(information)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이트 재단과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

지역차원의 보도 기능 강화, 시민 간의 대화 증진, 디지털 해독력 증진 등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다. 특히 뉴저지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of New Jersey), 하와이 지역재단(Hawaii Community Foundation) 우드카운티의 인커리지 지역재단(Encourage

Community Foundation, Wood County), 더뷰크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of Greater Dubuque) 등 4개의 지역재단 사례는 『사례연구: ‘지역사회 정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³⁵⁾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표 IV-3-1〉 참조).

네 개의 사례는 시민 리더십에 대한 헌신과 기여, 지역 비영리조직과 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지역사회 내의 논의를 중재하고 이끌어 가는 신뢰받는 매개조직 구축 등 지역재단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자리매김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보여 준다. 이에 참여한 재단별로 살펴보면,

- ▶ 뉴저지지역재단의 경우는, 주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대화 및 의견을 모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양질의 저널리즘 지원 강화를,
- ▶ 하와이지역재단의 경우, 청소년들의 소통능력 개발과 디지털 해독력, 소통능력 증진을,
- ▶ 인커리지지역재단의 경우, 지역사회 정보 교환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 ▶ 더뷰크지역재단의 경우, 환경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민행동의 촉발과 참여의 증진을 그 성과로 설명하고 있다.

35) 원제는 Case Studies: How Four Community Information Projects Went from Idea to Impact, (2013) FSG and Network Impact, Knight Foundation

〈표 IV-3-1〉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에 참여한 4개 지역재단 프로필

	뉴저지(1979)	하와이(1916)	우드카운티(1994)	더뷰크(2001)
자산	\$2억 1,700만	\$5억 2,100만	\$3,000만	\$3,400만
스텝수	9	59	16	13
미션	기부자들과 조직, 이슈,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뉴저지 건전성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와이지역재단은 하와이 전 지역의 편익을 위해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우고 해결 방안과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한다.	〈핵심 목표〉 • 모든 사람을 리더로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새로운 경제 지원 • 디지털 차별의 극복과 정보접근권 확대 • 커뮤니티임팩트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지역사회의 나눔과 자선 조직으로서 더뷰크 지역재단은 사람과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북동 아이오아주의 삶을 증진시킨다.
목표	정보격차 축소 (정책 보도)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해독력 증진	정보 및 지역사회 대화 채널의 수요창출	각 개인들의 행동 변화 촉진
목표 대상층	뉴저지 정책입안자, 시민운동가 (인구 880만)	하와이 공익방송 PBS 시청자 (인구 140만) 6~12학년 청소년 (11만5천명)	우드카운티 남부 거주자 (인구 4만6천)	더뷰크시 거주자 (인구 5만8천)
지리적 초점	소규모, 인구밀도가 높은 주	소규모 도서 지역 (지리적으로 분절)	농촌 지역	도시 지역

2) 각 재단별 사업 내용

(1) 뉴저지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of New Jersey)

당시 뉴저지는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입법 및 정책토론 관련 탐사보도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 부분 하강세를 띄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도할 매체 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뉴저지라는 지역사회에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 및 정보 제공, 공론의 장에서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시 뉴저지지역재단은 이를 정부의 책무성과 지역사회 공론의 장과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지역매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두 전직 기자와 접촉을 시작했다. 그들은 심층탐사보도와 지방정부의 정책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온라인 뉴스서비스 매체, ‘엔제이스포트라이트’(NJ Spotlight) 설립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고 2009년 이래로 이들의 후원자이자 파트너의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대중 토론이 심화하던 때로, 새로이 선출된 주지사는 재정, 교육, 사회 개혁 등의 논쟁적 주제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명성을 확장하고 사실에 근거를 둔 의사 결정을 위해 어떤 시기보다도 신뢰할 만한 언론보도와 정보 출처가 필요했다.

특히 재단은 지금까지 교육, 보건의료 등에 대한 기부자지정펀드의 관리자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지역사회의 핵심적 이슈와 공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엔제이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출발 전까지 사업 계획, 전략기획 등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이 과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재단과 엔제이스포트라이트가 함께 만든 지역사회 이슈를 토대로 한 전략기획의 핵심적 내용과 원칙은,

- ▶ 스포츠, 사건사고, 특정 집단·조직 내의 정치적인 문제 및 가십과 같은 일반적인 뉴스를 지양하고 뉴저지의 정책(policy)에 관련된 보도에 집중한다.
- ▶ 정책입안자, 정부관리, 지역사회 리더, 시민사회단체,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으로 대상 청중을 명확히 한다.
- ▶ 사업, 기업후원, 광고 등 수입창출 계획이 포함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 ▶ 명망 있는 기자, 전문성 있는 기자를 채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2010년 5월 엔제이스포트라이트는 교육, 에너지,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첫 출발을 하였다. 특히 공교육 이슈와 관련하여 ‘교사정년 개혁법안’(teacher tenure reform bill)을 둘러싼 논의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의원, 학교, 교사 등을 포함, 모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교사 평가 방식, 평가 규칙과 집행 방식 등의 이슈를 가운데 두고 논의 전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으로서 충실한 보도를 했다.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 노조와 주 의회가 합리적 결론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엔제이스포츠라이트는 문 저 뒤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이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주 상원의원 루이즈)

에당초 재단은 엔제이스포츠라이트가 한편으로는 뉴저지 주정부에 대한 ‘워치독’(watch-dog)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환경, 보건의료 등 공익을 전제로 한 재단의 관심 정책 분야에 대한 여론과 주정부의 결정을 추적 관찰해주길 기대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엔제이스포츠라이트’와 뉴저지 지역재단의 사례는 두 조직의 제휴가 지역 언론 재생과 양질의 정보 제공, 공론의 장의 구축, 이를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2) 하와이 지역재단 (Hawaii Community Foundation)

하와이는 섬이라는 특성상 서로 흩어진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뉴스보도의 전형적인 형태를 찾기도 쉽지 않다. 2009년 3개의 미디어가 합병을 단행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기자도, 다양한 보도의 목소리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주 정부의 적자는 교육예산의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공영방송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와 학생뉴스 네트워크인 ‘씨라이더 프로덕션’(Searider Productions)이 발 벗고 나서서 자신의 자원을 지역 중고등학교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와이지역재단도 역시 다른 민간 사립재단들과 함께 이를 도와 최초의 주 차원 학생뉴스 네트워크인 ‘히코노’(HIKO NO, 하와이 말로 “할 수 있다”는 뜻)를 설립

하는 데 힘을 보탤다. 특히 섬으로 이뤄진 많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에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하와이지역 재단이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는 하와이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관련기술 습득, 학교 미디어교육 향상을 위한 교사역량 제고, 하와이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이야기 소개라는 공영방송 PBS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었고, 이 둘 토대로 두 기관은 히코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이전에는 하와이 방언인 니하우(Ni'ihau)를 할 줄 아는 것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낙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와이를 빈곤과 감금의 상태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코노(HIKO NO)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들 언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 언어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우나니 씨워드, 학교교사)

결국, 하와이 공영방송 PBS와 하와이지역재단이 주도한 히코노 프로그램은 교사들로 하여금 디지털 해독력을 향상하고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사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동료끼리의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자기 확신과 기술을, 그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성세대가 가질 수 없는 자신들의 독특한 관점을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소통하고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또래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목소리와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인커리지 지역재단(Incourage Community Foundation, Wood County, Wisconsin)

위스콘신 주 우드카운티 남쪽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사회지만 이곳에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제지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40%의 인원감축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젊은 노동자들은 마을을 떠났고 장년층 노동자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특정 기술은 있었지만 축소될 대로 축소된 지역 산업은 이들의 기술을 찾지 않았다.

지역 언론의 합병, 구조조정 등 지역 매체와 지역 뉴스 보도의 축소가 뒤따랐지만, 이들 문제는 경제적 현안에 묻혀 지역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역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이슈가 단순히 노동력과 취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십의 부재, 나눔과 기부문화의 위축 등 좀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역의 지역재단인 인커리지재단은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유통할 좀 더 강력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과 파트너 기관이 비록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뉴스와 정보에 대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단은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적용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의 강좌를 개최하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뢰의 회복과 진전된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단은 2009년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행했고, 양질의 정보와 이에 대한 접근성 이슈가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정보의 관계를 재단의 CEO인 켈리 라이언은 ‘올바른 사이클’로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믿음으로부터 변화와 차이를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지역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층 더 촉진하는 일은 우리 지역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문화적 이슈이며 혁신적 이슈이자, 구성원들 스스로 힘에 대한 확신과 차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재단은 이러한 흐름의 촉진을 위해 세 개의 축, 즉 접근(access), 역량(capacity), 참여(engagement)의 이슈를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플랫폼인 닉셀(Nixel)을 채택하여 이메일, SMS, 웹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해독력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이들 기관을 통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플랫폼인 왓츠업(What's Up)을 만들어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의 모든 뉴스를 모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 정보는 물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데이터만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역구성원들의 삶과 관련된 데이터가 무엇 인지를 함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를 이뤄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켈리 라이언)

결국, 인커리지 지역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참여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이를 통해 다시 낼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과정은 이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역구성원들과의 쌍방향 대화, 대학과 연계, 지자체와 소통 확장은 향후 사업전개와 관련하여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갈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재단은 지역 신문사가 소유했던 빌딩을 사들여 지역민들의 토론과 참여의 장인 ‘타운스퀘어’(town square)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풀뿌리조직의 활성화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해 갔다.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기부금조성이라는 전통적 접근법에서 지역사회 모든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로 자신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정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가 자신만의 생태계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배웠 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의존적인 문화, 특권의식에 바탕을 둔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변화 전략에 정보라는 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켈리 라이언)

(4) 더뷰크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of Greater Dubuque, Iowa)

더뷰크는 아이오아 주와 일리노이 주 그리고 위스콘신 주의 경계에 있는 중소도시다. 1980년대 소위 중서부 농장위기와 지역 제조업의 붕괴는 실업률을 치솟게 했고 지역사회를 거의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다. 그 이후 지속적인 복구과정과 변화를 거쳐 지금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출판, 금융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IBM이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뷰크 시의회는 도시를 재생하고 재 브랜딩하기 위해 2005년 환경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배치했으며 ‘지속가능한 더뷰크’(Sustainable Dubuque)라는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원들을 접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니셔티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이에 더뷰크 지역재단은 소위 ‘더뷰크 2.0’이라고 이름 지워진 지역 환경이슈를 둘러싼 지역사회 참여 전략을 개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면서 이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라는 슬로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지역 이슈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였는데 이를 위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 허브이자 웹 포털을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보를 통한 지역민의 참여와 실천적 행동을 독려했다. 그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행사와 파머마켓(farmer market)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카페 포럼과 설문조사,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개별화된 자원의 사용량 측정과 비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 온라인/오프라인 게임 개발과 이를 통한 선의의 경쟁 등 구체적이며 차별적인 접근법은 이슈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에 기초해서 그 출발점을 삼은 점, 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들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맺어 허브에 연결한 점, 기존의 시 정부 캠페인과 기업의 지속가능 노력에 다가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낸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단은 ‘더뷰크 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손실된 핵심적 링크, 즉 개별적인 개인들,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복원해 내었다. 이들 과정에서 재단은 지역구성원 각자가 제때, 제대로 된 형태로,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지역사회 리더십의 가치가 무엇

인지는 물론,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임팩트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관심과 열정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뷰크2.0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누군가와 연결되었고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서로 묻고 대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를 수많은 사람과 연결하게 해 주었고 지금도 나는 그들 중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 NPO리더)

현재 재단의 ‘더뷰크 2.0’은 시 정부의 ‘지속 가능한 더뷰크’와 통합되어 별도의 제휴 조직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재단이 애당초 가졌던 출구전략대로,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정상궤도에 이르면 궁극적으로는 제3의 독립적인 지역사회 조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3) 합의

이들 네 가지 사례, 즉 나이트 재단이 지원하고 지역재단이 참여하고 실천한 ‘나이트 커뮤니티 인포메이션 챌린지’는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갖는 지역재단에게 몇 가지 합의와 교훈을 전해준다.

첫째는 사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기획하느냐의 이슈다. 즉, 1)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지역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보와 관련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태는 어떠한지 분석·평가할 것, 2)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세분화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 대상층을 분명히 하고 이곳에 역량을 집중할 것, 3)소통채널의 부재로 어려움에 놓인 지방정부 혹은 기업이 있다면 강력한 정보채널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이슈다. 즉, 1)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이웃과 비교(‘더뷰크2.0’의 ‘smart meter’의 예와 같이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것, 2)지역의 정보를 지역구성원 모두가 접근하여 숙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반드시 공론의 장에서 폭넓고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교사정년개혁과 관련된 ‘엔제이스포츠

라이트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의 사례와 같이), 3)인터넷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관련된 디지털 독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홍보·제공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시대 상황과 기술 수준에 맞는 이동 통신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이슈다. 즉, 1)가용한 내외부 미디어 및 IT 전문가와 대학 등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활용할 것, 2)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급적 브랜드가 인정된 조직 혹은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 3)사명을 완수하고 조직을 지속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기부와 자선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즉 한편으로는 시장을 통한 수익 관련 사업 및 활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협약 및 계약 등 수입 구조 다변화를 통한 특정 자원의존성 탈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정보와 소통,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 참여와 숙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가치,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역재단이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들 사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국내 시사점

새로이 출발하는 신생 지역재단들은 대부분 “우리의 사명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산의 규모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현재의 적자가 상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거나, 지속적인 자산의 양적 증가가 성장이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결코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잘못 내려진 정의이자 판단이라는 것이 어바인재단의 ‘이니셔티브 II’가 내린 결론이다. 더구나 지역재단의 성장은 한 가지 요소 혹은 한 가지 접근 방법만으로는 정의할 수도 없으며, 자산 증식을 여러 전략 중 하나로서 상정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전략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중요 의사결정 전에 지역재단을 둘러싼 경제적 원칙과 동인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생 지역재단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은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레버리지 효과를 그리고

의도한 임팩트를 지역사회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리경영적 접근(controlled approach), 참여적 접근(engaged approach), 레버리지적 접근(leveraged approach)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아직 유아기 단계에 있는 한국 지역재단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개연성과 지속가능성 이슈를 염두에 둘 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어바인재단의 보고서(Growing Smarter)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원리 및 동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펀드 및 서비스의 우선순위 정립, 비용 요인과 기부자의 인센티브 및 가격 정렬, 자원의 다변화 및 다양화를 통한 꾸준한 수입구조 개선, 비용의 관리 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조직의 존재 이유인 사명에 대한 성찰과 실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전과 전략, 유연성 등의 요소에 또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바인재단의 '이니셔티브 II'가 지역재단의 조직 경영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술적 요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두 번째 사례로서 언급한 나이트재단의 지역사회 정보 프로젝트(KCIC)는 정보·언론·민주주의·지역사회라는 키워드를 통해 좀 더 큰 그림에서 지역재단을 그리고 있다.

뉴저지지역재단의 경우, '엔제이 스포트라이트' 설립 지원을 통한 양질의 저널리즘 재탄생,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재각인 시킴으로써 정책결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³⁶⁾ 하와이 지역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미디어 기술 교육, 교사들의 디지털 해독력 향상 등 교육과 정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이뤘다.³⁷⁾ 인커리지 지역재단의 경우는 불경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지역 뉴스의 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극복해 간 사례다. 특히 이 사례는 더뷰크지역재단과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이 '참여'와 '정보'라는 전략적 선택을 디지털 및 IT기술이라는 가시적·

36) 뉴저지지역재단과 같은 유형의 사례로서 The Lens-School Board Coverage (Greater New Orleans Community Foundation), Oklahoma Watch (Tulsa Community Foundation)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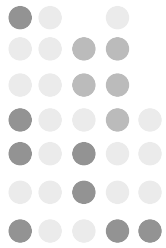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37) 하와이지역재단과 같은 유형의 사례로서 Youth-on-Air (Community Foundation of Utah), Public Access TV (Long Beach Community Foundation)가 있음.

실천적 개입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³⁸⁾ 마지막으로 더뷰크 지역재단의 경우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재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주된 이슈였다. 사업의 주제와 대상은 다른 재단들과는 다르지만 이 역시 ‘정보’와 ‘참여’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지역 재단은 ‘더뷰크 2.0’이라고 명명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가용자원과 지역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존의 지방정부 프로그램과 지역의 기업들(IBM)과의 적극적 제휴, 게임 및 선의의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허브 및 포털의 구축 등 지역구성원으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 실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⁹⁾

결론적으로 위의 네 가지 사례는 지역 언론과 매체의 역할,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공유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견인해 내고, 이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지역재단의 책무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과 운영의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8) 인커리지 지역재단과 같은 유형의 사례로서 GrowNY (Community Foundation of Greater Buffalo), Community News Matters (Chicago Community Trust)가 있음.

39) 더뷰크 지역재단과 같은 유형의 사례로서 Food Information Center (Blue Grass Community Foundation), YouChoose Bay Area Initiative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가 있음.



V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과제



Ⅴ.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과제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지역의 문제는 가능한 지역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재단의 출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재단의 활동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이란 무엇인가. 먼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용하는 이들에 따라 각기 그 의미가 다르다. 브룬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⁴⁰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IV장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어바인재단(Irvine Community Foundation)의 보고서 Growing Smarter(2007)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역재단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이란 “지역재단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지역재단 설립조차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향후 국내 지역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40) 브룬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져 있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1988년 UN총회는 브룬트란드 보고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각국의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1992년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기념한 리우(리우데자네이루) 회의는 UN환경발전회의로 불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함.

소수에 불과한 지역재단이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정치, 문화,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역동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역문제 해결 방법의 한 축이다. 지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현재에도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삶의 애환들이 존재하고(김미현, 2014)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성의 개념이 중요시 된다. 지역재단의 기능 및 역할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역시 그러하다.

아직 역사가 그리 길지 않으나 국내 지역재단 중 가장 먼저 설립되어 지역재단 설립과 운영의 희망을 보여주는 천안 풀뿌리희망재단과,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천희망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 지역재단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100년이라는 지역재단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제도적이며 인도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지역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역시 지역재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만 흐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기에 선도적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적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과정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높은 성장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히려 성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장이 무엇인지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천천히 가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사례에서도 지역재단이 설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같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지역의 역사적·사회문화적·

정치적·경제적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준비상황 및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유형(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 비전 및 미션, 모금전략 및 방법, 리더십 유형, 민관 협력(파트너십) 등이 차별화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지역재단들은 설립 시 정책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부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시대적·지역적인 요구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각과 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9년 역사를 가진 풀뿌리희망재단은 물론 5년차에 접어든 부천희망재단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는 재단의 발전과 성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천안 풀뿌리희망재단의 경우 2011년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아 이사회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비전을 재점검하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풀뿌리희망재단은 1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재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천희망재단 또한 5주년을 맞아 재단의 미션 및 비전 등을 재점검하고 5년 사업을 통해 드러난 재단의 강점 및 약점 등을 분석해 수정·보완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풀뿌리희망재단과 부천희망재단 외에도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남동이재단 등이 지역사회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립 후 2~3년 동안은 생존이 중요해요. 좋은 일에 배분하는 것보다, 재단 살림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죠. 취지에 공감해 주신 고액 기부자 두세 분이 계셔요. 간곡하게 설득해서 매달 운영비를 후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 주는 분이 몇 분만 계셔도, 어떤 재단이든 처음에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지역 재단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초기에는 고액 기부자들이 있었죠. 150만원을 만들려면 1만원씩 150명 모아야 하잖아요. 그분이 먼저 후원을 해 주시는 동안 열심히 소액기부자를 만들어야죠. 공익단체 만들 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중략)

연구나 기획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목이 말라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에서 지역재단을 돕는 인력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드림투게더’라고 21개 기업이 연합해서 만든 전국 지역아동 센터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KT 직원이 파견돼서 그곳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지역재단도 기업이 직원을 파견해서 도와주면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이 될 테고,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직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부 틀을 만들어서 기업과 MOU를 맺는다면 공익재단이 살아 남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기업도 공익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테니 사회공헌을 하는 데도 연결이 되겠죠.”(2015.3.25. 김범용 이사, 희망제작소와의 인터뷰 중에서)

첫째, 지역재단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어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금전문기획자 및 지역사회를 공익적으로 디자인할 전문가, 즉 정책생산기획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익마케팅 모금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지역변화 창출을 위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후원 기부금에 대한 연결 홍보 등 지방정부의 재단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홍보가 필요하다.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사례에서 재단 창립 초기 발기인 참여에 대한 요청을 하였을 때 팸플릿과 전화 한통만으로도 발기인 회비 1백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듯이, 실제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므로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모금기획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시민 및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기부 및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설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시민과 기업들의 기부 및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천안풀뿌리희망재단에서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시민(2010년) 및 기업(2011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천희망재단의 경우 2015년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계획하여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반시민 및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설문조사가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전폭적인 협조나 지역 내 대학이나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 등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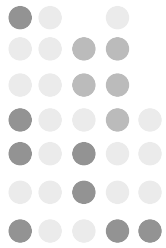
넷째,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의 모든 이사진이 전문가 발굴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향후 유산기부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및 지역재단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비롯하여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 자원봉사자의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임이사는 물론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사무국장 등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모금전문가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재단 스스로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등을 통한 성과 분석 및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재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성과는 사업의 수나 예산의 총액 등 산출(outputs)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통해 지역재단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s)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재단이 추구하는 미션 및 비전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사업수행을 제대로 진행해왔는지, 수치가 아닌 영향력(impact) 및 과급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스스로 평가지표⁴¹⁾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평가지표는 재단의 미션 및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평가지표는 단체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표라 함은 목표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연초에 수립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연말에 점검하는 것이 평가라 한다면 단체의 목표는 곧 단체의 지표와 같은 것이다. 단체의 목표를 남이 수립해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지표 역시 단체 스스로가 수립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서울시 NPO지원센터, 2014)

41) 2014년 서울시NPO센터에서는 ‘NPO와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social impact framework)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VI | 정책제언 |



Ⅶ. 정책제언

1.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 및 자원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역재단의 특성 및 역할과 국내외 지역재단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후발주자 또는 지역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지역재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의 노하우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 지역재단의 선두 주자인 천안 풀뿌리희망재단과 부천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형규모의 해외 지역재단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민간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장기적·거시적 접근 필요

지역재단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민간에서 생각하는 ‘지원’의 의미와 ‘관’의 그것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는 민간 혹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단체들을 만나보면 예산 지원을 넘어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킹, 홍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과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 및 교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정은 민간에 대한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생각해볼 일이다. 특히, 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각 단체들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예를 들면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에서 해야 되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누가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위임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혹은 시민사회에서 행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지역재단의 사업목표가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역의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이는 최초의 지역재단인 미국 클리블랜드재단이 설립 이후 5년 동안 지역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만 몰두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장기적이며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에 대한 투자이다.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3) 지역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수립에서 좀 더 언급하기로 하겠다.

2) 소관부서 및 법규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관련 규정 보완·개선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 및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재단과 같이 선행사례가 드물고 포괄적인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차도 주무부서 선정 및 허가 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이 법인 유형에 따른 주무부서와 관련 규정 등을 미리 정비하고 이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더욱이 담당인력이 빈번히 교체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 작업이 선행되면 어느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법인 설립의 조건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법인설립조건인 기본재산을 줄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에서 생각하는 ‘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관련규정을 보완·개선하고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들어 널리 홍보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3)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수립

지역재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강점 및 약점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구학적 배경을 비롯하여 역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용자원 및 문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 이후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설립초기인 우리나라의 지역재단들이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행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비영리단체, 학계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재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민관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가 된다. 행정은 각 민간단체의 종류와 유형, 주요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소관부서 및 관련 규정 등이 잘 정비되어있는지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각 민간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면 지역재단에서 기부 및 나눔 문화에 대한 시민 및 기업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

통계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지역사회복지 통계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에서 기부 및 나눔 문화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코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4) 자원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지역재단을 이끌어갈 상임이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구축해온 덕망 있는 인사가 상임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임이사뿐 아니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이사진 등 모두의 역할이 막중하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지역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재단 설립에 있어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재단 혹은 그와 유사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일 것이며, 그곳에서 인적자원이 발굴되고 역량강화가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일회성 혹은 단기성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입문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의 활동가들을 발굴·양성해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조례 제정 및 홍보 강화

아직 국내 지역재단의 수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지역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간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지역재단의 소관부서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뿐만 아니라 공공의 합법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를 포함하여 기업과 부유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 유산기부 등 공익광고를 지원하는 홍보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합의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 중에 지역 내 존재하는 크고 작은 비영리 지역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네트워킹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은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지역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목표는 지역의 자생적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방정부의 재단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홍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모금기획 활동, 사회공헌에 동참할 다양한 전문가 확보,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등을 통한 성과 분석 및 자기 점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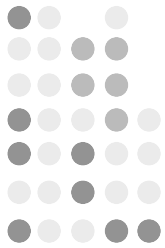
혹자는 현재 우리사회가 비영리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원, 지역사회 변화 및 미래투자 등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모금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배경이 지역재단의 설립 및 활성화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민간조직이 없는 만큼 지역재단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나 비영리모금 및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는 지역재단의 활동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반드시 높은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을 수행할 때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에 맞지 않는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의 발전 및 성장에 대한 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백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지역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지역재단들은 아직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국내 지역재단들이 제도적·정서적으로 힘겨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중간 점검을 통해 긴 호흡을 시도함으로써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국내에는 현재 5개소의 지역재단이 존재하나,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 아직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2014년 연구에서는 지역재단설립매뉴얼을 부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당초 지역재단운영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에서 지역재단 운영매뉴얼 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운영매뉴얼은 지역재단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재단 설립매뉴얼과 함께 현 지역재단운영자 및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미현. 2014.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박원순. 2011. 지역재단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4. NPO와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보고서.
- 아름다운재단. 2007. 지역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연구보고서.
- 재단연구회. 2002. 재단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 https://irvine-dot-org.s3.amazonaws.com/documents/52/attachments/Growing_Smarter.pdf?1412656307.
- <http://www.effectivephilanthropy.org/wp-content/uploads/2014/01/StrategyDisconnectComFund.pdf>.
- Jeffrey S. Lowe. 2004. Community Foundations: What Do They Offer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26(2).
- Knight Foundation. 2013. Case Studies:How Four Community Information Projects Went from Idea to Impact. http://www.knightfoundation.org/media/uploads/publication_pdfs/14170_KF_KCIC_complete.pdf.
- The Center for Effective Philanthropy. 2011. A Strategic Disconnect at Community Foundation.
- The James Irvine Foundations, 2007. Growing Smarter: Achieving Sustainability in Emerging Community Foundations.

서울시복지재단 2015-33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임성규

편집인 김혜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전화 02-2011-0400

팩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명문인쇄공사(02-2275-5373)

I S B N 978-89-6298-356-2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